

황수경 (명상리더십 센터장)
"고통 받는 이웃의 마음치유
서원이며 살아가는 힘"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8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08호 2014년 9월 4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나야 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사찰 홈페이지 'SMART'하게 변신

봉은사 · 한마음선원 신도와 쌍방형 소통

현대사회는 손안의 스마트 미디어로 전세계의 수백만 개의 정보를 접하는 시대다. 스마트 기기들은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새로운 문화는 기존에 모바일을 고려하지 않는 사찰 홈페이지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응형 웹, 모든 스마트 기기 '척척'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2014년 1월부터 6개월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7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번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 반응형 웹 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PC 등 미디어기기에 상관없이 구동이 가능하다.

현재 사찰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일반PC에 맞춰져 있어, 스마트 폰이나 일반PC용 모니터 보다 화면이 작은 태블릿 등을 이용하면 글씨가 작아 해독에 문제가 있었다. 반응형 웹은 웹사이트가 접속기기를 판별해 자동으로 해상도를 맞춰준다. 또 법문 등의 영상은 인터넷 영상사이트 유투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이트 퀵메뉴, 자주찾는 페이지 아이콘 등을 통해 페이지 전환을 최소화 한 것도 특징이다.





봉은사 반응형 웹 시스템 홈페이지(사진 위쪽)와 한마음선원 포털형 홈페이지

네이버 부럽지 않은 포털 기능 갖춰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1월 개통한 홈페이지는 사찰 최초로 방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사이트와 연결되는 포털 기능을 지녔다.

한마음선원의 새 홈페이지는 기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내용과 함께 개별 법문 검색서비스, 사진 및 영상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보다 강화됐다. 특히 대행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각도로 조망한 온라인 박물관 '임의 소식', 육성법문을 담은 '오디오 도서관', 다양한 영상자료가 구비된 '한마음 TV' 등으로 이뤄져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는 대부분의 기능이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클릭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여기에 한마음선원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8월초 오픈했으며 한마음 eBook 앱을 개발해 〈뜻으로 푼 천수경〉 〈영원한 나를 찾아서〉 등 7권의 전자책을 업데이트했다.

신도와 소통 중점 둔 온라인 포교

두 사찰의 홈페이지의 특징은 뛰어난 기능 뿐만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신도들와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봉은사의 경우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봉은사톡의 쌍방향 커뮤니티를 개발했으며, 한마음선원은 모바일메신저를 개발 중에 있다.

봉은사의 '봉은사톡'은 각 신도회원의 신행 소통 공간인 '봉은톡'과 문화와 사중행사를 공유하는 '광장톡', 템플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템플톡'으로 구성돼 있어 나이가 많은 신도들도 쉽게 사찰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음선원 메신저는 모바일기기로 사찰일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수행상담을 올리는 친견실메신저 등으로 구성돼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마음선원 미디어실 오광은 과장은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쏟아져 사찰 홈페이지로만은 불자들의 수행이나 교양교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며 "모바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천 '송도'서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가 개막한 8월 26일, 어린이 · 청년 등을 포함한 11명의 아시아 종교인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하며 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기도문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며 연민과 정의가 깃든 세상이 되길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사 2면〉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계, 인천 아시안게임서 전법 펼친다

불교관 운영 · 사찰음식 홍보 주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 10여 일을 앞둔 가운데 불교계가 아시아권 선수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인천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사)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종연)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경기에 참가하는 불교국가 선수임원들이 신앙생활과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교관을 운영한다.

참여사찰 및 기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인천불교조계종사암연합회, 인천비구니연합회, 인천불교연합회, 인천불교회관, 인천서구불교회관, 인천경기포교사단 등으로, 지난 8월 28일 불상과 후불탱화, 다기(茶器)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 불교 영문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선수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불교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연합회 소속 스님, 포교사, 다도요원이 각 1명과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2명, 자원봉사자 4명이 배치된다. 프로그램은 다도체험, 만다라그리기, 명상, 연꽃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아시아음식축제 10여국 참가
불교관, 다도 · 만다라 등 체험
서포터즈, 선수 응원 및 봉사

인천불교총연합회와 조계종사암연합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1000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8월 31일 '1000일 기도 회향대법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7일 '인천자비나눔공동체' 발대식을 연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종호)는 대회 기간 128개 팀, 6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불자서포터즈'를 파견한다. 불자서포터즈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9월 19일~10월 4일)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10월18~24일) 기간 △불자 선수 응원 △내 · 외국인 안내 △불교국가 선수 응원(비인기종목) △지역 봉사활동(터미널과 항만 등 안내, 환경정비 등) △불교국가 선수단을 위한 불교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증진시키고 아시아 평화와 안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사업단)은 대회 동안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에서 열리는 '아시아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해 전세계 아시아인들에게 사찰음식과 불교를 알릴계획이다.

'아시아음식문화축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스리랑카, 키르키즈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이란, 인도,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유명 셰프들이 직접 참여해 아시아 정통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다. 사업단은 100석 규모의 사찰음식 레스토랑 'Green Wisdom of 발우공양'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을 운영해 발우공양, 소박한 밥상,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하며, '적게 먹고 즐겁게 먹고 채식을 하자'는 3소식 캠페인도 전개한다. 방문객 100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과 함께 즐기는 사찰음식 강연도 마련된다.

사업단은 "10개국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사찰음식이 독자적인 음식의 영역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인에게 사찰음식이 종교를 넘어 한국의 문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환수하면 무엇하나… 10년간 1% 문화재로 지정

한선교 의원,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지적

지난 10년간 국외문화재가 4732점 환수됐지만 국보 등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1%에 불과하며 전시조차 대부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의원은 8월 25일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국외소재 환수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단 5건(52점)뿐이라고 밝혔다.

또 대국민 공개 빈도도 낮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환수된 문화재의 31%인 1510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전시된 환수 문화재는 219점으로 14.5% 수준에 그쳤다.

이 중에는 불교계의 노력으로 2011년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왕조의궤'도 들어갔다. 조선왕조의궤는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대국민 전시도 딱 한번 이뤄졌다.

한 의원은 "국외 문화재에 대한 환수 이후에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렵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재인 만큼 해당부처는 환수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1008호 INDEX

시방세계 5
인천아시안게임 선전기원 템플스테이



종합 2·3
ACRP,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합의
지리산 4대 종교인 '세월호 천일기도'
아름다운동행, 모금전문기관으로

신행 6
자비선명상센터 오색차 명상체험

학술문화재 9
〈불교평론〉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충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 발족

국난의 위기 속에서 호국불교 기치 하에 나섰던 의승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 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은 8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념일 제정까지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추진위원회 발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원 스님, 종회의장 향적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계사 한켠에서는 스님들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조계종은 해남 대흥사에 서명운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교구본사와 표충사, 갑사 등 호국사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총무원 교역직 인사 단행… 호법국장 서호, 조사국장 효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7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후임에 보경 스님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교역직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자승 스님은 또 최근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호법국장 혜만 스님과 조사국장 법원 스님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해 호법국장에는 청양 장곡사 주지 서호 스님을, 조사국장에는 사서국장 효상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성공 · 탄탄 · 지오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상임감찰에는 청곡(용주사) · 도심(도선사) · 효신 스님(호법과장)을 임명했다.



호법과장에 인오(해인사) · 조사과장에 덕일(송광사)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효상 스님의 조사국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사서국장에는 도성스님(도선사)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성월 스님의 용주사 주지 당선으로 공석이 된 강화 정수사 주지에 총무원 사서 선혜 스님을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약사사 · 선암사 직영사찰 해제 ‘논란’

조계종 총무원이 직영사찰을 종무회의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 포교거점도량 명목으로 직영사찰로 지정한 개화산 약사사를 3년 만에 직영해제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7일 종무회의를 열고 서울 약사사와 순천 선암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직영사찰의 해제는 지정과 달리 아직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직영사찰법에 따르면 ‘사찰재정악화’와 ‘사찰분규’ 등으로 직영사찰이 지정된 경우 문제가 해소 후 중앙종회 동의 하에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포교거점도량과 재정우량 등의 사유로 지정된 경우 해제 규정이 정해있지 않다.

총무원 관계자는 “중앙종회 동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었으나 현행 종법상 종무회의에서 지정해제를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순천 선암사의 경우에는 사찰분규로 인한 직영으로 지정된 사찰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 약사사의 경우도 2011년 11월 당시 통도사 등의 반발에도 ‘종단 목적사업과 수도권 포교 강화’를 기치로 포교거점도량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하에 지정됐기에 3년 만의 직영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무원은 이르면 9월초 해당 사찰에 대한 신임 주지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소년 평화교육센터 서울에 건립 합의

8월 28일 ACRP 총회폐막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종교인들이 연대하고 적극적 현실참여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8월 28일 ACRP 총회에 참석한 450여 명의 종교인들은 인류의 안녕을 담은 ‘인천선언문’과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26일부터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번 선언문을 제정했다.

우선 ‘인천선언문’에서는 인류의 화합과 평등을 위해 아시아종교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고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정부와 협력,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종교지도자들이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소수민족,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 표출 통로가 되는 대중 매체와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차별과 비방을 줄이는 법안 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선언문’에는 “남북이 어떤 조건 없이 열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며 “현재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고



제8차 ACRP 총회에서 자승 스님(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평화를 위해 행동할 뜻을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승 스님, ACRP 신임대표의장 선출

‘인천선언문’ ‘한반도평화선언문’ 채택

미얀마·말레이지아 신규 회원 가입

2018년 WCRP 총회 한국개최 논의

다양성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8월 25일 열린 여성대회서 제안된 내용들도 채택됐다. 종교인들은 ACRP 지원을 받아 여성 · 아동 차별 방지 공공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KCRP 대표회장인 자승 스님의 ACRP 대표의장 추대도 이번 총회의 쾌거중 하나다. 자승 스님은 딤 삼수딘 의장과 함께 다음 ACRP 총회가 열리는 2019년까지 ACRP를 이끈다.

자승 스님은 폐회식에서 ACRP 대표의 장직을 수락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교간 대화 기구인 ACRP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CRP 사무총장에도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임으로 일본의 요시타카 하타케야마가 선출됐으며, 여성위원장에는 필리핀의 릴리안 시손이 재선출됐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끼 식사 거르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식사기금 1만달러를 KCRP측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미얀마와 말레이시아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해 회원국은 모두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윌리엄 벤들리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사무총장도 이번 총회에 방한했는데, 이는 2018년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한국 개최 논의를 위해서였다. 윌리엄 사무총장은 KCRP 의장단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를 들은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도 이에 대한 실무 논의를 향후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5억원의 기금을 마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평화교육센터를 서울에 건립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8월 25일부터 35개국 450여명의 아시아 종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4박 5일간 열렸다. 당초 공동개최국으로 거론됐던 북한측은 정치적 이유로 불참했으며 회원국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퇴진결의 두고 내홍 심화

원로회의 “불신임 상정” vs 총무원측 “불법적 행동”

한국불교태고종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발단은 8월 28일 태고총림 선암사서 열린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권덕화 스님) 결과서 비롯됐다. 총 22명중 15명(참석 11명, 위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로회의에서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 종회의장 혜공 스님, 호법원장 수열 스님 등 3원장 퇴진을 결의했다. 또한 회의가 끝난뒤에는 원로회의 의장단이 혜초 종정 스님을 친견하고 품청서를 올린 뒤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측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정 스님을 협박해 받아낸 불법적 처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태고종 원로회의 임원진은 8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산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독단을 전횡해 위계질서를 파계시키고 있다”며 “종정 스님도 총무원장이 퇴진할 것을 재가해 주신 만큼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원로회의측은 “‘총무원장이 사퇴하지 않을시 중앙종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시킬 것이며, 아울러 종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을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하지만 총무원 측은 29일 문서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태고종 원로회의가 권한에도 없는 3원장 동반 퇴진을 결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원로회의 측이 강압적으로 모든 종무전권을 위임받는 것도 역시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또한 총무원측은 오히려 종정 스님이 이번 사태를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수습과 안정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고종 종헌종법에는 총무원장 불신임권을 중앙종회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원로회의는 총무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불신임을 결의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앙종회가 불신임안을 상정시킨다면 탄핵 논란에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각회, 조계종에 법인 등록키로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도업)는 8월 26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제229회 이사회를 열고 9월 30일까지 조계종에 법인을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해 이사 도문, 선효, 혜총, 태원, 보광, 장산, 혜국, 지홍 스님이 참석했으며 대각회 소속 사암을 대표해 대각회사암연합회장 원정 스님과 감사 지연 스님이 배석했다. 비공개로 약 세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대각회는 찬반 토론 끝에 법인 등록에 뜻을 모았다.

도업 스님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론을 통해 조계종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분원장들이 법인관리법 동의 여부에 찬반 의사를 표시해 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이라고 밝혔다.

대각회 이사 중 한 스님은 “대각회는 용성문도회의 기반이 많은 곳”이라며 “용성스님께서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고자 대각교를 펼친 창립취지에 기반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 선학원 관련 2차 자료집 발간



법인등록을 놓고 선학과 갈등 중인 조계종이 선학원 분원장들에게 예비등록을 독려하는 자료집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부는 최근 선학원 관련 2차 자료집인 〈선학원 이사회 전횡, 분원장 스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를 전국 사찰과 선학원 분원에 배포했다.

조계종은 자료집에서 △선학원 이사회의 법인등록 거부에 따른 대처 △법인등록 거부에 따른 문제 △선학원 이사회의 역할과 의무 △선학원 이사회의 전횡 △탈종하려는 선학원 이사회 △법인관리법에 대한 선학원 주장의 허구 △법인관리법의 수용에 대한 입장 비교 등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실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종산내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총본산 제동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3번길 13-11 (제동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742-0246 / 사무총장 010-6328-2773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지리산 4대 종교인 '세월호 천일기도'

8월 30일 실상사서 입재… 지리산 지역 종교 · 시민단체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한국사회가 정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지역의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인 '생명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10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지리산 천일기도 추진위원회는 8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과 과제인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 지리산 실상사에서의 입재식으로 시작을 알린 '세월호 1000일 기도'는 오는 2017년 5월 25일 회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도는 지리산 지역 각 종교 · 시민단체 등이 단체별로 상시 기도와 상설 1000일 기도단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기도로 이뤄진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참사가 던진 과제에 대한 성찰, 국민들에 대한 치유 기원이 기도의 주요한 메시지다.

이를 위해 실상사는 경내 목탑지에 새롭게 상설 기도단을 조성했다. 전 홍익대 교수인 안상수 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장이 기도단의 설계를 맡았다. 기도정진단에는 세월호 희생자

실상사에 1000일 정진단 제작
매일 1명씩 1000일 릴레이 기도
100일마다 야단법석… 방안 모색
오는 2017년 5월 25일 회향 예정
"政爭아닌 화합 · 사회변화 되새길 것"

304위를 상징하는 태양광 등이 함께 설치됐으며, 옆에는 대나무 304개를 세운 분향소를 별도로 마련했다.

실상사의 정진단은 매일 1명씩 '1000명 1000일 릴레이 기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일 기도계획을 밝히는 도법 스님

가톨릭 성심원에 설치되는 정진단은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매달 지리산권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동기도회와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100일마다 야단법석을 열고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야단법석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패널을 섭외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꾸며질 계획이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리산종교연대 대표 홍현두 원불교 교무는 "지리산 지역 종교인들이 1000일 기도에 나선 것은 '이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생명평화의 땅,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서 1000일 기도를 통해 치유와 갈등 해소를 기원하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고문인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자'는 성찰의 구호가 이제는 편 가르기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정작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생명평화와 공동체 가치 회복'이라는 화두는 흔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다. 이에 대해 어른과 종교인들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성찰을 이어가야 한다. 지리산 모든 종교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1000일 정진은 세월호 참사가 던진 화두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구인사국제선원 상량식

한국전통불교문화와 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불교문화체험공간이 올해 말 천태종 구인사에 들어선다. 8월 28일 상량식을 한 구인사국제선원이 바로 그것이다. 선원은 올해 말 완공해 빠르면 내년 4월경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인사국제선원은 국비 25억원, 충북도비 7억 5,000만 원, 단양군비 17억 5,000만 원과 자부담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7,825㎡(2,370여 평)의 부지에 국제선원 1동, 문화 체험실 2동, 한마음 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이 들어선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회향

8월 27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소년출가자 7명 포함



조계종은 8월 27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47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남행자 72명이 사미계를, 여행자 41명이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전계대화상에는 고산 스님, 전계사 종진 스님, 갈마아사리 성우 스님,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이 참석했으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이 함께 했다.

한편 8월 13일 입재해 16일 동안 진행된 제47기 수계교육에서는 '청소년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소년출가자 7명 등 113명의 행자들이 입교해 염불과 습의를 익혔다. **노덕현 기자**

지친 마음 산사에서 힐링하세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관광주간 무료 이벤트

세월호 참사 등으로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템플스테이가 무료 이벤트를 펼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찾는 시간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전국의 110여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동참하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만 이뤄진다.

본격적인 단풍시즌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참가자(4인 이하 가족)의 동반 자녀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특별히 제공되는 본 무료 혜택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며, 미취학 아동 동반 시 프로그램 참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7월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 및 안산시 소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로하는 치유와 희망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왔다. **신성민 기자**

아름다운동행, 모금전문기관으로 발돋움

설립7주년 맞아 CI 새단장… 초 · 중 · 고 4천5백곳에 10만 저금통 전달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 dreaminus 아름다운동행

아름다운동행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며 기존 CI(사진 왼쪽)를 대신해 신규 로고와 영문 브랜드 네임(사진 오른쪽)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설립 7주년을 맞아 CI(Coporate Identity ·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네임을 변경하고 모금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8월 29일부터 변경되는 아름다운동행 CI는 기존 사찰을 형상화한 전통적 이미지에서 조계종단의 삼보륜 이미지를 차용해 개발됐다. 글씨체도 붓글씨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 서체에서 반듯한 석보체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에 용이하도록 'dreaminus(드림인어스)'라는 영문 브랜드 네임도 선정했다. '아름다운동행'이 재단과는 별개로 사회 각계 나눔 활동에 수식어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를 대체할 브랜드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던 터였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기존 CI를 7년 이상 사용해오면서 확보된 인지도 때문에 변경작업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면서도 "국제활동에 용이한 영문 브랜드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신규 후원 개발을 위한 이미지 쇄신차 CI에 변화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름다운동행은 CI에 걸맞는 현대적 이미지를 형성, 젊은층 후원자 발굴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드림 아프리카 저금통을 제작, 전국 사찰과 일반 후원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조계종 종립 중 · 고등학교와 어린이법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천5백곳에 10만개의 저금통을 전달해 일상 속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금통은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배포되며 올해 연말에 수거, 전액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한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7~8월에 걸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금통 디자인을 공모, 접수된 작품 중 4개를 저금통 디자인으로 활용한다.

현재 탄자니아에 건설중인 농업학교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명은 '보리가람'으로 정해졌으며 총 공사비 30억원 중 현재 18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법화사상 7만자 새긴 새 도량 세워지다

법화정사, 제기동에 중창불사… 8월 24일 중창법회

법화사상 화현을 발원하는 새 도량이 세워졌다. 법화정사(회주 도림)는 8월 24일 서울 제기동에서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법화정사는 대지 860㎡ 연면적 4134㎡규모에 본관과 별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대도량이다. 특히 〈법화경〉 7만자가 외벽을 장엄한 본관은 그 자체로 한권의 〈법화경〉이다. 서체는 중국 후한시대 서예가인 채옹의 예서체를 사용했으며 이를 새긴 석판 1400여장이 쓰였다.

별관은 조선 세조 당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법화경〉 중 여래수량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여래신력품이 새겨졌다. 법회에는 법화사상을 널리 펼치고자 서원하는 장으로 전국각지의 1만여 불자들이 운집했다. 법회에서는 〈법화경〉 독경과 함께 대웅전에 봉안되는 부처님 세안식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나눔과 생명존중' 강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은 8월 27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85회 경주시 화백포럼에서 강의했다.



낙산사 포교국장 임명

前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지철 스님이 8월 25일 강원도 양양 낙산사 포교국장으로 임명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주재훈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2015년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됐다.



201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 접수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11월 7일 금강대 사이버강의실에서 열리는 2014추계학술대회 연구논문을 10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041)731-3616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 8월 29일 영결식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 불교를 알려온 해봉 경암 스님 영결식이 8월 29일 버지니아주 패어팩스에서 열렸다. 경암 스님은 지난 5월 담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 갑자기 입적, 신도 등이 사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영결식이 늦춰졌다.

마곡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폭압을 비판하다 도미했다. 당시 목탁과 3000달러가 전부였고, 워싱턴 흑인 밀집가의 버려진 아파트에서 포교를 시작했다. 1984년 보림사를 창건해 최대 사찰로 키우는 등 33년간 교포는 물론, 미국인을 상대로 포교해왔다. 미주 불교신문 발행인이었고, 조지워싱턴대 등 4개 대학에서도 한국 불교를 알렸다.

관음종 차상위계층 나눔 행사 펼쳐



관음종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이사장 홍파)은 8월 23일 서울 숭인2동 지역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작은 정성 모아 함께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가졌다. 불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복지원측은 약 240여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라면, 수건, 모기채 등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영성 회복, 세월호 아픔 극복 단초"

태국 시민운동 대부 술락 시바락사

불교 복지·NGO 실무자 초청 방한

대안 노벨상 수상자·노벨평화상 후보

불교계 명사들과 대담·세월호 위문

"물질주의 극복은 영성 회복" 강조



"세월호 사건은 우리사회의 소비주의,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현대 기술, 그리고 자본의 힘은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처지가 되어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힘을 모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태국의 시민사회운동 대부이자, 사회비평가인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로터스월드 등 '미얀마를 지원하는 단체실무자 모임'의 초청으로 방한한 시바락사 박사는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복은 우리 이웃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물질주의 하에 무한경쟁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들은 서로를 증오심에 쌓여 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탐욕을 버리고 영성으로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우리사회가 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대안 노벨상이라 일컫는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어워드' (Right Livelihood Award) 수상자로, 1993~1994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차례 오른 이다. 시바락사 박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소비주의에 맞서 대안개발을 주창했으며 이를 실천하는 '세계참여불교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를 1989년 조직했다.

24일 방한 첫날에는 정토회 법륜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과 대담을 나눴으며, 미얀마 이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25일 저녁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지속가능성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26일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시바락사 박사는 물질주의의 영향에 사찰과 교회도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거대화된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신도들을 압제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모든 종교는 상업성을 떠나 영성을 회복할 때 사회변화 흐름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며 "부탄에서 제시한 '국민행복지수'와 같이 진정한 행복은 물질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또 달라이라마가 '중국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 일화를 예로 들며 "우리는 탐욕을 보시로, 폭력을 자비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며 "변화에 대한 자세만이 우리 사회를 바꾸며,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종교계가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바락사 박사는 정부가 불허하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국의 헤게모니에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며 "정부에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일깨워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작용 지향점에 대한 연구 업적

박인성 교수, 제2회 대정학술상 수상



대정장학재단(이사장 김지영)은 제2회 대정학술상에 박인성 동국대 교수〈사진〉의 '〈사분의극략사기〉 행상이설문의 연구'를 선정했다.

〈사분의극략사기〉 행상이설문의 연구는 의식 작용에 대한 지향성을 유식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박 교수는 일본 고대 헤이안 시대의 두 학자, 선주와 중산 스님이 쓴 〈유식분량결〉과 〈사분의극략사기〉에서 유식사분설을 여러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에 착한 두 논서를 연구하고 지금까지 8편의 논문을 써왔으며 이번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은 2013년 불교학보에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행상(行相)에 대한 법상종의 여러 가지 학설을 중산 스님이 해석하고 통합한 것을 연구했다.

박 교수는 "마음에 대해 탐구하는 유식불교는 모든 불교 중 가장 방대하고 치밀한 불교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내려오는 것은 태현의 〈성유식론학기〉뿐이었다"며 "일본에는 풍부한 유식불교 문헌이 현재까지 내려와 유식불교를 공부하려면 중국 법상종 논서와 함께 일본 법상종 논서들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 논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대장장학재단은 장학생에는 송재윤(서울대 경제학부), 김영범(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신종식(고려대 경영학과), 이가영(원광대 한의학과), 이승훈(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한승윤(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등을 선발했다. **노덕현 기자**

후학 위한 십시일반 기부행 이어져

사학 소장문헌·시신기증·장학금 등 다양



故마만주 선생의 부인 함정우 여사가 고인의 유산 2억원과 소장문헌을 25일 전달하고 있다.

불교인재 양성의 요람인 종립 동국대에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전 뿐만 아니라 소장도서, 유품, 심지어 자신의 시신까지 등 후학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모두 기부해 눈길을 끈다.

계보연구대가 故마만주 선생의 유족들은 8월 25일 동국대에 고인의 전 재산인 2억원과 조선왕조실록 등 소장문헌 3500여 권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전남 영암 지장사 주지 화진 스님은 8월 2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 5000만원과 함께 사후 자신의 시신과 전재산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배우 이정재 씨는 8월 25일 동국대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연극학과 출신인 이정재 씨는 2002년과 2004년, 2011년 등 이번 기부 전에도 1억 3000만원을 기부해왔다. 동국대는 '이정재 장학기금'을 만들어 연극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박종수 직할교구 신도회장 취임



제3대 직할교구신도회장을 맡게 된 박종수 회장(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이 전국 신도 조직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박종수)는 8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직할교구신도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연화사 주지 장명 스님, 승가사 주지 정호 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신도회장 소임자로서 종단차원의 신도 조직화활동의 선봉에서서 신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군종교구, 육군교도소 첫 위문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가 2005년 창설 이후 최초로 육군교도소 위문행사를 개최했다. 8월 27일 경기도 이천 육군교도소 원등사에서 진행된 수계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계사로 24명의 군교도소 재소자들이 참여했다. 교도소 종교위원인 용인 광제사 경우 스님을 비롯해 법회에 참여한 불자 20여명은 법회 후 재소자들과 비빔밥 공양을 함께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노덕현 기자**

제12회 대불련 총동문대회 성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8월 23~24일 양산 통도사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열어온 50년! 열어갈 5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총동문대회에서는 제2도약 선언문이 채택됐으며 통도사에 자비의쌀 60가마 400만원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불자선수들과 체육인불자연합회 관계자들이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체육인불자연합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여기 모인 불자 선수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불퇴전 같은 심신과 정진의 힘을 모아 열심히 훈련 · 정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마음이 여러 불자 선수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와 수련대회가 열렸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8월 23~24일 1박 2일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및 법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불자 선수를 비롯해 용인대와 경남체고에 재학 중인 체육 유망주, 체육인불자연합회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레슬링 국가대표 김현우, 양궁국가대표 김우진, 이승윤 선수도 바쁜 훈련 일정에도 잠시 시간을 내 템플스테이와 법회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첫 일정은 템플스테이 입재식. 모처럼 트레이닝복을 벗고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환복한 이들은 힘든 훈련으로 지친 심신을 내려놓고 고즈넉한 산사가 전해주는 힐링에 몸과 마음을 맡겼다. 경내 설법전으로 자리를 옮긴 선수와 체육인불자연합회 임원들은 입재식에서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과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 스님 등의 격려를 받았다.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을, 달마 대사는 9년 면벽 끝에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행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다"면서 "쉼없이 달린 시간을 잠시 멈추고 쉬어라.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 세상의 주인이 '나' 임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인일 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이다. 여러분의 손짓, 몸짓에 국민들은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국민들도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 스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에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며 "자신이 행복과 성공의 업을 쌓으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불자선수들은 선전기원법회에서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발원했다.


템플스테이 둘째날 아침 진행된 숲속걷기명상.

이어 "불자 선수 여러분에게 전 국민과 불자들은 응원과 환호를 보낼 것"이라며 "여러분에 땀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본격적인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의 시작. 봉선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정오 스님(연수국장)은 선수와 임원들에게 '세상의 주인공은 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도법사 정오 스님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와 〈WATCHING〉이라는 두 책을 예로 들며 스스로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8월 23~24일 남양주 봉선사서
불자 대표 선수 · 체육 꿈나무 참석
훈련 지친 선수들 마음 힐링 얻어
한마음으로 아시안 게임 선전 기원

일본인 의사 에모토 마모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물의 결정이 인간의 쏟아내는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김상운 MBC 앵커가 저술한 〈WATCHING〉은 만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에 주목하고 인생의 모든 고민과 생각들을 바꾸어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오 스님은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는 에너지가 나의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을 이룬 것이다. 스스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평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불교 대표 경전인 〈반야심경〉과 〈화엄경〉 약찬게를 불자 선수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며 마음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스님과의 차담, 새벽 예불, 108배, 숲속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특히 미래 국가 대표 선수를 꿈꾸는 체육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었다.

경남체고 2학년 하명찬(역도) 군은 "새벽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하고 108배를 하는 것은 힘든 경험이었으나 자신을 추스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체고 1학년 이장환(레슬링) 군도 "원망, 미움과 같은 부정적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런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우 선배를 만나게 돼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템플스테이는 마지막은 선수와 임원, 봉선사 사부대중이 참석한 선전기원법회였다. 법회 참가 대중은 모두 한마음으로 불자 선수들의 인천 아시안 게임 선전을 기원했다.

법회 증명법사로 나선 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정원 스님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내면적 성장에도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자 선수들과 사부대중은 아시안 게임의 선전을 부처님께 발원하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날 발원문은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가 대표 낭독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의 발걸음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모두가 금빛 메달을 목에 걸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남양주 봉선사=신성민 기자

[인터뷰] 아시안 게임 불자 국가 대표

"산사서 받은 기운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김현우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김현우 선수

2012년 런던올림픽 레슬링 경기장. 금메달을 목에 건 김현우 선수〈사진〉의 오른쪽 눈두덩이는 피멍이 들어 부어올라있었다. 16강 경기에서 상대 선수 이마에 부딪쳐 부상을 입은 것.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한 그는 결국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 화려한 전적을 가진 김현우 선수이지만 유독 아시안게임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쉽게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한국 레슬링은 '노 골드'라는 수모를 당했다. 그래서 김현우 선수에게는 이번 아시안 게임은 '와신상담'의 무대다.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입재식에 참석한 김현우 선수는 "사찰을 찾으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시합 전에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든데 사찰의 청아한 소리와 향 내음은 그런 것을 잊게 한다. 컨디션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불자가 된 김현우 선수는 원주 성문사 신도이며,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도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노 골드' 수모를 갚겠다"면서 "현재 훈련량을 조절하고 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쁜 훈련 일정탓에 오랜만에 들린 사찰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김현우 선수는 "훈련하느라 바빠 사찰에 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잠시 사찰에 들르니 기분이 좋다. 산사의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레슬링을 비인기종목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많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교명상, 경기전 마음 비우는 데 최고"

김우진·이승윤 양궁 국가대표 선수


김우진 선수


이승윤 선수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이다. 누구도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부정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누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우진, 이승윤 선수는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이다. 김우진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2관왕에 올랐고, 올해 세계양궁연맹 2차 월드컵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승윤 선수는 강원체고 시절부터 '초고교급'이라고 불리운 차세대 주자다. 올해 세계양궁연맹 2차 월드컵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지난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휩쓴 그는 치열한 대표 경쟁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우진와 이승윤 선수의 이 같은 실력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돈독한 불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김우진 선수는 불교가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양궁은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입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을 비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승윤 선수는 경기 전 사찰을 찾으면 압박감과 부담감을 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딱 잘라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경기 전 사찰과 법당을 찾으면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줄이는 데는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목표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독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연속으로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했다. 여기에 컴파운드 종목이 추가돼 메달 수도 더 많아졌다. 김우진, 이승윤 선수는 양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다.

"체육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경기와 성적을 내 그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43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삼보 하옵고,
가을빛이 고운 9월의 운문사에서 43차 총동문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일에 卽事而眞하라는 가르침으로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는 1850명의 선후배스님들을 초대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얼굴의 비로자나부처님이 그리운 때입니다.
모교인 운문사로 회귀하여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일시 불기2558년 음력 8월 20일 (양력 9월13일 오후 2시)
■ 장소 운문사 선열당
■ 안건 1. 장학금 전달 (필히 본인 참석)
2. 모교 발전에 관한 건
3. 기타
■ 전화 (054) 372-8800 (운문사 종무소)
(054) 744-9392, 010-9776-9390 (동문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금타 합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무한히 많음을 느꼈어요”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 8월 7~18일 美 서부지역 탐방



지도법사 스님과 18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세도나 등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18명의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을 방문해 꿈을 키우고 돌아왔다.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수암)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8월 7~18일 11박 12일 동안 지도법사 스님과 18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이하 연수단)’과 함께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세도나 등 미국 서부지역과 스탠포드, 버클리, UCLA 대학을 비롯해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체류 기간 동안 미국 LA시내에 있는 한국 사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달마사, 고려사, 태고사를 방문했다.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타모니카해변, 그랜드캐년을 방문해 미국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연수단은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 등 서부 지역 유수 대학을 방문해 도서관 등 대학 캠퍼스를 둘러봤다.

이 밖에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 구글, 인텔 등 구글, 인텔 등 유수기업들을 소개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고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줬다.

이번 연수단에 참가한 성민석(중1) 학생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미국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유학가고 싶다”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무한히 많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오색 찻잔 茶 담아 마시니 내 마음 평온

서울자비선명상센터, 오색차 명상 체험 현장

“손동작의 모든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움직임 하나하나 순간순간 알아차림해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깁니다. 차를 따르면서 차와 일체 도구가 자신과 하나로 연결됨을 생각하면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듯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하게 모두와 함께 하듯 일체감을 느낍니다.”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서울자비선명상센터 사무실. 20여 재가자들이 차(茶) 명상을 하고 있다.

서울자비선명상센터 지도법사인 원허 스님(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이 평소 지도한 대로 장은경(46)씨가 차를 음미하는 법을 안내했다. 그런데 찻잔들의 색깔이 눈에 띄었다. 오색차(五色茶) 명상이란 것으로, 재가자들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흰색 5가지의 찻잔에 차를 담아 마시고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마시는 차로 명상을 한다는 것이 쉽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허 스님은 “차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은 차를 매개로 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차 맛과 혀의 만남, 향기와 코와의 만남, 색과 눈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인연관계의 흐름을 아주 쉽고 가깝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원허 스님의 오색차 명상은 색채를 이용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오색차 명상은 차의 다섯 색채를 방편으로 공성과 빛인 마음의 본성을 깨우치는 데 있으며,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임을 깨닫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몸과 심리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 자비다선 명상은 유행을 따르거나 뿌리 없는 명상법이 아니라 계정혜 삼학을 갖춘 명상법이며, 수행에 따라 체험의 단계와 깨달음이 있는 명상법입니다.”



서울자비선명상센터 회원들이 오색차 명상을 하며 마음공부를 하고있다.

몸의 색소 세포가 외부의 빛과 색채에 반응하듯 5요소의 색채파장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내부는 마음 빛의 표현인 5요소의 색채파장에 늘 반응하고 있다.

마음 집중하고 5색이 주는 심리적 효과 상기하며 음미 몸 · 심리 치유로 보리심 얻기 목표

스님에 따르면 오색차 명상은 감정과 심리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파랑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화와 무지를 다스리며, 녹색은 시기질투와 불안감을, 붉은색은 탐욕을, 흰색은 슬픔과 화냄으로 인해 생기는 가슴의 아픔, 응어리, 삿된 견해 등을, 노랑색은 자만과 고집을 다스린다.

오색차 명상법은 간단하다. 마음을 집중하고 5색이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를 상기하고 차상 위에 다섯 색의 찻잔을 파랑색-녹색-붉은색-흰색-황금색 찻잔의 순서로 나열하고 찻물을 따른다. 다음에는 정좌를 하고 찻잔을 20~30초 정도 바라본다. 이 지켜봄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정됨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5색 찻잔 중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찻잔이 있는지 살펴본다. 눈을 뜨고 선명하게 떠올랐던 찻잔의 차를 마시며, 찻물이 목을 타고 몸 안으로 내려갈 때 찻물의 색을 선명하게 상상하며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연상한다. 이 때 각 색채는 몸에 영향을 주고 또한 색채는 심리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후에는 찻물의 선명함 순으로 차를 마신다. 색차를 한 가지씩 마실 때마다 30초 정도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마지막 찻잔의 색차를 마신 후에는 1분 정도 가만히 몸과 마음 변화를 살핀다.

원허 스님은 반드시 5색 찻잔이 있어야만 오색차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백색 찻잔에 5색 찻물을 따르면 찻잔이 백색이므로 5색의 찻물이 더욱 선명해지고, 찻물의 색채를 지켜 본 후 그대로 5색차 명상법 대로 따라하면 된다. 만약 차 도구마저 없다면 이미지 명상을 통해서 차명상을 하면 된다.

원허 스님은 오색차 명상이 차 마심과 차 수행의 차 마심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스님은 “차 마심도 치유 효과는 있겠지만, 지관(止觀) 수행이 병행될 때만 차 마심이 그대로 생명살림으로 된다”며 “즉 차를 마시는 행위와 맛에 대한 집중은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며 막힌 것을 소통시키므로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오색차 명상을 통해 몸과 심리를 치유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으며 마지막으로 지각있는 존재인 유정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원허 스님의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오색차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했다. 노정월 씨는 “오색차 명상 후 눈을 떴는데 왼쪽 가슴이 살짝 아프다 이내 괜찮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매일 아침 10분씩 하면 하루가 고요해질 것 같다. 아침부터 피곤해서 짜증이 났는데, 스트레스가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보리심 보살은 “온 몸으로 스며드는 노랑색 찻물로 인해 그에 따른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과거에 저장된 정보까지 치유된다는 믿음과 함께 온화하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됐다. 찻물을 기운으로 느끼니 몸은 바로 사라지고 이대로 가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해 선정에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원허 스님은 성주 자비선원에 주석하며 서울, 부산, 대구, 성주, 호주, 캐나다 등 국내외에 6개 선원을 운영하면서 자비다선, 능엄경, 자비수관을 지도 하고 있다. (054)931-8874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포항 인재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유기농기능사 인기 9월 5일 마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포항 인재교육원(원장 이부형)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불교과정(불교기초교리), 자격증 취득과정(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네일아트,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미술심리지도사, 방과후수학지도사, 심리상담사, 유기농기능사, 한자한문전문지도교사, 주산암산교육지도자), 뮤직 아카데미(성악교실, 통기타, 플루트, 덩덕궁 난타), 스포츠 아카데미(댄스스포츠, 탱고), 힐링과정(연극, 수필창작, 가족힐링프로그램, 생활풍수지리, 바리스타, 석고방향제), 특별과정(부동산경매컨설턴트), 미술창작과정에 서예 등이다.

가을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접수 기간은 9월 5일 까지다.

동국대 인재교육원은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유기능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이 인기가 많다”며 “인재교육원의 다양하고 유익한 가을학기 강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포항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과 사회 수요에 적극 봉사하고자 포항시 오광장 한국은행 옆에 포항지역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인재교육원을 설립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교육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 홈페이지(http://dce.dongguk.ac.kr/)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54)278-6969

이나은 기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9월 강좌 개강

매주 토요일 2시부터 영어와 간화선 법회

9월을 맞아 동국대가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매주 토요일 영어법회와 간화선 법회를 개최한다. 9월 영어법회 에서는 외국인 수행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며, 간화선 법회는 ‘마음공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9월 영어법회는 오후 2시부터 △6일: 다니엘라 쉔커(독일)의 ‘관음(동서양 전통에서본 자비의 원형)’ △13일: 린다 에머슨(미국)의 ‘붓다-다르마를 수호하는 9번째 비슈누 화신’ △20일: 데이비드 메이슨(미국)의 ‘도선국사와 풍수지리사상 그리고 위대한 사찰들’ △27일: 환산 스님(용화사)의 ‘현대세계에서의 명상법’ 순으로 진행된다. 간화선법회는 오후 4시에 열리며 △6일 황수경 박사의 ‘명상과 리더십; 자기 자신과의 만남’ △13일: 수불 스님-전심법요/박찬욱 박사- ‘일상에서 ‘각찰’의 힘을 기르자’ △20일: 박규리 박사의 중국 선종 특강 △27일 회산 스님의 선가귀감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가을 선찰답사’를 함께할 신도 및 일반인을 모집한다. 답사는 10월 25일 진행되며 무량사(부여)-성주사지(9산선문, 보령)-대천해변-간월암(서산) 등을 순례할 계획이다. (02)2260-3892

이나은 기자

5일간 3000명 진료… 지역민 문전성시

병불련, 8월 8~18일 인도 아삼서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8월 8~18일 인도 북부 아삼 시바시에서 진행한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병불련은 “해외의료봉사단 16명과 함께 병불련은 10박 11일 동안 해외의료봉사를 원만수행하고 귀국했다”며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우천에도 불구하고 100㎞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진료받으러 올 정도였다. 내과, 소아과, 한방과, 치과 등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고, 안경사가 시력을 교정하는 등 진료기간 5일 동안 약 3000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불련은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인도 아삼 시바시 사원을 떠날 때 현지인들이 보여준 이별의 눈물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해외 의료봉사 원만수행을 법계 제불보살과 중생계에 회향한다”고 전했다.



인도 북부 아삼 시바시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병불련 회원들

이나은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1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5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넉넉한 한가위… 情도 나누고 興도 돋우고

불교계 복지관 추석맞이 행사 '풍성'

한가위를 앞두고 교계 복지관이 바쁘다.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외로워지는 지역소외이웃을 챙기기 위해서다. 복지관마다 경제 · 심리 ·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홀몸어르신은 물론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까지 보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명절의 흥겨움도 놓치지 않는 추석맞이 나눔 한 마당을 미리 들여다봤다.

고향 대신 임진각…북한이탈민과 함께

불교계 복지관 중 가장 먼저 추석맞이 행사를 여는 곳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민 · 02-2668-8600)이다. 명절을 맞아도 고향에 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8월 30일 파주 임진각에서 남한 주민과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가위-그리운 내고향' 이라는 명절맞이 행사에서 90명의 참가자들은 소원풍선 날리기와 합동차례를 통해 동포애를 나눴고, DMZ 견학과 통일4행시 짓기 대회 등을 통해 통일 의식을 높였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동질성을 회복하고 사회통합 기회를 높이고자 마련된 행사가 한가위를 맞아 의미를 더했다.

명절 음식 만들어 나눠 먹기

송파복지센터(센터장 손지영 · 02-409-1616)는 9월 4일 '제5회 한가위한마당 나눔잔치' 를 개최한다. 행사를 위해 3주전부터 마련된 사랑의 쌀독에는 이미 쌀 150kg이 가득찼다.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넣은 쌀로 잔치당일 인절미를 즉석에서 만든다. 150여명의 주민들이 떡메를 치고 송편도 만들어 홀몸어르신들에게 배달할 예정이다. 각자 음식을 한가지씩 준비해 모여서 같이 나눠 먹는 '포틀럭 파티' 도 열린다. 이 행사는 정월대보름, 명절때마다 송파복지센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기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어르신간 사회적 친밀도를 높이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 · 051-265-9471)에서는 9월 5일, 다대2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50세대에 추석맞이 음식을 나눌 예정이다. 임대아파트 특성상 자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외로이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송편, 햇반, 라면, 오색나물, 과일, 음료 등 다양한 음식을 가득 담아 나눔행사를 진행한다.

흥겨운 문화 · 전통 놀이마당 다채

다문화 지역주민이 한국의 명절문화를 어르신들과 함께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 02-466-6242)은 9월 1일, 어르신 42명 및 다문화지역주민 10명이 함께 참여하는 '한가위 송편만들기' 를 실시했다. 자양4동제4경로당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던 이날 행사에서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광진초롱꽃학교 봉사단의 난타공연과 복지관 한국무용반 어르신들의 공연도 함께 준비돼 흥겨운 놀이마당이 연출됐다.

이어 9월 3일에는 복지관 대강당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 103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한마당' 명절행사가 열린다. 친목형성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무의탁 홀몸 어르신들과 공연관람 및 민속놀이를 진행한다. 국내 최초 마술뮤지컬 작품으로 유명한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장' 이라는 마술공연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복 · 02-507-6319)의 추석맞이 행사는 일단 규모가 크다. 9월 3일 과천시민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한가위 율진한마당' 에는 지역주민, 봉사단체, 삼성SDS · 코오롱 · KT 등의 기업체 봉사자 150여명이 참여해 송편을 빚는다. 만들어진 송편은 지역 저소득층 120세대에게 전달된다. 이외에도 대형 윷놀이, 투호, 널뛰기 등 다양한 체험놀이와 축하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남 · 북주민 함께 추석맞고
십시일반 쌀모아 떡메치기
조상 기리는 합동차례도



한가위 하면 빠질 수 없는 송편이 추석을 맞아 지역 소외이웃에게도 배달된다. 복지관마다 지역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송편나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송파복지센터

육법공양 합동차례 · 사찰음식 체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 · 02-989-4214)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지원 사찰인 화계사 후원으로 9월 4일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전을 마련한다. 일상생활 속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불교음식문화체험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사찰음식체험전은 11시부터 2시간동안 복지관 3층 식당에서 장애인과 가족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복지관 마당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자회 및 먹거리 장터, 놀이마당이 열린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120명에게 각 백미 20kg, 총 2400kg를 지원하기도 한다.

조상의 덕을 기리는 소박한 차례행사도 진행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 02-739-9501)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한 개별차례 및 공동차례를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지낼 예정이다. 130여명의 어르신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차례는 불교 육법공양의 예에 맞추어 이뤄진다. 불교에서 대표적인 공양물 여섯 가지를 이르는 육법공양에는 해탈을 상징하는 향, 지혜와 광명을 상징하는 등, 수행과 장엄을 뜻하는 꽃,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일, 갈증을 풀어주는 감로(甘露)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기를 상징하는 차,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쌀을 포함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평균나이 70 댄스팀' 에 노인정 들썩

상주시니어클럽 실버 공연단 인기

직지사복지재단이 지원 · 운영하는 상주시니어클럽(관장 덕영) 실버댄스 공연단이 지난 8월 22일 서곡노인정을 방문해 댄스 공연을 펼쳤다.

실버댄스 공연단은 지난 1월, 65세 이상 어르신 6명을 단원으로 결성됐다. 매월 4회 이상 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총 30여 차례 공연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 동안 갈고 닦은 댄스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게 후문이다. 관중들도 함께 어울리고 서로 노래 실력도 뽐내는 시간도 가졌다.

공연단원 유분순(78)씨는 "평소에 배운 댄스로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며 함께 어울리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에 삶에 활력이 생긴다"며 "실력은 미흡하지만 그로 인해 웃고 즐기며 삶을 나눈다는데 의미가 크다" 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 문의 (054)535-0142 배현진 기자



상주시니어클럽 실버댄스 공연단이 노인정을 방문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튼튼한 치아 관리법은?

중림복지관, 건치 관리 특강… 건강 지킴이 교육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에서는 8월 20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틀니 및 치아 관리에 관한 '건강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일 협력병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궁플란트치과 최우환 원장의 강의로 이뤄졌다.

강의는 스케일링의 필요성, 건강한 치아관리를 하는 방법, 틀니 관리 등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우환 원장은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있다"며 "이번 강좌에 참여한 분 모두가 치아 관리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지난 협약식을 통해 궁플란트치과에서는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틀니 무료 시술 및 치과진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배현진 기자



8월 20일 중림복지관에서 치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다문화어린이, 빈소년 합창단과 협연

레인보우 합창단 오스트리아 해외공연 예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왼쪽 사진)이 오스트리아로 해외공연을 떠난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 스님)는 합창단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빈과 잘츠부르크 등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8월 21일 밝혔다.

합창단에서는 이번 해외 공연을 위해 내부 오디션을 통해 18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클래식 본고장에서 빈소년합창단과 협연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한인문화회관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현정 레인보우합창단 단장은 "합창단 아이들이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기행을 통해 음악공부는 물론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삼성그룹과 문화체육관광부, 사랑의 열매, 대웅제약과 이 회사 광고모델인 추성훈의 후원으로 기획됐다.

레인보우합창단은 2009년 창단되었으며 현재 10개국 이상의 다문화 어린이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창단 이후 G20 정상회담 초청공연, 여수세계엑스포 개막식,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세종문화대상 시상식 등 국내 주요 무대에 올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배현진 기자

조준연씨 장애올림픽서 육상 금메달

홍천장애인복지관 소속…달리기 유망주

강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 소속 조준연(26)씨가 최근 막을 내린 제11회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육상 1,5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조 씨는 400m 육상부문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평소 기초 체력훈련과 지구력 훈련을 통해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왔던 조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의 체육축제인 본 대회는 매년 전국대회로 실시된다. 세계대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장애를 극복하고 참가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1등부터 3등까지는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고 4등부터는 리본을 수여한다. 올해 하계대회에는 657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기자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육상부문에서 우승한 조준연(가운데)씨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고 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小食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자… 암예방 지름길

주제 : 수행과 건강

김동일(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

살다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할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병고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머릿속은 번민과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놓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갖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늘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부처님 법대로 착하게 살면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은 … 동국대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부인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부인과장, 일산한방병원 진료부장,한의과대학 부학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일산한방병원 병원장,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부회장, 대한한방난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현곡학술상, 동국대학교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동국대 학술상,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한의부인과학〉〈한방여성의학〉〈수행과 건강〉〈마흔, 여자는 아프다〉 시집 〈봄날 만년필을 열고(시집)〉 등이 있다.

낙천적 태음인 성인병 예방 필수

경제가 성장할수록 급성질환이 많이 줄고 만성질환이 급증하죠. 수명은 길어져 보살님들은 88세, 거사님들은 83~84세를 기본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병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괌과 사이판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귀속이 되죠.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관광수입 복지수입 등이 생기고 세금을 안 내도 되니 물고기를 잡아서 살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뒹굴거리며 살아도 되니, 살이 찌게 되고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성인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걷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심장병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40대부터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음주 체중증가가 빨리 오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폐경 이후부터 심장병이 생깁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급체한 것 같이 맷돌에 꽉 막힌 느낌을 받게 될 때 심장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30분 이내로 가면 살아나고 못 가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상체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먹는 거 좋아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은 태음인들입니다. 잘 드시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살이 잘 쪄요. 허리가 굵습니다. 성인병에 잘 걸리니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보시 좀 하셔야 됩니다. 태음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써야 합니다. 회식할 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운동화 끈 묶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잘 내놔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각자 나이에 맞는 미션이 있는데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기여할 바를 알았다는 거죠. 50세에 여전히 남의 돈 주머니에 넣고 싶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싶고 그러면 사회 망조가 드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태음인은 경제적 주최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부가 필요합니다.

소음인은 책임감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인정받는 스타일로 사장이라면 비서로 채용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나보다 타인을 빛나게 해주니 학교 교사나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허리가 가늘고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커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점퍼보다는 양복이 어울립니다. 소음인들은 소심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심해서 걱정 되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들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불안해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고 속을 따뜻하게 하면 행복하고 튼튼해집니다.

소양인은 사교성이 좋습니다. 故최진실씨가 소양인이에요. 이분이 제 환자였는데 그분 오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인사를 했어요. 소양인은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고, 아이디어가 넘쳐서 재치 있고 남에 대한 배려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동창회 총무하시는 분들 소양인들이 많아요. 소양인들은 어깨가 크고 상체가 발달해서 허리나 관절 병이 많이 생겨요. 소양인들이 걷기를 싫어하는데 많이 걸으셔야 다리가 튼튼해져요. 소양인들은 펼쳐 놓는 건 많은데 결실이 없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2의 심장 '발' 관리 중요

나이 들면서 발바닥이 퍼지고 얇아집니다. 발이 제 2의 심장이라 합니다. 발의 혈액 순환과 심장의 혈액 순환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발 간수 잘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발을 사셔야 합니다. 좋은 브랜드를 신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이 좋은 신발 신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많이 걸으셔야 합니다. 빨리 걷게 되면 다리에 대한 통제 의식이 생기고 보폭을 크게 하면 관절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각성이 시작되어 사유활동이 풍부해지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나이 들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쳐지면서 뱃살이 찌게 됩니다. 내 몸에 뱃살이 살도 덜 찌게 된다. 걸을 때 빨리 보폭 크게 하고 발뒤꿈치–중간– 발끝 순으로 땅에 닿으며 의도적으로 보폭을 크게 하고 가슴을 펴고 걸으면 팔은 저절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활량이 커지게 되겠죠.

경제 성장 비례해 성인병 증가
많이 걷고 소식해야 질병 예방
소음인, 책임감 강해 비서 채용강권
소양인, 사교성 좋지만 관절병 많아

1kg이 늘어나면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80km생깁니다. 이 길이는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입니다. 엄청 길죠. 여기에 심장이 피를 공급하려고 하면 그만큼 심장이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딱딱해지고 협심증 초기가 되는 거죠. 혈관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가 생깁니다. 소나기 내리고 나면 도로 파이는 것처럼 혈관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비대 등은 비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0cm 이상이면 비만이니 이 정도 되면 많이 걷고 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요? 오래 씹어야 되겠죠. 천천히 씹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깁니다. 천천히 걷거나 명상하면 생기는 세로토닌 효과는 하루를 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좋으면 내일도 좋겠죠. 걷고 천천히 씹는 것은 행복감을 주고 갈망하는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식탐을 없애고 덜 먹게 되니 이상 하게 되면 골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칼슘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심장병이 생기니, 걸으면서 식이 섭취 잘하시면 골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도 지인이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보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굽었던 어깨가 펴져서 175cm였던 키가 176cm가 되어 1cm 커져 버렸어요. 숨어 있는 1cm를 발견한 거죠. 빨리 걷게 되면 가슴을 펴게 되고 폐활량이 커지게 되고 나쁜 공기를 내보내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게 되겠죠. 등이 굽으면 위가 눌려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이렇게 허리를 펴면서 걸으면 역류성 식도염도 예방하고 오십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에는 기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지나가는 경락은 소화기관을 담당하고, 생식기 등 호르몬을 담당해 관리를 잘하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치기 100번하면 발을 자극하게 됩니다. 발치기는 무작정 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쪽 발의 발뒤꿈치를 반대쪽 말랑말랑한 부분을 치는 거에요. 하루에 100번 쳐요. 한달 지나면 발뒤꿈치끼리 치고, 또 한 달 지나면 발뒤꿈치에서 앞꿈치까지 발을 자극합니다. 또 점퍼 10번 이상씩을 꾸준히 6개월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물과 불의 기운들을 조화롭게 하는데 호흡이 중요합니다.

비만 연구에서 쥐한테 적정량의 사료를 6개월 정도 주면 죽고, 두 배로 주면 3개월만에 죽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 겁니까. 짧고 굵게 살다 가실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둘 다 바라지는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적게 드셔야 합니다. 연비가 줄어드는데 계속 기름을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줄여야 하고 치아상태를 보면서 약간의 육류와 함께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조금만 만들어서 신선하게 감사하게 오래 씹으면서 먹으면 됩니다.

조선왕조 왕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엄마가 건강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 체질 닮고 딸은 아버지 체질을 닮습니다. 영조 임금의 엄마는 일하는 무수리였으니 타고난 체질 자체가 튼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임금은 7첩 밥상으로 5끼를 먹었고 영조는 3첩 밥상으로 세끼를 먹었으니 날씬했겠죠. 조선왕조의 임금들의 공통된 병이 당뇨입니다. 당뇨를 피해가려면 피눈물 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전적 암 발병시기 늦출 수 있어

다음은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등산하다가 숨이 차면 먼저 공기를 마시지 마세요. 숨이 차다고 공기를 마셔버리면 피를 탁하게 만드니 먼저 천천히 호흡을 내보내 보십시오. 저절로 공기가 필요한 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호흡의 중요성을

암은 젊었을 때 발병할수록 세포 증식이 빨라 빨리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20대에 발병을 하면 대부분이 1년 안에 죽습니다. 80대 노인이 걸리면 천천히 진행되니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20대 때 유전병이 노출되면 오래 못살고 50대 이후에는 늦게 발병할수록 오래 살게 되죠. 영조 임금은 당뇨에 상관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밀과 쌀을 줄이고 감자를 드시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 두부, 비지 등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체중감소와 빈혈이 오면 일단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도 아니고 충격적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발병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인 즉 '예정설' 이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과오설' 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의 과오를 줄여 유전적인 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암의 발병 시기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초기 암은 반드시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부가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죠. 말기 암인 경우에는 과도하게 생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려놓는 자세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암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소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착하게 부처님 법대로 살면 됩니다. 또 혹여나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다면 최대한 늦게 걸리도록 노력하면서 예방하면 됩니다. 말기암이 걸렸다면 식이요법 민간요법 등을 하면 겸손하게 살면서 생을 마무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연꽃이 예쁘게 피었죠. 처음에는 떡잎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발심한 것이 이렇게 활짝 개화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잘 새기고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하면 바로 실천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손뼉 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이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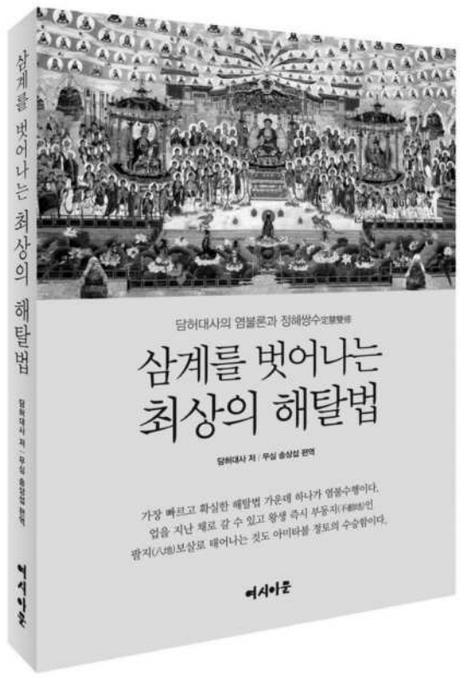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염불처럼 강한 해탈(三界超脫)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開悟成就)문이 없다.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닦는 이마다 하나같이 죽음도 능히 정복할 만큼 편안히 미소 지으며 정토왕생을 쉽게 성취한다.
선정은 심통(큰 깨달음)을 얻는 제일 똑똑한 수행법이고 닦으면 번뇌가 싱거울 만큼 전심(全心)이 성취되는 부사의(不思議)한 큰 도력을 얻는다.

염불을 정진하고 누가 극락왕생을 못하며 선정이 숙달되고 누가 개오(開悟)를 못 이루는가?
염불에 득력하면 생사를 가지고 놀고 선정에 득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논다. – 본문 중에서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염불수행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신간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

자본주의 폐해 극복, 불교 공동체에 해답


최갑수 교수


김광수 교수


박병기 교수


유승무 교수


민경국 교수


이도흠 교수


유정길 대표

〈불교평론〉 창간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전문: 현대 물질주의 문명의 폐해와 양극화 심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현대인들은 상업주의 속에 소비문화의 조류에 끝없이 감각과 향락을 ◎는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불교의 시작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평론〉은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눈으로 자본주의를 말하다' 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의 학술세미나는 총 7명의 학자들이 나섰다. 먼저 기조발제로 최갑수 서울대 교수의 '왜 자본주의를 말해야 하는가' 를 시작으로 자본주의와 불교의 접합점과 경제체제 비판과 함께 불교공동체 운동, 또 이상주의로서의 불교에 대한 비판도 함께 대두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9일 자본주의 · 불교사상 관계 모색
김광수 "불교정신으로 소비허상 극복"
민경국 "사회 근원, 인간 이기심 인정"
유승무 "불교사상 사회 접합 전무해"
박병기 "자비윤리, 자본주의에 제공"
유정길 "다양한 공동체 시도 바람직"

집착 버리는 두타행, 출재가 모두 펼쳐야

김광수 한양여대 교수는 "불교는 경제활동을 인정해 자본주의 이념을 일정부분 수용하지만 이기적인 탐욕과 이윤의 무한 추구는 적극 경계한다"며 "불교사상의 적극적인 검약과 절제에 의해 소비의 허상이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재화는 해탈을 위한 수도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근면을 통한 검소한 소비활동을 장려한다. 특히 이자를 비윤리적으로 간주했던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이자수입을 인정하고 금융업을 권장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물질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 행위는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라며 "불교의 가치관으로 물질에 대한 의존으로 독립적이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두타행을 통해 출재가가 모두 물질에 종속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개인적인 수행과 공동체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대중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보호, 농업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쟁 없는 사회,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경쟁 없는 사회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인 안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으며 이를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생산적인 방향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능한가' 발제를 통해 "불교경제학은 인간의 순수성에 주목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가치일 뿐"이라며 "이 가치가 주목되는 것은 소규모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우리사회는 자생적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는 행동규칙들을 형성해왔다"며 "오늘날에는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이 발달했고, 우리 사회를 이루었다. 이런 사회구성의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인간 본성의 이기심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강제적인 장치는 인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이상주의의 도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 개입 등을 특정그룹에 대한 법적 편애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유주의를 해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21세기 시대정신 세우는 실천 윤리 필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 사례 외에는 불교가 자본주의와 만난 경우는 전무하다"며 "오늘날 한국불교는 자본주의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만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불교자본주의든 불교사회주의든 다양한 실험을 과감히 시도하고 또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근 '하트 스토밍(Heart Storming)' 을 기업 생산성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팔정도의 정념을 조직 및 기업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며 "원시적 형태의 소비공동체 원형을 가지고 있는 승가 원리가 자본주의 비판에서 분배정의 및 소비윤리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끝으로 유 교수는 "21세기 한국불교는 육바라밀과 같은 실천 적인 행위윤리를 제시해야 살아남을 수 잇을 것"이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21세기 시대정신을 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도 "돈을 애써 외면할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의 돈에 집착하지도 않는 무애의 지혜와 그것에 근거한 자비의 윤리가 불교가 자본주의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약"임을 밝혔다.

불교공동체 운동에 자본주의 대안 있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6가지의 불교공동체 예시를 통해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제안했다.

유 이사장이 먼저 예시로 든 공동체는 '공동소유 공동체' 다. 유 이사장은 "공동소유 또는 무소유 공동체는 초기불교의 승가공동체와 이를 현대사회에 구현하려고 한 정토회가 있다"며 "정토회의 경우 현재 서초동에 50명, 문경에 70명이 함께 초기 공동체의 삶을 기조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 공동체에서는 각종 수련이 진행되며 사회운동으로 환경기구인 '에코붓다' 를 두고 쓰레기 제로운동, 빈그릇 운동 등의 캠페인과, 평화인권기구인 좋은 벗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두 번째 공동체로 '공동주거 공동체' 를 예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공동주거는 생각이 맞는 이들끼리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영동 백화마을은 40가구가 모여 자체교육 등을 하는 공동체며, 안성 '들꽃피는마을' 도 2년 동안 40회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저녁식사 등을 함께하는 소통에 있다"며 "이를 통해 대소사를 함께하며 자체 규약인 청규도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예시는 마을공동체다. 유 이사장은 실상사의 한생명공동체 등 마을공동체가 농촌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분권과 주민자치의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사찰의 불사를 한다면 시내에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사업을 우선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생산물부터 폐기물까지 지역에서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네 번째 공동체로 '협동조합' 을 들며 사업적인 성격과 동시에 공공결사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섯 번째 공동체인 '네트워크 공동체' 는 상호부조하며 협력하는 신도들 간의 공동체로 사찰과 신도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끝으로 유 이사장은 '사찰과법당의 신도공동체' 를 통해 사회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종교공동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유 이사장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빈 공간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붕괴되어 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종교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불교평론〉은 이날 열린 세미나의 논문을 특집으로 펴낸 창간15주년 기념 59호를 펴냈다. 59호에는 특집 논문과 함께 △융 심리학과 불교사상(이죽내) △종파로 보는 티베트불교(이종복) △사랑, 지혜를 만나다(정경일) △독일 내 한국불교와 신도 현황(만프레드 후터) △나의 선시 독법(신승철)이 수록됐다.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에 돌아와야"

월정사,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 역사적 가치' 세미나

불교계 주도로 수년간의 협상 끝에 일본으로부터 환수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이 유물들의 원래 보관처인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동국사학회(회장 이도학)는 8월 28일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도학 동국사학회 회장은 "오대산사고와 사고본은 왜란에 의해서 모든 실록이 소실되고 전주사고본 만이 남은 상태에서 조성됐다"며 "왜란 당시 공이 컸던 사명 대사의 인연처인 오대산은 역사유물의 안전한 보관처이기도 했지만, 민족성소로서의 의미가 커 보관처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자현 스님도 '오대산 사고의 입지 배경과 사명당' 발표를 통해 "사명 대사는 월정사를 중창하고 스스로를 오대산인이라 칭했다"며 "오대산사고가 건립된 이후 주변은 금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숭유억불의 파고를 넘어 월정사도 안정적인 발전을 보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대산 사고의 옛 모습

이어 강문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의 '오대산 사고의 수직승도 운영' 등 총 6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월정사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를 토대로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동계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이고 국민적인 화합의 대축제에 있어서, 실록과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평창을 넘어서 강원도민 전체의 바람"이라며 "젊은이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록문화유산 정보화 전시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근대 불교문화재, 대거 등록문화재 예고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등 21건

최근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에 불교문화재가 대거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8월 28일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불교 유물 21건을 문화재 등록(등록문화재) 예고했다.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통영 용화사 괘불도' △'진주 의곡사 괘불도 ' △용성 스님 역 〈조선글화엄경〉 등이다. 이중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은 1896년 제작된 것으로 불화의 초본을 바위에 옮긴 것 같은 조각으로서 희소성의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1936년 제작)과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미륵여래입상(1935년 제작)' 은 한국 근대 조각의 대표 작가인 김복진의 작품으로 근대 신재료인 석고를 이용한 제작기법이 근대성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통영 용화사 괘불도(1914년 제작)' 는 크기가 10m에 달하는 대형의 그림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 기법을 담고 있으며 '진주 의곡사 괘불도(1938년 제작)' 는 근대기 동양화가 정종여에 의해 제작된 유일한 괘불도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 두 괘불도는 밝은 색감과 환상적인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다.


용성 스님 역, 〈조선글화엄경〉

'용성 스님 역 〈조선글화엄경〉' 과 '용성 스님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은 3 · 1운동 당시 용성 스님이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경전으로 한글자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求禮 鰲山 四聖庵 一圓)' 과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괴산 화양구곡(槐山 華陽九曲)' 두 곳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秋夕 자비나눔, "소외이웃 마음 덥힌다"

강원·충청·전라도 사찰… 쌀, 생필품 등 전달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찰들의 따뜻한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9월 1일 신흥사복지재단과 함께 '자비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자비나누기 = 행복더하기' 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흥사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410가구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비롯해 쌀과 과일 등 총 5000여 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신흥사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송년대법회 등 명절과 봉축일에 지금까지 18회에 걸친 자비나누기 행사를 펼쳐 총 9억 2700여 만원 상당의 성품을 불우이웃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달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명절의 기쁨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하화중생(下化衆生 · 아래로 중생을 거둠)'도 실현하길 바란다"며 자비나눔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 대덕구 죽림정사(주지 광진)에서도 8월 27일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회덕동 주민센터에 백미 20kg 100포(시가 4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죽림정사에서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초복에는 인근 지역 경로당 50여곳을 찾아 쌀 20kg와 수박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종교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장민순 회덕동장은 "이번 사랑 나눔으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도 추석을 맞아 9월 4일 고창 여성회관에서 추석 음식을 직접 만들어 햅쌀과 함께 조손가정 등 200가구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등 4대종단 지도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열렸던 속초 신흥사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 모습

저소득층 · 외국인근로자 위한 명절 나눔 릴레이도 이어져

자들은 고창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추석행사도 열렸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8월 31일 광주 하남공단 3번로 하남체육공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400여 명을 초청해 추석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5개국 10팀이 참여하는 배구대회를 시작으로 몽골,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각 나라별 음식축제가 열렸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경기에서는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협동제기차기, 고무신 홀인원 등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가 진행됐으며, 각 나라별 노래자랑도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네팔 근로자들 150여명이 참여한 댄스대회로 대미를 장식했다.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추석한마당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음식축제로 시작된 후 각 나라별 음식 · 문화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더해져 광주지역 대표적 외국인 문화행사로 발돋음했다.

추석맞이 한마당은 그동안 한국에서 제대로 쉴 기회가 없었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여유를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행사를 주최한 이주성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긴장감을 덜고 새로운 일에 대해 활력소를 심어갔으면 한다"며 "한국 대표 명절인 한가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생활에서 소외받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각 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 소수민족이 가진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종립 정광중 · 고등학교, 청년회, 광주불교NGO연대 등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바다로 띄운 음악편지… 실종자 10명 빨리 돌아오길 발원

풍경소리, 진도 팽목항서 음악회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위로의 하루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진도 팽목항에서 개최됐다.

광주지역 불교 · 천주교 등의 종교인 모임 무등산 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 증심사 주지)가 지난 8월 23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다림과 위로의 하루' 라는 주제로 진도 팽목항에서 123번째 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함께 제작한 '기억하라 4.16' 솟대를 방파제 등대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한 행사는 '희생자를 위한 편지쓰기' 와 전국 사진가들의 세월호 촛불사진전인 '기다림의 그림일기' 사진전도 개최됐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기도회' 를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의 4대 종교의식에 맞춰 진행,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혹 없는 원인 규명을 발원했다.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됨의 저녁식사' 를 마친 참가자들은 팽목항에서 진도VTS까지 침묵의 촛불행진을 벌였다.

음악회는 오후 9시 바다로 띄우는 음악편지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피아노 이상록, 클라리넷 구희균, 대금 신경환, 춤추는 평화 홍순관, 민중가수 류의남. 기타 박성언, 퍼커션 이승운, 한빛고등학교 합창 등이 이어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위안과 평안의 음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하늘로 올리는 바람' 이란 주제로 빨리 돌아오라는 기원을 적은 416개의 풍등을 하늘로 날리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풍경소리 지기로 활동중인 최명진 목사는 "진도 팽목항에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전국에서 기다림 버스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 작은 위로나마 남은 가족들이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세월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틀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밝혔다.


광주지역 종교인 모임 무등산 풍경소리가 8월 23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다림과 위로의 하루' 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광주전남 종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돼 매월 무등산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시민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교육원, 마음 들여다 보기 강좌

마음의 불교로 일컬어지는 유식강좌가 개최됐다.

광주불교교육원은 지난 8월 19일, 26일 2일간에 걸쳐 유일상(순천 무탈명상학교 대표),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 · 사진)을 초청해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 주제는 '유식사상에서 바라본 행복론' , '마음의 구조와 우리의 삶' 이었다.

진우 스님은 8월 26일 법문을 통해 "유식학은 인간의 마음이 주체가 되어 삶의 현상을 만들어가는 대승불교사상으로 인간의 심성을 가장 세분화해 설명해 주는 학문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다 마음과 관련있지만, 마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작용과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유식불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불교교육원 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은 9월 5일 개강 예정이다. 9월 21일(백제계 석탑 답사), 10월 19일(불보 사찰 답사), 11월 16일(화엄과 선종 사찰) '백제계 석탑을 찾아서' 주제로 불교문화 유적 답사도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선암 ·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찰기행 마련

자연을 잃어버린 도심 속에서 게임과 스마트폰에 파묻혀 생활하는 아동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문화여행을 떠났다.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과 전북불교네트워크(대표 오종근)는 8월 23일~24일 '전북의 맛과 멋을 찾아가는 여행' 을 개최했다.

지역 초등학생들과 지도교사 40여명은 익산 왕궁면 왕궁리유적전시관과 금마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찾아 지역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완주 화암사(주지 방착)에서 국내 유일의 백제 하앙식 목조건물인 극락전의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배웠다.

또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예불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발우공양을 하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실천서약에 동참하기도 했다.


완주 송광사서 참가자들이 발우공양 하는 모습

덕산 스님은 "도심 속 아이들이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환경 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여행을 준비했다"며 "사찰음식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각교육은 물론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유선우(오송초 4)군은 "미륵사지에 와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선생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정각사, '즉문즉설' 월호 스님 초청

익산 정각사(주지 일님)가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33분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청해듣는 '33 선지식 초청법회' 를 8월 25일 봉행했다. 〈오른쪽 사진〉

지난 2월 처음 시작된 선지식 초청법회는 8월 법사로 행불선원 월호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각사 일행 스님은 "어렵게 선지식들을 모신 귀한 자리니 만큼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며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에게 당부했다.

불교 TV '즉문즉설' 로 유명한 월호 스님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을 설하며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간단한 교리 문제를 내고 게송을 함께 낭송하게 하는 등 흥미진진한 시간을 만들어 불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으며 부족한 사찰 재정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심이 약한 지역 불자들을 위해 매월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 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 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소외 이웃과 눈높이 맞추며 자비행

미소원 2008년부터 상담 · 반찬봉사로 소외 이웃 돌봐

심리상담과 소외된 이웃 돌보기로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봉사회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 장유정)이 오는 9월부터 매월 두 번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소원 소속 상담전문 봉사자 10명은 소외된 어르신을 한 분씩 선정하여 지역 내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대1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후원자 포함 6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소원의 봉사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로 소외된 이웃의 삶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되찾아 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미소원은 "시대에 맞는 봉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상담은 유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활성화 돼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봉사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소원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교도소 및 구치소 · 소년원에서 매월 두 차례 진행되는 상담봉사와 법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폐쇄된 환경과 죄책감에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기 전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재소자들과 살인 · 폭력 등 씻기 어려운 죄를 지은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싸는 것이 바로 미소원 상담봉사자들의 역할이다.

또한 특수한 환경상 법회는 참회로 시작하되 레크레이션 등 웃음이 가득한 법석으로 재소자의 무거웠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있는 소년원에서의 상담은 주부인 미소 상담봉사자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봉사활동이다. 가족처럼 판단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픔과 환경을 공감

2008년 기도로 서원 세우고
교도소 상담 · 어르신 공양 대접
9월부터는 어르신 심리상담도

해주는 것이 바로 미소원 봉사자들의 노하우이다.

미소원은 상담봉사를 넘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봉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월요일에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죽 20인분 이상을 준비하고 목요일에는 각종 반찬을 어르신들께 전달한다. 봉사 분야가 많다 보니 후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미소원은 자원봉사를 등록한 봉사자 600여 명이 매월 내는 만원의 회비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즉 미소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봉사는 미소원 회원 모두가 십시일반 마음을 내어 소외된 이웃에게 회향하는 형태이다.


어르신 반찬만들기 봉사에 동참하고 있는 미소원 봉사자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한편 미소원은 현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이 문화와 나눔을 목적으로 부산 자비원 봉사회를 만든 것으로 시작됐다. 자비원 후원회장이었던 장유정 이사장은 자비원 회원들과 체계적인 봉사를 위해 공간을 마련을 위해 2008년부터 매일 1080회 광명진언 기도로 서원을 발원했다. 기도 덕분인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생겼고 동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을 사단법인 봉사 단체로 본격적인 자비행보를 시작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배고프면 부엌에서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다. 처음에는 손님이지만 봉사자들은 곧 미소원의 주인이 된다. 또한 봉사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장유정 이사장은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에 관해 "수형자를 수행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하되 남은 여생을 타인을 위한 삶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미소원 식구들의 몫"이라며 미소원 상담봉사의 중요성을 전했다.

한편 미소원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자통장을 개설하는 등 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믿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051)646-9074

김나영 객원기자

팔관재계수계법회로 정통성 살린다

2014 팔관회, 10월 17~19일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이하 부불련)가 '2014 팔관회'를 10월 17일~19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8월 21일 이사회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금정총림 범어사 등 율원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팔관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부불련은 팔관회를 첫째 날과 둘째 날인 17 · 18일은 용두산 공원에서, 셋째 날인 19일은 범어사에서 봉행하며 학술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비롯, 역사적인 자료를 입증하는 행사부터 위령제, 팔관재계수계법회 등 전통행사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부불련은 사명대사 열반 404주기 추모대재를 팔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봉행해 국가수호를 위해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며 신라와 고려의 대대적인 국가행사였던 팔관회에 의미를 더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부불련은 이번 2014 팔관회를 통해 팔관회 고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학생들에게 불교문화 널리 알릴 터"

금정총림 범어사 부산대와 MOU 협약 체결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부산대(총장 김기섭)와 불교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25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수불 스님, 김기섭 부산대 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협약식에는 주지 수불 스님과 김기섭 총장의 협약서 서명날인으로 양측 간의 교류와 우애를 다짐했다.

수불 스님은 "부산의 대표적인 대학교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불교를 모르는 일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기섭 총장은 "저희 부산대는 범어사와 함께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 또한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역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범어사와 부산대는 오는 9월 부산대 평생교육원 불교문화 이해과정 개설을 첫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범어사와 부산대학교가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문화를 알려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대구 능화사 10년 연속 강연 'Start'

9월 21일 두 번째 강사로 덕문 스님 초청

대구 동구 능화사(주지 혜강)가 '108명의 명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연속 강연을 시작했다.

능화사는 8월 17일 전헌호 신부(대구 가톨릭대 교수)를 초청 첫강연을 열었다. '몸에 관한 우주적 고찰'이란 주제로 50여 명의 불자들이 강연을 경청했다.

전헌호 신부는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전했다.

능화사의 '108명의 명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두 번째 강사로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이 나선다. 9월21일 오후2시 강연.

능화사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2시 종교, 문화, 법률,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매월 1명씩 10년간 강연을 진행한다. 향후 능화사는 이 강연을 엮어 책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다.


능화사 강연 첫 강사로 나선 전헌호 신부

손문철 대구지사장

추석 맞아 이웃에게 사랑과 정 나눠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400세대 초대 어울림한마당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위탁 운영하는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추석을 맞아 사랑과 정을 나누는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을 9월 4일에 개최한다.

부산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세대 등 총 400세대를 초대해 쌀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국악 및 풍물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소외된 이웃의 한가위를 챙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한가위는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 하는 큰 명절이지만 지역 내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한가위 어울림 마당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를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우리 마음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쿠무다 북까페 혜민 스님 초청 북콘서트


혜민 스님이 송정 북카페 쿠무다 법당에서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현시대의 힐링멘토인 혜민 스님이 8월 23일 부산의 대표 북카페 '쿠무다'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부산 송정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 대운사(주지 주석) 부산불교학당 부설 북카페 '쿠무다'는 네 번째 문화콘서트의 강연자로 혜민 스님을 초청했다.

주석 스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과 송정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혜민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혜민 스님은 참가자 200여 명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 타인에게 화를 내곤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다. 화가 나면 숨을 다섯 번 크게 내쉬면 된다. 그리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혜민 스님은 "만약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아픔이 있었기에 저렇게 상처를 줄까' 라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쿠무다는 지속적인 문화콘서트 개최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법화경의 다보탑, 부처님의 무량광 빛의 묘탑 현지사에 솟아오르다!!

지구촌 보물3호 '현지사 다보탑',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소원성취와 업장소멸을 이루어주는 또하나의 대복전!


초파일 초롱등으로 장엄된 다보탑

■ 2008년 무자년 음력 10월 15일 대적광전 비로자나부처님 점안식 – 다보탑이 솟아오르다

이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현지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전에서만 등장하던 다보탑이 빛의 형상으로 실제로 땅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부처님 점안식 때, 이 사건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적광전 앞 마당에 웅장한 빛의 묘탑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도량 전체에 무릎만큼 쌓였습니다. 〈법화경 견보탑품〉에 나오는 바로 그 다보탑이었습니다. 현지사에서는 다보탑이 솟아나온 그 자리에 실제 다보탑의 형상을 본 따고 크기는 대폭 줄여서 다보탑을 건립했습니다.

■ 무량광 빛의 묘탑 다보탑 – 다보부처님과 무량무수 본화보살님들께서 머무는 성소(聖所)

다보탑은 다보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입니다. 여기에서 다보부처님께서는 항상 대적정삼매에 들어 계시면서 법계에서 중요한 불교사적 사건이 있으면 출현하여서 증명이 되어주십니다. 광명만덕 큰스님께서 불과를 증하실 때도 솟아나와서 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다보탑은 수많은 본화보살(本化菩薩)님들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본화보살님들은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님들로서 한분 한분의 위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천태지의 대사는 부처님을 적불(迹佛-화신)과 본불(本佛-보신)로 구분하고, 이 본불에 의해 교화된 보살님들을 본화보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본화보살은 사바세계 남섬부주에 사람몸을 받아온 적은 없지만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보살님들의 중생교화를 돕습니다. 다보탑은 이 본화보살님들의 주처입니다.

■ 〈법화경 견보탑품〉 중에서의 다보탑

"그 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나타나니 높이가 이만리요 가로세로가 만리씩인데,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렀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었는데 난간이 오천이요 감실이 천만이라. 보배 영락 드리우고 사면에서 전단향 냄새 세계를 가득 메우고 무수한 보배 깃발 세워 꾸미어 높이가 사천왕의 궁전에 닿았거늘, 무수한 하늘 사람들이 온갖 향과 꽃과 음악으로 칠보탑에 공양하고 공경 찬탄하였다.

그 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이 보배탑 속에는 여래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난 세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 세계가 있었으니 보정(寶淨)이라 이름하였으며 저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어 이름을 다보(多寶)라 하시었느니라."

■ 다보여래부처님이 계시는 보정정토

보정정토는 다보여래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입니다. 서방 극락정토와 동방 정유리정토보다 더 높은 정토입니다. 서방극락정토는 상품보살님들, 동방정유리정토는 한 단계 높은 상수보살님들이 머무시는 곳인데 비해 보정정토는 무수한 본화보살님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님들도 많습니다. '불격을 갖춘다'는 것은 이 보살님들이 아직 원만보신을 증득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그 지혜와 위신력이 부처님들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될 최후 단계의 보살님들입니다. 다보여래부처님은 이 본화보살님들을 통솔하는 삼계지존이시고 석가모니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의 법왕이십니다.

■ 석가모니부처님과 다보부처님 두 부처님의 실존과 법의 진실을 증명코자 두 탑을 세우다

현지사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과 다보여래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불법이 만고불변의 우주적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석가탑과 다보탑을 나란히 건립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각각 4각과 8각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4성제와 8정도를 상징합니다. 4성제와 8정도는 연기의 이법을 바탕으로 중생들의 고통스런 삶에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한,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드러내보인 우주의 이법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법이 만고의 우주적 진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보탑은 석가탑과 마찬가지로 불과 이룬 성자에 의해 점안이 되어 보정정토의 실제의 탑과 링크되어 빛으로 하나가 된 불교사상 미증유(未曾有)하고 유일한 탑입니다. 탑돌이를 하면 말법시대 중생들의 소원을 섭수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업장소멸의 가피를 내려주시는 중생들의 대복전입니다.


초파일날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고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9월 2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8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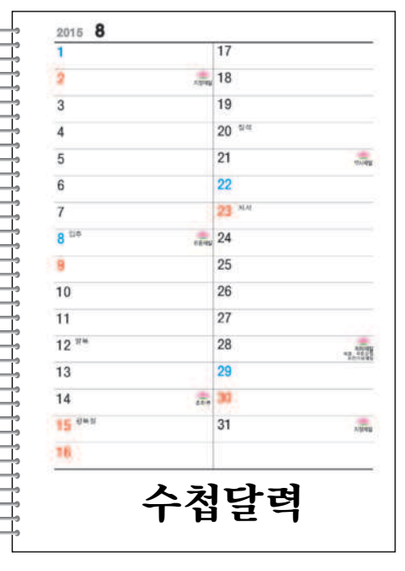







미니달력




수첩달력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 × 26.5㎝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 × 31㎝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 × 13.4㎝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 × 9.5㎝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27일. 10월25일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9월 20일, 10월 15일
양곤/바간/헤호 5일	9월 13일, 10월 8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비엔티엔 / 방비엥 / 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인도&네팔 8대 성지

– 중국 4대불산

지장 + 관음도량 6일	
보현도량 (아미산) 5일	11월 25일
문수도량 6일	9월 16일, 9월 25일
구채구 황룡 6일	

– 대만 정통순례 5일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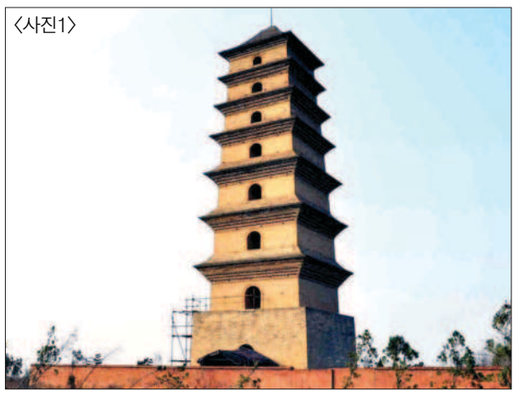
탑의 진화

⑱ 중국의 불탑(5) – 밀첨식 불탑

'8대보탑'은 불사리=법사리 시대상 반영

지난 호에 이어 밀첨식 불탑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국에서 밀첨식 불탑이 유행한 시기는 동한시대(25~250)와 남북조시대(220~589)부터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수당시대 이후의 것이다. 수나라시대(581~618)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서안에 있는 선유사(仙遊寺) 법왕(法王)탑**〈사진1〉**은 1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로 풍광이 수려해 백거이가 이곳에 관리로 있을 때 현종과 양귀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장한가〉를 집필한 장소로도 알려진 곳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불교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사진1〉
혜초 스님이 머물렀던 선유사의 법왕탑.


〈사진2〉
내몽고자치구 적봉시에 있는 대명탑.


〈사진3〉
대명탑에는 8대보탑의 명칭과 협시보살의 명호가 새겨져 있다.

섬서성(陝西省) 주지현(周至縣)에 있는 선유사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저자인 신라의 혜초 스님이 774년 당나라 8대 황제인 대종(代宗)의 간청으로 9일간 머물면서 인근 옥녀담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곳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절이다. 문헌에 의하면, 이 절은 원래 수나라 문제가 개황(開皇)18년(598년)에 건립하고 2년 후인 인수(仁壽) 원년(601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법왕탑을 조성하였다. 최근에 이곳이 수몰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2001년 5월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과 당시 조계사 주지의 소임을 맡고 계시던 지홍 스님 등의 원력으로 새로 이전 복원되었다. 그리고 복원된 선유사에 혜초 스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현판으로 비각을 세워 혜초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곳이다. 현존하는 밀첨식 양식으로 가장 오래된 선유사법왕탑은 4각 7층으로 높이가 35m에 이른다. 같은 밀첨식 양식으로 당나라 시기(618~907)에 조성된 불탑은 개원사수미탑(4각 9층), 보광사탑(4각13층), 불도사탑(4각 13층), 성용사탑(4각 7층)등 대부분이 기단 및 탑신이 4각을 이루지만, 백량수성사탑(6각 13층), 양채전탑(8각 9층), 소혜탑(8각 13층)처럼 6각이나 8각의 양식으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나라 이후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916~1125) 시대에는 8각형 양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탑이 조성되어 규모가 크고 조형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내몽고자치구 적봉시에 있는 대명탑**〈사진2〉**은 요대 말기인 1098년에 조성되었는데, 8각 13층으로 높이가 81m가 넘는 것으로 현재 중국에서는 개원사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탑이다. 이 불탑의 1층 탑신에는 8각의 각 면마다 여래상과 좌우 협시보살 및 역사상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서 참배하는 사람들의 불심을 돈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각 모서리의 기둥을 8개의 보탑으로 장식하였는데, 각 탑에는 8대보탑의 명칭과 협시보살의 명호를 새겨놓았다.**〈사진3〉** 8대보탑에 관해서는 여러 경전에 설해져 있다. 당나라 시대인 790년에 한역된 〈대승본생심지관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사자분신삼매에 들어 신통으로 가슴과 모든 털구멍에서 큰 빛을 발하였는데, 그 빛 중에 8개의 보탑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러한 8탑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던 본보기로 사람과 하늘의 유정(有情)이 귀의할 곳이니, 공양하고 공경하면 성불하여 부처를 이루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294쪽 상단)

이때 나타난 8대 보탑의 장소와 건탑 인연 그리고 탑의 명칭을 표시하면 위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승본생심지관경〉에 나타난 8탑은 팔대성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널리 알려진 팔대성지와는 지목인연(地目因緣)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팔대성지란 신수대장경을 기준으로 '논집부'에 속하는〈불설팔대영탑명호경〉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에서 첫 번째의 장소는 가비라성의 '룸비니'로 부처님의 탄생지이다.

두 번째 장소는 마가다국의 니련하 기슭에 있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로 불도를 깨우친 곳이며, 세 번째는 가시국의 '바라나성'으로 처음 불교의 가르침을 편 곳이다. 네 번째는 사위국의 '기원정사'로 대신통력을 보인 곳이며, 다섯 번째는 '곡녀성'으로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내려온 곳이다. 여섯 번째는 '왕사성'으로 여러 제자들을 받아들여 교화한 곳이며, 일곱 번째는 광엄성의 영탑(靈塔)으로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수명에 대해서 사유한 곳이다. 여덟 번째는 구시성의 '사라숲'으로 열반에 든 장소이다.

이처럼 〈대승본생심지관경〉과 〈불설팔대영탑명호경〉을 비교해 볼 때, 명칭탑, 반야탑, 유마탑의 세 탑에 있어서 지목인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5세기 초에 한역된〈불설팔대영탑명호경〉보다는 약 400년 후인 9세기 초에 한역된〈대승본생심지관경〉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인데, 특히 반야탑의 건탑 인연에서 대승사상을 나열한 것이나, 유마장자를 거론한 것 등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나라 시대에 조성된 대명탑에 조각된 8대보탑은 〈대승본생심지관경〉에 나오는 탑의 명칭을 충실히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불교신앙 내용과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보살에게 〈대승본생심지관경〉을 어느 곳에서나 읽든지 외우든지 풀어서 말하든지 쓰든지 간에 이 경이 머무르는 곳이 곧 불탑이다.(〈대정신수대장경〉 3권, 331쪽 상단)**

라고 하여 경전숭배신앙을 불탑예경신앙과 동일시함으로써 불사리 대신 여러 경전을 탑 속에 안치하는 법사리 숭배 불탑신앙의 경설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경이 있는 곳이 불사리가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는 불사리와 법사리는 동일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된 불사리를 대용할 당연한 교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요녕성 조양시에 있는 속칭 조양북탑**〈사진4〉**은 문헌상의 기록으로는 수나라 때 처음 조성되었으나 요대에 와서 대대적인 보수로 형태가 완전히 변하여 전형적인 요대의 밀첨식 불탑 양식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불탑은 대명탑과는 달리 각 모서리가 아닌 면 중앙에 여래상 및 협시보살상을 조각하고 그 옆에 8대보탑을 조각하고 각 탑의 명칭을 새겨놓았다**〈사진5〉**. 이 조양북탑의 도상적 의미에 대하여는 최근에 예일대의 김연미 교수에 의하여 발표되어 (현대불교신문 1006호(2014.8.8자)참조) 세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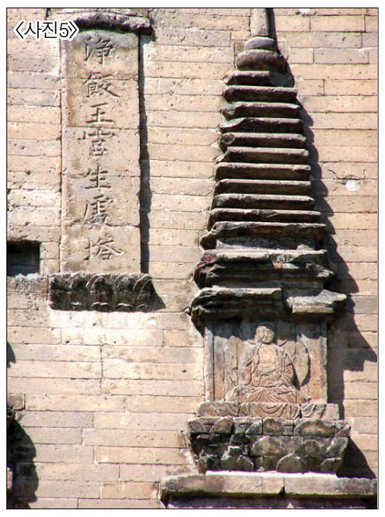
요녕성 요양시에 있는 요양백탑**〈사진6〉**은 서기 1161년 ~1189년 금나라 시절에 건립된 8각 13층탑으로 높이 71미터로 800여년 역사를 가진 밀첨식탑이다. 이 탑의 주재료는 벽돌인 전탑이다. 그러나 겉표면이 전부 흰색의 백회로 칠해져있어 백탑이라고 부른다. 탑의 기단은 8각의 석재로 되어 있으며, 1층 탑신에는 여래상과 협시보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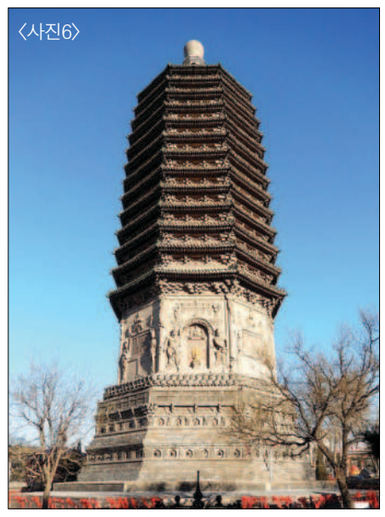
특히 여래상 위에는 우리나라의 선덕대왕 신종에 나타나는 비천상**〈사진7〉**이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각식(亭閣式)탑은 지금까지 살펴 본 누각식이나 밀첨식과 비교하여 규모나 구조면에 다소 간단한 양식의 불탑이다.

이것은 도교사상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전통 정각위에 인도의 불탑이 탑찰형식으로 올라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조성된 불탑을 말한다. 다음 호에는 정각식불탑의 다양한 시대적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진4〉
요녕성 조양시에 있는 속칭 오양북탑.


〈사진5〉
조양북탑 탑신에 부조된 생처탑


〈사진6〉
요녕성 요양시에 있는 요양백탑


〈사진7〉
요양백탑에는 우리나라 선덕대왕 신종의 비천상이 조각되어 있다.

〈표〉「대승본생심지관경」에 설해진 8대 보탑

순서	건탑 장소	건탑 인연	탑명	비고
1	구사라국	정반왕의 왕궁에 태어남	생처탑	탄생지
2	마가타국 가사성	보리수 밑에서 성불함	성불탑	성도지
3	파라나국 녹야원	처음으로 법을 설하고 사람들을 제도함	법륜탑	초전 법륜지
4	사위국 급고독원	모든 외도들과 여섯 달 동안 논의하고 일체의 지혜와 명성을 얻음	명칭탑	외도 논의
5	안달라국 곡녀성	도리천에 올라 마야왕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범천왕, 제석천, 12만 대중들과 함께 33천으로 부터 3도의 보계(寶階)를 나타내고 염부(閻浮)로 내려옴	보계탑	마야왕비교설
6	마갈타국 왕사성	대반야, 법화, 일승, 심지경 등 대승을 설함	반야탑	대승교설
7	비사리국 암라위	유마장자가 불가사의한 병을 나타냄	유마탑	유마장자
8	구시나국 발제	원적(圓寂)에 듬	원적탑	열반지

밀첨식, 동한·남북조시대 유행
현존은 수·당시대 이후 것

혜초 스님 9일 동안 머물렀던
선유사 법왕탑 1400년 最古
당 이전 4각, 이후 8각 대세

황실 지원, 대규모·조형성 우수
적봉시 대명탑엔 8대보탑 장식

8대보탑 기록 〈대승본생심지관경〉
불탑과 동일시, 경전 안치 계기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화엄의 꽃 절집 천정

〈7〉 여수 영취산 흥국사 대웅전

世世生生 마르지 않는 육법공양 헌화



위 화병 꽃꽂이 사진은 향좌측의 빗반자 벽화이고, 아래 모란 꽃꽂이는 향우측의 빗반자 벽화이다.



대웅전 빗반자에 베푼 대표문양. 후불벽 뒤 천정에는 구름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포벽에 장엄한 여래벽화와 시주자 이름, 포벽의 용 얼굴, 그리고 범자 넣은 팔엽연화문



내진주 영역의 팔엽연화문과 닫집

내부 장엄 '지심귀명례'의 숭고함 우러나와
네 모서리 용 문양… 개암사, 숭림사 공포 장엄 연상
꽃꽂이 벽화, 사찰천정으로는 흥국사가 유일
팔엽연화문은 연기법 깃든 우주 실상 조형 방편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본거지

한국불교는 호국위민의 호국불교다. 정권안보를 위한 호국불교가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위민의 불교였다. 조선 성리학 정치체제에서 불교는 제도적으로 억압당했고, 수모에 가까운 천대를 받았다. 승과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찰의 경제기반이던 전답은 강탈 당했으며, 사찰과 스님은 노역과 공납에 시달렸다. 그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정작 정치권력은 백성을 버리고 제 몸의 안위를 보존했다. 그 때 숭유억불의 나라에서 온갖 군역에 시달리며 천대받던 스님들은 오히려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위민의 기치를 내걸며 창과 칼을 들었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5천여명의 승군이 조직 되었다. 그 중 여수 흥국사에는 300~400여명의 승병이 집결하여 이순신장군이 이끄는 전라좌수영의 수군, 곧 의승수군(義僧水軍)이 되었다. 여수 흥국사는 20여개의 소속암자와 함께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본거지이자, 사령부가 된 것이다. 승병들은 목숨을 바쳐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구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권력은 그 스님들에게 포상은 커녕 또 다시 천대했다. 임진왜란이 끝난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인조1년(1623년) 정치권력은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시켰다. 도성출입은 향후 근 300년간 금지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승려의 도성출입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완화되었다.

내부벽화에 시주자 이름 밝혀

여수 영취산 흥국사(興國寺)는 이름 그대로 호국사찰이다. 고려 명종 25년(1195년)에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창건하였다 전하고, 지금의 대웅전은 인조2년(1624년) 계특대사가 복원불사한 것을, 1690년 통일스님이 확대 중창한 건물로 전해진다. 전란이후 인적, 물적토대가 와해된 시대에서 이같은 대웅전 중창은 순전히 불교내부의 힘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남한산성 복구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사회체제는 거의 유일한 토목건축 역량이었던 스님들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흥국사 대웅전 중창 역시 흥국사 소속 300여명의 스님들 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졌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중창불사를 위한 스님들의 발원과 3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다. 대웅전 내부에는 그 간절한 중창불사의 흔적이 희유의 벽화로 남아있다. 대웅전 내부 공포와 공포 사이 41곳에 여래벽화를 그리고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또는 흰 글씨로 '시주상학비구(施主 尙學比丘)' 식으로 시주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시주자는 두 곳을 빼고는 모두 비구스님이다. 여기서 '시주'는 금전뿐만이 아니라 노동력과 예술창작력을 포함한다. 시주자의 이름에서 승인공장(僧人工匠)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벽화기록이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전경. 한두달 후면 해체수리 될 예정이다.

조선중기 승장들 목공예기술의 정수

대웅전 내부장엄은 그 승인공장의 손으로 이루어져 '지심귀명례'의 숭고한 아름다움이 우러나온다. 후불탱화, 수월관음벽화, 건축, 조형, 계단, 창호, 닫집, 천정장엄 등 반야용선의 불국토 조영에 혼신이 투영되었다. 조영의 거시에서 미시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장엄하며 섬세하여 조선중기 승장들이 지닌 목공예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듯 하다. 어느 한 곳 허술한 곳이 없다.

문화재청 안전점검서 최하 등급

하지만 작금의 대웅전은, 아니 여수 흥국사 전체는 위기다. 최근 문화재청 안전점검에서 당장 해체수리가 요하는 최하 F등급을 받았고, 근래에는 지붕측면의 기와가 왕창 흘러내렸다. 한 두달 후엔 대웅전은 해체수리 될 예정이다. 문제는 여수산단의 정유공장에서 퍼져나오는 산업먼지다. 흥국사 사하촌은 이미 철거되고 정비되었다. 흥국사는 고립무원의 지경이다. 산업먼지와 공해로 찾아오는 신도도 급감했다. 호국사찰의 성지가 존폐의 위기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존대책을 마련함이 당연하다.

생명력 넘치는 카리스마 발산

흥국사 대웅전은 3×3칸 정방형 건물로, 내출목 수는 3출목이다. 내3출목의 마지막 출목부재의 끝은 봉황으로 장엄했고, 네 모서리 귀공포의 내출목은 용으로 장엄했다. 그런 점은 부안 개암사 대웅전이나 익산 숭림사 보광전의 공포장엄을 연상케 한다.

외진주 영역의 천정은 물매가 작은 빗반자를 가설했다. 빗반자는 세로로 긴 장방형의 우물반자다. 빗반자에 경영된 장방형의 우물칸 수는 140여 칸인데, 시문된 문양은 여섯 가지로 다채로운 변화를 주어 건축구조의 대칭성이 주는 단조로움과 경직성을 피했다. 앞 뒤 측면 140여 빗반자 칸칸에 봉황, 금니 넝쿨연화문, 모란, 관념적 연화문, 구름 별자리문 등을 베풀어 천정은 숭고함과 생명력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생명력 넘치는 문양패턴의 반복에 고색의 묵직한 색조가 더해져 저절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하는 공간의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희유의 만병 꽃꽂이 벽화

특히 좌우 측면의 빗반자에 그린 벽화는 희소성의 소재에서 주목된다. 좌우로 각각 14칸씩 청색 만병에 모란꽃과 관념화 된 연꽃을 베풀었는데, 마치 화병에 미학적으로 장식한 꽃꽂이를 보는 듯 하다. 이러한 꽃꽂이 벽화는 희유의 사례로서 흥국사 대웅전 천정장엄의 고유성이자, 독창적인 표현이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에도 도자 화반(花盤)에 장식된 고려시대 꽃꽂이 벽화가 나타나지만, 아쉽게도 모사본만 현존한다. 벽화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는 이미 고구려 벽화고분 쌍영총에도 나타나고, 강화도 정수사의 꽃살문에, 그리고 나주 다보사와 강화 전등사의 불단조형에서도 나타나지만 사찰천정 벽화로는 흥국사 대웅전과 나한전에서만 극히 이례적으로 나타난다.

관상학적인 미, 액센트 있는 율동미

화병의 꽃꽂이 벽화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의 구도이고, 구현된 꽃꽂이의 화형은 주지(主枝)가 한가운데에 있는 직립형이다. 색상은 청색, 빨강, 노랑의 삼색조화와 보색조화를 적절히 배합했다. 향우측의 꽃은 몽글몽글한데, 향좌측의 꽃은 뾰족뾰족하다. 균형과 조화로움으로 오브제의 관상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또한 비중에 따른 크기와 색을 달리해서 꽃꽂이에 분명한 액센트를 주어 변화의 율동미도 갖추고 있다. 공포 사이에 시주자 이름을 낱낱이 밝힌 사실을 비춰볼 때 이 꽃꽂이 벽화는 부처님의 공덕에 올리는, 세세생생(世世生生) 마르지 않는 육법공양의 헌화임에 분명하다.

19세기 모란병풍도 민화의 원형질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점은 한국미술사에서 사찰벽화와 18, 19세기 조선민화의 미술사적 관계다. 향우측의 빗반자에 경영된 모란꽃 벽화는 그 자체가 조선민화의 모란병풍도라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민화의 원류는 천전리 각석이나 반구대암각화에 이르겠지만, 17, 18세기 사찰장엄의 민중화, 혹은 낭만주의적 경향이 민화의 해학과 익살에 물길을 열었음도 분명한 사실일 듯 하다. 민화적 화풍의 잠재적 가능성을 저 꽃꽂이 벽화에서 짐작하는 것이다. 일지매(一支梅)의 꽃을 보고 봄을 읽는 이치로되, 무릇 자성(自性)은 연(緣)을 만나 제 갈길을 열기 마련이다.

8엽에 새긴 범자 낱낱은 '종자(種字)'

내진주 영역의 천정은 평반자에 소란반자를 두른 우물천정이다. 우물천정의 칸 수는 13×9칸의 117칸이겠지만, 불단 위 천정엔 정교한 닫집이 경영되고 있어 외관적으로는 96칸만 관찰된다. 시문된 문양은 8엽연화문이다. 두 세 곳에서 8엽마다 범자를 새겨 팔엽연화문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8엽에 새긴 범자 낱낱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곧 부처이고 보살인 '종자(種字)'다. 종자라는 것은 밀교에서 여러 불보살의 고유한 상징인 실담범자 낱낱의 한 자(字)들이다. 따라서 사찰천정에 장엄된 범자 팔엽연화문은 〈대일경(大日經)〉의 경전을 형상화한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에서 불보살의 존상이 결좌를 맺고 있는 여덟 자리에 고유한 범자(梵字)를 대신 표현한, 한국의 〈종자만다라(種子曼荼羅)〉라 하겠다. 고도로 압축된 팔엽연화문은 연기법의 법계에 깃든 우주만유의 실상을 조형의 방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담문자 대표 '범자'… 한글창제 활용

실담문자로 대표되는 범자는 〈용재총화〉나 〈지봉유설〉에서 한글창제과정에서 원형으로 활용되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글의 원류가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이다. 사실 실담문자와 한글은 음운체계와 발성기관에 따른 아음, 순음, 치음 등의 분류에서 놀랄 정도로 닮았다. 〈실담장해의 총론〉에서 다음의 구절은 우리나라 사찰 전정장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범자 팔엽연화문의 본질을 관(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담문자는 범천께서 지은 것이다. 범자 한 자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여러 부처님의 만행만덕, 백천삼매, 팔만바라밀의 무량묘의가 모두 하나의 범자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

무릇 범자 한 자(字)의 뜻이 그러할진되, 저토록 천정 가득 펼쳐놓은 팔엽연화문은 그 무엇의 도구로 깊이를 재겠는가? 불가사의의 불가설이니 유마힐의 침묵을 빌려 오직 침묵으로 답할 뿐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종무원장 원 담
충북종무원장 계 현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선과 악 모두 쓸 줄 알아야 돼요

성태를 길러라 ②

정정이 제일 첫째 소식이고. 내 마음이 가라앉아. 눈하고 타협을 안 해. 귀하고 타협을 안 해. 혓바닥하고 타협을 안 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 허공과 같이 환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여김을 턱 일으켜서 이런 일을 해 보겠다 저런 일을 해 보겠다. 또 색신은 내의 그림자거든요. 하기 때문에 색신 살려야 되거든요. 이래서 회사에 나가겠다 장사를 하러 나가겠다 이래서 한 생각을 턱 일으키면은 그만 그대로 아무 실수 없이 그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도력은 벌써 문제가 다르죠. 법을 굴릴 수 있어.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악한 거를 굴려서 착한 거 만들 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부터. 그러나 나중에 차차차차 이런 말을 늘상 해싸면은 나중에 그만 자기 자신도 어느 사이 모르게 알아버립니다. 악한 일을 굴려서 착한 일을 만들 줄 알아. 착한 일을 굴려서 악한 것을 만들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 악하다 성품 하나지요? 성품 하나죠? 결과는 달라요. 그렇죠? 결과는 다르지만 성품은 하나 아니에요?

그러하니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착한 성품이 따로 있고 악한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 내가 공연히 마음을 그래 일으켜. 마음은 하난데 악하게 마음을 먹고 착하게 마음을 먹고 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성품은 하나거든요. 그러면 악한 걸 일으켜서, 악한 걸 굴려서 착한 걸 만들어서 무엇에 써먹겠느냐.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악함을 굴려서 착한 걸 만들고 착함을 굴려서 악한 걸 만들어. 굴려. 만들 줄 알아. 그러하면은 착한 걸 굴려서 악한 걸 만들면 이걸로써 무엇을 써먹겠느냐. 성현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어렵죠. 왜 성현을 제도할 필요가 있느냐. 성현들은 착한 데만 들어앉아 있거든. 이 불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쳤다 말이여. 착하다 하면 악하다, 상대성이거든. 부처님은 상대성이 없어. 상대성 위에 쑥 올라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악한 걸 쓸려면 악한 것도 해. 착한 걸 쓸려면 착하기도 해. 마음대로 해.

그러나 성현들은 착한 데 딱 들어앉아 있어. 거기서 징역살이하고 있어. 하하하. 이것 참 우습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착한 걸 굴려서 악한 걸 만드는데 이걸로써 성현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누가 구할 거예요?

이거 말이 너무 엉뚱해 놔서 잘 곧이 들을런지 안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다지고 다지고 다져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법신자리,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바로 누리의 주인공이로구나. 여기는 성현이니, 악이니 선이니, 아무 것도 들어붙지 않는 자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또 착한 걸 굴려서 악을 만들어서 성현을 제도하고, 악을 굴려서 선한 걸 만들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 **착한 성품 악한 성품**
>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내 마음이 일으키는 문제**
> **선과 악 상대성에서 발생**
> **부처님은 그 위에 존재**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도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려고 하면은, 여기는 노소가 상관이 없고 남녀가 분별이 없고 여기는 인종이 분별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린데 여기 무슨 놈의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늙은 것이 있고 젊은 것이 있겠어요? 요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도력을 갖다 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걸 굴려서 착한 걸 만들어. 착한 걸로는 중생을 제도해. 그러니까 요 말이 착하다 악하다는 것이 하나라는 그 말 아니에요? 또 착한 걸 굴려서 악한 걸 만들어서 성현을 제도하고, 악한 걸 굴려서 착한 걸 만들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착하다. 선행을 했다. 성현들 이름. 지구가 생긴 뒤로의 성현들 이름 한 여남은 개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제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제도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공부 할 줄 모르면은 제도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성현이라고 떠받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할 겁니까.

이거 아무 것도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말이죠 웃습니다. 날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성현들을 제도해?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은 좋다 하는 데에, 선에다가, 착하다 하는 데에 딱 들어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들어앉아 있지 안 해. 나 안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러하니 만약 선에 들어앉을려면 들어앉을 수도 있어. 선을 버릴라면 버릴 수도 있어. 악한 데 들어앉을라면 악한데 들어앉을 수도 있어. 악을 버릴라면 버릴 수도 있어.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실력이 없지만은 나는 그렇게 마음 가진 지가 오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한테는 별로 마... 하하하.

부처님께서야 굉장한 분이니까 존경안 할 수 없지만도 이전 성현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때는 존경하라고 합니다. 중생보다는 낫지 않느냐 말이여. 중생보다 높으니 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서울서도 내가 몇 번 말했지만 그런 말 했습니다. 사실 이렇고 이렇다 말이여. 우리는 절대성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이다 악이다 이거 상대성이거든. 상대성 위에 앉았어. 그 밑에 앉았어.

그러하니 벌써 선이다 하면 이거 성현들이고, 악이다 하면 이거 도치기 같은 사람들이니까 안 돼. 도치기라 해서 버릴 필요가 없어. 성현이라 해서 나는 관심을 안 가져.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나 쓸 땐 써먹는다 말이죠. 요것이 도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라면 어떻게 하느냐. 정정이 되지 안 해서는 내 마음이 그만 해말쑥해. 가라앉지 안 해서는 도저히 이 도력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어떻습니까? 자, 법운, 어때? 그렇겠는가. 사실로 그래. 우리가 선도 쓸 줄 알고 악도 쓸 줄 알아야 되요. 물론 이거 보통 자리에 가서 이런 말 하면 까딱하면 사람들 버려버려요. 그러나 이 자리는 이런 말했자 버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벌써 상대성엔 앉아가 있지 않거든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자대비 부처님 법 알리면 '보은 성취'

12. 보경회향문(普敬廻向文)

넷째, 당수대고(當受代苦).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나간다.

다섯째, 내 몸뚱이가 튼 고기가 되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인다.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베푼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섯째에는 우리가 큰 원을 가져 모든 고에 당하고, 중생이 나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다 같이 원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

일곱째는 내 몸뚱이가 발심하고 내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법(法)이므로 이 세상 끝 다 하는 데까지 해나간다는 말. 자기의 몸뚱이가 법계(法界)로서, 결코 상대적으로 그가 이러므로 나는 이렇다. 그가 저만큼 하니 나도 이만큼 하는 그런 좁은 생각을 말 것. 발심을 저 진법계허공계(盡法界虛空界), 법계가 다하고 허공이 다하고 , 중생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크게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나와 남이라는 구별이 없고 조금도 다름 없이, 모든 중생의 고는 내가 받고, 모든 중생에게 항상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발심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널리 공경하고 회향한다(普敬廻向)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넓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경제불(禮敬諸佛)부터 수순중생(隨順衆生)까지의 있는 바, 모든 공덕이란 것이 어디에 돌려지느냐 하면 진법계(盡法界), 허공계(虛空界),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돌려야 되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태 안락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과 원은 또 얼마나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 없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내 행과 원은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빈틈없는 의식이 지속하여 무유간단(無有間斷)하다. 조금도 쉴 사이라곤 없이 우리의 몸과 입과 정신생활로서 결코 싫증이 안 나고 환희로서 해나가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대목은 놀랍다. 만약 모든 보살이며 우리들이 이와 같은 대의(大義)와 커다란 포부를 갖지 않았던들 이렇듯 큰 원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큰 원을 세워 수순(隨順)해서 자꾸 지내놓고 보면 재미가 절로 나고 그 재미가 거듭하고 익어져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우리들이 정편(正編), 정도(正道)로 두루 가득히 퍼지고 바른 지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이것이 그 자체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행이 되고, 또 그 행이 자비의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어질고 현명한 일을 널리 해나가야만 비로소 아미타불에 귀의하고 보은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이 영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널리 회향하는 것을 말할진데 예경제불로부터 수순중생에 이르기까지 가진 바 공덕을 낱낱이 다 회향하여 법계와 허공계와 일체 중생의 업이 다하도록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을 얻게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행과 원을 닦아 나가기를 허공계에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도록 한다. 내 이 행원을 다하여 끝남이 없으며 생각마다 이어 나가 쉴 사이가 없다. 그리하여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서 이렇듯 큰 원을 세워 수행을 닦아 나가는데 오직 기쁨에 넘칠 뿐, 싫증이란 게 없다.

> **헌신하며 보살펴 주는**
>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 은혜**
> **스스로 믿고 타인에게 믿음주며**
> **중생 제도하는 것이 '보은'**

13. 보은게(報恩偈)

自信殺人信　難中轉更難
大悲傳普化　眞成報佛恩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자기가 믿고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믿게끔 한다는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믿는 것도 잘 된다고 할 수 없는데, 더욱이 남을 가르쳐 믿도록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널리 중생에게 교화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전해지는 그것이 참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보은을 성취하는 길이다.

"내가 부처님을 믿으며
또 사람들이 믿도록 가르친다.
어렵고 어려운 일.
사람들을 가르쳐 믿도록 한다.
대자 대비를 널리
돌아다니며, 교화하여 전한다.
참말이지,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 갚는 일. 은혜 갚는 일을 이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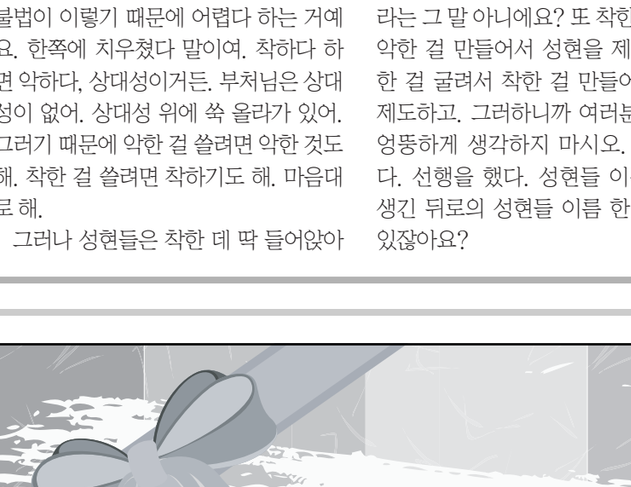
은혜 갚는 이야기가 났지만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우리가 부모님을 두고 생각해보면 알 일이다. 첫째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고 부모에게서 몸을 받아 나온다. 어머니가 우리를 태중에서 열 달 동안 보호하고 있을 때의 마음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기막힌 고통의 연속이다. 자신께서 하고 싶은 일, 활동도 못하고 몸이 무거워 천근이나 만근이나 되고, 때로는 슬픈 생각도 들었다가, 별의별 생리적 고통이 다 따르게 마련이다. 이것은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이라고 한다. 열 달 동안의 태중에서 이를 수호할 때의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달이 차 만삭이 되어 거의 사경에 도달한 몸이 찢어지는, 이를테면 생사의 고통을 겪고 아이가 태어난다. 나는 것이란 동시에 죽는 것과 꼭 같은 고통이 따른다. 낳은 뒤에는 자식이, 아들이다 딸이다 낳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구 인제 나는 엄마가 되었구나, 그래 몸은 튼튼한가, 하고 궁금해 하며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은 잊어버린다. 셋째는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이다. 쓴 것은 자신이 삼키고 단것을 내어다 자식을 준다.

또 아이는 누워서 똥 오줌을 싼다. 지저분하다. 진자리에는 부모가 눕고 마른 자리에는 자식을 다시 갈아 눕힌다. 그리고 젖을 먹여 키우고, 코고, 오줌이고 싸며는 모두 기저귀며, 옷이며, 더럽혀 놓은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 준다. 출입을 하는데도 자식이 배가 고플텐데 하고 곧 쫓아온다. 자식을 위해서는 심지어 나쁜 일까지 한다. 자식이 병이 들었다. 저걸 어떻게 고칠까, 닭을 잡아 곰을 해 준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일을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듯 염려하여,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인지 끝내 염려하여 눈을 못 감는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 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고통 받는 이웃들 마음치유…

황수경 명상리더십 센터장



황수경 센터장은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동국대 선학과 박사수료, 미국 AAPC 전문심리치료사,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및 연구위원,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및 명상리더십센터장, 한마음과학원 회원,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마인드힐링 강사로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나눔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BBS TV의 〈황수경의 심리상담 프로젝트:마음, 인생을 바꾸다〉를 1년간 진행하기도 했다. 동국대에서 명강사상을 2회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힐링법회, 템플스테이, 명상강좌 등 불교계에서 진행하는 포교행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 바로 황수경(50) 명상리더십센터장. 아담한 체구에 맑고 편안한 목소리의 소유자인 그는 대중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사회 곳곳에서 마음치유 교육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사과정 입학 후 오히려 교도소가 전공일 정도로 재소자 포교에 매진해 온 그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것을 발원하고 학생, 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에 가슴 아팠던 유년시절

황수경 센터장이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됐다.

“어릴 때부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초등학교 시절 집이 가난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차별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 때문에 어린 친구가 야단맞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죠.”

황 센터장은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역사를 전공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하던 대학시절에는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밤에 야학을 가르쳤다.

“전 여대생으로 편히 사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회의를 느꼈어요.”

그는 사회를 바꾸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소외된 이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음을 느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미국의 사회복지학이 제도적으로 발달된 것은 사실인데 뭔가 항상 비어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허한 이유는 바로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이었어요. 사회를 바꾸려면 제도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찾고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마음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동국대 선학과에 진학해 박사과정을 밟으며 불교공부에 천착했다. 이론 공부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도 병행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운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에너지를 내 줄 수 없다면 소용없다”고 강조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한 소년범이 청송교도소로 가면서 그곳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제가 다닌 곳은 청송2교도소인데 가족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봉사를 너무 많이 와서 막아야 할 정도인데 불교는 재소자 교화에 소극적이어서 신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번 오다가 말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교도관을 설득해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체가 나 아님 없음’ 새기며 봉사

황 센터장이 재소자들을 만나며 가장 힘이 된 것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자성본래불, 누구든지 근본은 똑같은 한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용기를 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행 스님께서는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 고 늘 말씀하셨어요. 재소자도 나와 둘이 아니라 ‘몰랐을 때의 내 모습’ 이라고 하셨죠. 그들도 근본에는 역시 부처님 마음이 있고, 고정됨이 없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일 저나 제 가족도 어느 전생에 몰라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부처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2001년부터 매월 청송으로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왕복 11시간이 걸리는 강행군을 펼쳤다. 마음으로 둘 아니게 보며 관하고 기도하며 다녔다. 그들의 무거운 업과 살아가는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무겁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다. 청송을 오가는

회비 못내 혼나는 친구보며 불평등 느껴
대학시절 야학 가르치며 이웃돕기 시작

교육·사회복지학 공부해도 공허함 커져
불교 관심 많은 서양인 보며 불교에 귀의

“둘로 보지 말라” 대행 스님 가르침 새겨
10년간 교도소 다니며 재소자 마음 달래

‘마음 감옥’ 갇힌 일반인에 마음공부 안내
많은 사람들 마음 빛 밝혀 주기 발원

길은 눈물의 길이라고 할 만큼 샐 수 없이 울면서 다녔다. 재소자들의 업장소멸을 발원하며,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과 〈한마음요전〉등을 사경하도록 했다. 손톱이 닳을 정도로 사경하는 재소자들, 출소하고 나서 사경한 것들을 모아 우편으로 보내주는 재소자들을 볼 때면 더 없는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다. 한 번은 소년범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나와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차라리 제가 당하면 괜찮은데 절 믿고 취직을 시켜주신 분에게 피해가 가니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청송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 나가서 다시 잘못을 저질러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날은 정말 서울로 올라오는데 힘이 다 빠져서 운전도 못 하겠더라구요. 주위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왜하냐’ 는 말을 할 때면 ‘계속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출소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다든가, 아는 스님이 부르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며 후원을 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더 잘해야지. 힘내서 또 해야지’ 하면서 위로와 힘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마음을 담아 소리 없이 도움을 주시는 스님들과 도반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는 청송에서 출소한 사람이 황 센터장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동국대에 연락처를 남겼다.

“출소한 이후에는 만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사실 무서웠어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냥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뒤 출소자는 자기가 계산을 하겠다고 했다. 황 센터장이 청송까지 와준 것이 고마워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막일이라도 하고 돈을 벌어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어 기다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식사 후에는 황 센터장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함께 재소생활을 했던 도반들에게 줄 영치금을 조금씩 모아 그에게 건넨 것이다. 황 센터장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피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명절 때 전화도 오고 한 번도 귀찮게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걸 시작으로 몇몇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마음잡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도 생겼지요. 사람의 마음은 평등하고 누구나 근본은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황 센터장은 지옥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생각하면 항상 숙연해진다. 재소자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던 그는 재소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내면의 부처님 마음을 찾을 수 있길 항상 기도하고 있다.

동국대 발전 기원하며 매일 108배 정진

황 센터장은 교정교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군부대, 여성단체 등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선(禪)의 대중화를 위해 재가자들에게 마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동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불교대학 등에서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황 센터장의 동국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학·석사를 이화여대에서 했지만 박사과정을 동국대에서 시작한 이유도 불교학교인 동국대가 좋고 선학이 좋아서였다. 그는 교정에 부처님상이 있고 법당과 좌선실이 있는 대학은 거의 없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그래서 황 센터장은 올해 개교 108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매일 정각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108배 정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학기 불교 전공 시간인 〈간화선 실습〉시간에는 50여명의 수강학생들과 함께 ‘108주년 우리학교 지혜와 자비로 빛나소서’ 라는 발원을 담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일 정진을 했고, 이번 학기에도 학부·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정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삶의 서원이자 살아가는 힘”



한마음과학원에서 개최한 어르신 마음공부 프로그램서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이 마음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황수경 센터장은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든 달려가 마음치유 강연을 펼친다.



불교문화사업단 임직원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황수경 센터장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동국대의 존재의미는 한국 불교의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교수님들이 계시고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학교가 불교인재들을 배출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황 센터장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상담을 하다 보니 전문적인 상담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참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4년에 걸쳐 전문심리치료사 과정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선학과와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황 센터장은 불교명상과 상담을 통합해 연구하고 강의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선과 마음치유〉라는 교양과목과 선학 전공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왜 대학을 다니는지 모른다고 해요. 진로에 대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해 하거나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대학 다니는 동안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마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꼭 배울 수 있었으면 해요.”

황 센터장의 진심어린 애정이 담겨서 인지 그의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 자체로 치유가 되곤 한다”고 입을 모아 말 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편이다.

국내에서 불교상담 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론, 상담방법론, 연구방법론 모두 개척해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황 센터장은 다행히 이 분야에 학문적 열정이나 불교상담에 대한 사명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래가 무척 희망적이라고 했다.

“불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가르침이고 상담도 사람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불교상담은 불교학과 인문학에 새로운 빛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센터장의 강의 특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수업에서는 참선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마음 치유를 위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한마음과학원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아버지마당, 한나무 교사 인성연수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9월에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과정인 〈한나무 인성지도자 과정〉에서도 강의한다.

오래 전부터 리더십과 경영공부도 함께해온 그는 명상경영에 관심을 갖고 공무원, 기업들과 연계해 명상을 비롯한 마음공부를 안내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재소자들 못지않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삿된 생각이나 업식에 끄달려 괴로워하니 그게 감옥이죠. 각자에게 불성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자의 불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 기업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황 센터장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통을 해야만 대행스님이 강조했던 공심, 공체, 공생의 도리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대행 스님 공부는 공심, 공체, 공생의 도리잖아요. 요즘 소통과 공감을 말하지만 먼저 마음으로 존중하면 소통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상담기법이나 대화법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근본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통하고 있으니 때로는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게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계속 입력해보세요. 저는 그 업이 녹고 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마음공부 전 세계 알리기 발원

황 센터장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도 많았고, 도처에 존재하는 악(惡)을 보며 삶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행 스님이 보여준 마음의 진리를 통해 큰 희망을 얻었고, 이제는 스스로가 보탬이 돼 그 희망을 전세계에 심을 수 있기를 발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한마음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어요. 누구나 마음은 자가발전소라고 하셨는데, 그 무한한 마음에너지를 활용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며 공생하는 자유인으로 대장부로 살 수 있습니다. 대행 스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직접 체험으로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이 살아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법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제 서원중의 하나예요. 근본이 원래 부처님인데도 자기 중생심과 업식에 갇혀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밝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아는 불교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한다.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행자, 부처님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대행 스님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해온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보살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둘 아닌 자비,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 한마음을 전 세계에 꽃피우는 보살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보살행을 발원하고 전국을 누비는 황 센터장은 때로는 몸살로 고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行)이 삶의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목적이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의 부처님, 주인공이 하도록 믿고 맡기며 관합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공심공체로 스님들과 도반들이 도와주시고 나투어주시기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불사를 하는 것이 부처님과 선지식들께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생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은혜는 갚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자 에너지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법일기

베트남 청년 토안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넨 청년이 모자를 벗자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왼쪽 뇌의 3분의 1을 잘라 낸 청년의 얼굴을 본 사람은 대부분 놀라워했다. 마음고생을 나타내 듯 까맣게 타들어간 입술, 멍한 그의 모습에 맞이할 말을 잃었다. 그의 곁에는 아버지 반디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무슨 말로 이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위로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했다.

“반가워요. 이곳이 이주노동자 쉼터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오늘밤은 마음 편안히 푹 잠을 자세요.”

1차 수술을 마치고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28살의 착한 눈빛을 가진 베트남 청년, 토안(To An)은 이렇게 나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한국으로 건너온 지 3년째가 되는 2010년 7월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고 마트에 다녀오다 한국인 자가용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이다. 토안에게 교통사고는 큰 재앙이었다. 춥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고향에 있을 가족들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졌던 청년이 한 순간에 꿈을 잃은 것이다.

동생에게 예쁜 옷을 사 줄 수 있다면, 대학교로 보낼 수 있다면,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사줄 수 있거나 아버지의 약값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들이 있었다. 가족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먼 땅에서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었다.

토안은 한국으로 건너오기 위해 진 빚 2천만 원이 있었고 당장 생활할 여비조차 없었다. 그의 통장에는 54,000원이 전부였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는 가해자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700만원에 합의를 했다. 그 돈은 모두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내졌다. 따라서 토안은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 버스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인연으로 나는 베트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40년 전 생활상이 남아 있다. 대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어른을 공경하며 제사지내는 풍습이 똑 같다. 부지런하고 외세의 침략에 1천년이 넘도록 독립을 위해 싸워 이긴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피해당한 마을에는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심걱정을 덜어 내야 할 빚이 있고, 그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토안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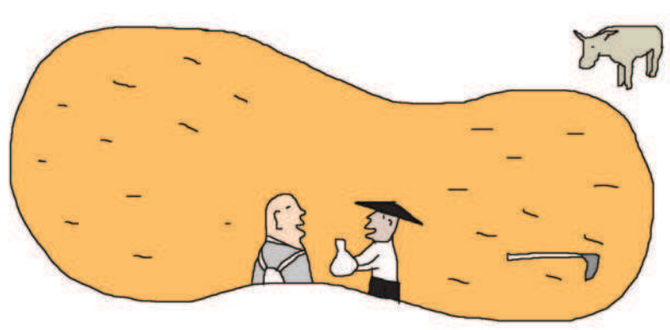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보험회사를 상대로 빈약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1년만에 약 7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냈다. 수술도 잘 마쳐졌고, 2012년 12월 마침내 토안이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 나도 동행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손님대접에 마을 잔치를 곁들였다. 민간외교의 결실이 마을 사람에게 “스님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어느듯 다시 2년이 흘렀다. 지난 8월에 토안을 베트남에서 만났다. 사고로 인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고 가끔씩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작년에 결혼을 했고 한 달 뒤에는 아빠가 된다고 한다. 너무 기뻤다. 토안에게 아이 3명은 낳으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농사지은 땅콩을 건네준다. 정말 보람이 느껴졌고 뭉클한 순간이었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유럽, 콜라주 '인드라망'에 빠지다

전자 기기 가득한 세상, 이곳에도 부처님의 세계관 인드라망은 존재할까?

〈Wired〉지는 "유럽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콜라주 작가 레오나르드 유리안(Leonardo Ulian · 43)이 2012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시리즈 '만다라'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작가 유리안이 전자 기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르다. 생활의 편익을 추구하는 전자 기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보고, 전자 기기 회로도를 덮고 있는 전자 부품을 통해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만다라의 뜻을 찾고 있다.

"전자 기기 속에서 불교 철학을 엿본 콜라주 작가 유리안은 유럽에서 가장 모던한 불교 미술가"라고 전제한 〈Wired〉 지는 "우리가 편익을 위해 전자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는 전자 기기의 안팎을 아우르며 철학적 사유를 읽어내고, 그 과정에서 모던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가 유리안은 "우리는 한 번쯤 '전자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자 기기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차가운 부품을 연결해 나가는 작업 과정이 내게는 인간의 마음자리를 찾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작가 유리안의 시리즈 '만다라'는 현재 유럽 미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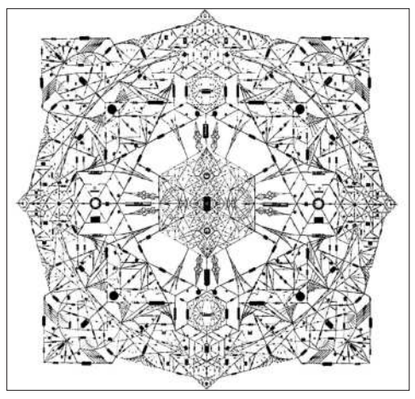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마가렛 로드(Margaret Rhodes)에 따르면 만다라 시리즈는 '만다라' 특유의 기하학적 전통을 잇는 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작가 유리안의 오랜 명상 경험이 시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 부품의 연결은 즉흥적이기 보다는 철학적이며, 항상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담보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더욱 분명해진다"는 작가 유리안은 "전기 부품의 인드라망은 마치 우리 뇌의 신경회로와 같다"며 "미로와 같은 연결망, 즉 인드라망은 우리 의식을 추상화로 표현한 그림의 모음"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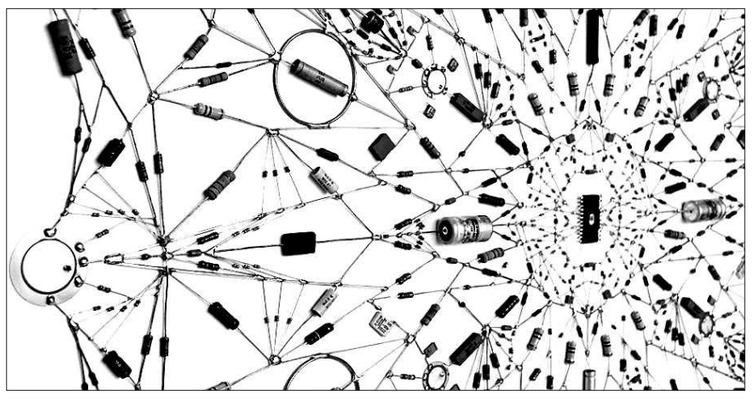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마가렛 로드는 "작품을 보는 순간 눈을 감고 생각에 몰두해야 하는 게 유리안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라며 "인드라망에서의 관계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고, 작품에 사용된 수많은 전자 부품 하나하나가 변화의 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드는 "작가 유리안에게 전자 부품이란 만다라의 모래알과 같다"고 덧붙이고, "전자 기기는 전자 부품을 하나의 개체로 소유하고 있지만, 그 개체의 역할로 작동하지 않냐"고 반문하고, "이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소유' 하는 게 아닌 '우리가 우리를 소유' 한다는 작가 유리안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Wired〉지는 "예술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회와 사회' 간의 연결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레오나르도 유리안의 말을 인용하고, "유리안의 시리즈 '만다라'는 단순함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현대의 경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전자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리안의 작품에서 '지금의 행복은 지난 시간의 특정한 순간으로 가능하다'는 교훈에 유럽의 대중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레오나르드 유리안의 연작 '만다라'. 전자 부품을 이용해 인드라망을 추상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안은 "차가운 부품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인간의 마음자리를 찾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작가 L. 유리안의 '만다라' 시리즈에 호평

"철학적이고… 변화의 가능성까지 담보"

보로부두르, 폭탄 테러 위협받아

ISIS, 페이스북 통해 경고…인도네시아 군경 보안 강화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 지는 "8월 15일 ISIS(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추종자라고 자신을 밝힌 페이북 사용자의 '보로부두르는 성전 용사의 응징을 받을 것' 이라는 테러 경고를 받고, 사원 경계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로니 솜피(Ronny F. Sompie) 대변인은 "테러 경고를 접한 후 IP 어드레스를 추적하는 등 범인 색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군경 모두 사원 경비를 위해 증원하는 등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대 테러 작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와퉁아주 마겔랑 지역에 위치한 불교 사원으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세계 최대 불교 유적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 지에 따르면 ISIS가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를 점령하며 세력을 넓혀 가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에서도 ISIS 관련 단체들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에서 ISIS 추종 세력이라고 밝힌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대규모 폭탄 테러 계획이 경찰에 발각된 데 이어 15일 인도네시아에서도 ISIS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터넷에 올린 ISIS 주종자의 테러 위협에 대해 "다른 온건 무슬림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는 ISIS의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타종교에 배타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1985년에도 보로부두르 사원을 공격해 사원의 상징과도 같은 10여 개의 사리탑을 폭발시켰다.

한편 "필리핀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인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지는 "현재 이라크에서는 최소 100여 명의 필리핀 과격주의 청년들이 ISIS의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ISIS)'가 최근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폭탄 테러를 경고했다. 사진은 사원을 포행하는 인도네시아 스님들.

다마제디 범종을 찾아라

미얀마, 파준다웅 샛강 준설선과 잠수부 동원

8번째 도전…〈The Independent〉 등 냉소적 반응

400년 전에 사라진 범종 찾기에 미얀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e Independent〉지는 "미얀마 양곤의 페구(Pegu) 강과 양곤 강이 합류하는 지점, 파준다웅(Pazundaung) 샛강에서 매일 목제 준설선과 잠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400여 년 전에 가라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마제디(Dhammazedi) 범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범종은 1484년 다마제디 국왕이 조성, 쉐다곤 파고다에 설치한 역사상 가장 큰 종이다. 기록에 따르면 구리 · 금 · 은으로 만들어진 이 종의 높이는 540㎝, 너비는 360㎝, 무게 300t에 달한다.

그런데 120년 뒤인 17세기 초, 포르투갈 출신 용병 필리페 데 브리투(Philip de Brito)가 범종을 훔쳐 달아났다. 범종을 녹여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다. 당시 브리투는 범종을 뗏목에 싣고, 다시 범선에 연결해 도주했는데, 페구 강과 양곤 강의 합류 지점에서 범종을 무게를 이기지 못한 뗏목이 침몰하면서 강물에 빠졌다.

침몰한 곳은 바로 파준다웅 샛강으로 뻘 깊이가 7.2m나 되는 데다, 그 주변에 3척의 범선이 가라앉아 있어 지난 25년 동안 7차례나 발굴 시도가 펼쳐졌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불심 깊은 미얀마인들의 이 종에 대한 애착은 갈수록 깊어져 올해 새로운 수중 발굴을 위해 25만 달러(약 2억 5000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고 두 척의 준설선에 나눠 탄 수 십 명의 잠수부들이 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The Independent〉 지에 따르면 이 발굴은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된다.

"15년 전 가라앉은 배의 일부와 금불상, 루비가 담긴 보석함이 발견됐다"고 말한 잠수사 툰라(Tun La · 51) 씨는 "지난 25년 동안 7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기부금이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이 모였다"며 "이번 모금에는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전하는 〈The Independent〉지는 다소 냉소적이다. 미얀마 탐사대원들이 GPS 같은 첨단과학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뱃전에 앉은 불교 승려의 영감에 의지해 종의 위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The Independent〉 지는 "미얀마 학자들도 '양곤 강과 페구 강의 강줄기가 40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강바닥에서 종을 찾을 수 없다'는 외국 탐사기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잠수사와 스님이 파준다웅(Pazundaung) 샛강에서 다마제디(Dhammazedi) 범종을 찾기 위해 준설선을 이용해 강바닥을 탐사하고 있다. 이번 탐사는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된다.

티베트인 여작가, 인터넷 글 올렸다 구금

중국 공안 8월 23일 인터넷 법률 규정 위반혐의로 연행

중국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 사는 티베트 여대생 작가가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관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중국 칭하이성 위수 티베트족 자치주 자둬현 공안은 8월 23일 이 지역 출신 작가인 다와춰무를 인터넷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연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들은 "다와춰모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판 카톡인 웨이신에 차별이 심한 지역 상황과 언론 자유 등에 관한 글을 수시로 올려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전했다.

그는 위수자치주 당국이 지난 2010년 4월 강진의 발생으로 초토화되다 시피한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무신경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또 위수 자둬현에선 지난해 8월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티베트의 유명 시인인 체링 외써에 대해 가택연금 조처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쓰촨성 간쯔티베트족 자치주 스취현 정커향에서 최근 임신 7개월째인 임신부가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지난 12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숨진 주민 진바탑칭의 부인인 이 임신부는 남편이 사망한 것을 알고 당국에 원한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유아시아방송은 티베트 제2의 도시인 르카쩌 난무린현 난무린진의 12개 촌에는 중국이 티베트 불교의 2인자인 11대 판첸 라마에 내세운 기알첸 노르부의 방문을 성대한 의식으로 맞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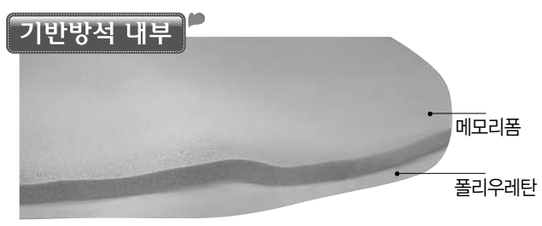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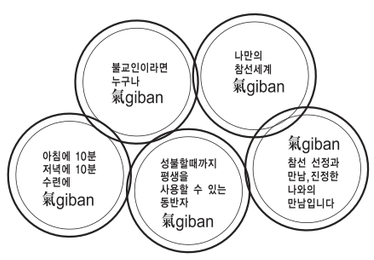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추천 불서(12)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경허-만공선사의 법맥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그대 안의 신령스런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불씨

지문스님 지음 | 양장 | A5 | 318쪽 | 13,000원

"허공은 가장자리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입니다."(본문 중에서)
1970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 광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범어사,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등에서 수선안거 한 지문 스님의 법문집. 저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다면서, 우리의 참된 성품도 신령스러운 빛으로 드러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빛(불성)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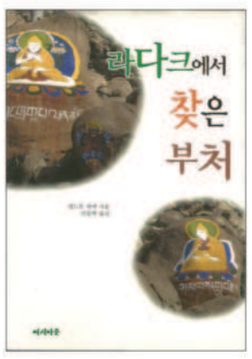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스님 이야기

저자 지묵 | 448쪽 | A5 | 148*210 | 12,000원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쓰여진 85명 스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솔한 수행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잘 알려지거나 높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보다는 숨어있는 선지식과 수행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 책에는 송광사 지묵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리는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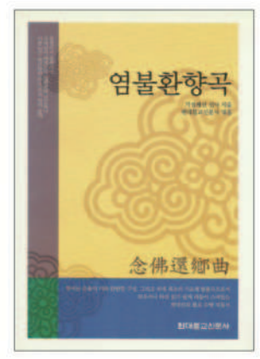


英 시인이 티베트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눈뜬 여정을 그린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연호택 옮김 | 신국판 | 377쪽 | 12,000원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h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 '라다크로 가기까지', '탐험', '링포체에게로' 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생태공동체의 한 원형공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다크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록 책 속이지만 링포체를 만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의 말을 접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을 옮겼다고 한다. 이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에고(Ego)를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 해설

염불환향곡 (해설집/독송집)

기성쾌선 지음 | A5 | 197쪽 | 7,000원(독송집 5,000원)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을 해설한 책. 18세기의 선지식인 '기성 쾌선' 스님이 지은 비교적 짧은 글로 부드러운 가요 형식을 취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소개한 글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이란 우리 마음의 본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생들이 우주적 마음의 본원에서 빗나가, 고향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본원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염불환향곡은 조선 영조43년에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환향곡은 장엄염불이면서 별곡처럼, 가요체로 엮어졌는데 가요체의 염불곡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석문의범〉등에 나오는 장엄염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 · 물 ·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스님 지음 | A5 | 374쪽 | 15,000원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본문 중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불성의 본디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속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처럼 새로움을 일깨우는 흥교 스님(대각회 이사장)의 법문을 담고 있다. 저자는 33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십우도 해설을 통해 마음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 본 불교의 가르침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진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방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한다.



대자유를 찾아 세속을 떠난 출가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스님 지음 | 302쪽 | 148*210 | 10,000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송광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한 정과 스님이 출가 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책. 자연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찾아 세속을 떠난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기슭 빈집', '무아에 대한 오해와 혼란', '참회와 발원', '차라리 흘러가는 구름에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편안함과 한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억겁의 윤회를 끊고 영원한 진리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수행자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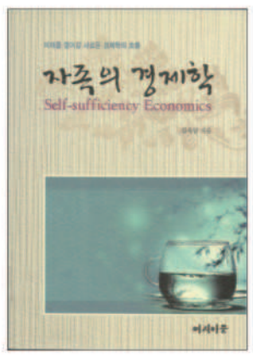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 담긴 수필 · 판화로 힐링을!

작대기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장용철 지음/정병례 판화 | 161쪽 | 148*210 | 9,000원

오가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의 편린을 만나게 해주는 '풍경소리'의 작가 시인 장용철의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예화들을 담은 책. 여기에 전각작가 고암 정병례의 판화를 함께 엮었다. 이 책은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렸던 글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에 수록되었던 글,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저자의 글이 담겨 있다.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지고 가기도 벅찬 등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받쳐주는 작대기 역할을 해주는 글을 모아 엮었다.



탐욕 · 집착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제학의 패러다임 제시

자족의 경제학

김옥암 지음 | 229쪽 | 128*188 | 11,000원

자유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며 순환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물욕을 좇는 만큼 그 희비쌍곡선은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디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경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좋은 예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세계의 지성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족의 경제학'은 그 따뜻한 경제론 중에서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의 경제사상을 제어하고 소욕지족의 경제사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대 경제학과 김옥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욕지족으로 만족하는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모색과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정일선사의 인가를 받은 능허거사의 화두참선 구도기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A5 | 238쪽 | 12,000원

정일 선사(선학원 이사장 역임)의 가르침과 그의 인가를 받은 능허 거사의 간화선 수행과 화두 타파 이야기. 저자는 한때 세속의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불교의 깨달음을 갈구하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이었던 정일 큰스님을 만나 용맹정진하여 4년만에 부처님 법의 이치와 인과의 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1년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두 공안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관문을 3년만에 타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해에 바라밀선원을 세운 저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어찌해야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231쪽 | 148*210 | 9,000원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2013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법의 도리를 풋대로 삼은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담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 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

경쾌한 랩으로 듣는 성철 스님 법문

백련문화재단 음악법문 CD '성철 이야기' 발매





백련문화재단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철 스님 육성과 함께 듣는 음악법문 '성철 이야기'를 내놓았다. 사진 왼쪽은 기획과 음악감독을 맡은 윤소희 감독, 사진 오른쪽은 앨범 표지.

성철 스님의 법문이 신나는 랩, 퓨전음악, 악곡, 서정 가곡 등으로 편곡돼 2장의 CD에 담겼다.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성철 스님 육성과 함께 듣는 음악법문 앨범 '성철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번 음반은 출가송 오도송 열반송 등 성철 스님 일대기를 구성한 곡들과 함께 중간 중간에 스님의 법문을 음악으로 표현해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기념관 설계를 하면서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됐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기획과 음악감독을 맡은 불교음악가 윤소희 씨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실내 음악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 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1년여 작업 끝에 다양한 현대음악을 총망라한 색다른 두 장의 CD로 탄생시켰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인 성철 스님의 큰 뜻을 대중들에게 좀더 잘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윤 감독은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성철 스님에 관한 자료들을 챙겨보니 큰스님의 대장부 같은 성품과 사자후를 표현하기에 내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로 남성 작곡가들을 통해 이러한 성량의 부족함을 채워 보았다"고 설명한다.

한국전통음악에 바탕을 두되 범패서부터 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배분하여 출가송 · 오도송 · 열반송 · 회향 그리고

1986년 봉축법어 랩으로 편곡
성철 스님 삶 거문고 선율로 표현
CD 2장에 총 30곡 수록돼

법문을 노래할 곡을 남성 작곡가들에게 맡기고, 윤 감독은 기념관 건축 구조에 어울리는 실내악과 염불을 만들었다. 연주가로는 비구 스님 · 비구니 스님 · 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8곡이 수록된 CD 1은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성철스님이 갖는 법맥의 정통성을 상징해 영산회상의 주제를 이어받은 '퇴옹회상'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성철스님의 '출가송'을 노래하고, 출가와 더불어 내면의 불성이 깨어남을 상징하여 '당신의 생일입니다'(1986년 봉축법어)라는 법문을 랩으로 펼친다.

'교도소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을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랩으로 시작하는 '당신의 생일입니다'는 가사를 두고 윤 감독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작곡자께서 초반에는 가사를 빼자고 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 또한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스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넣기로 결정했죠. 작업을 끝내고 보니 가장 신나는 곡이 되었습니다."

CD Ⅱ는 작곡가 조광재 선생이 작곡한 오도송과 성철 스님 '백일법문'의 감동과 메시지를 소프라노 정율 스님의 음성으로 실었다. 이어서 성철 스님을 시봉하던 일화를 원택 스님의 육성으로 듣고, '성철스님과 나'라는 익살스럽고 유쾌한 악곡도 이어진다. 이어 범패로 신비롭게 푼 열반송과 거문고 가락으로 성철 스님을 표현한 '그날'이 마지막 곡으로 담겼다.

윤 감독은 "음반을 세계 여러 아카이브즈에 보낼 계획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로써 성철 스님의 정신세계, 한국이 낳은 정신적 지도자 성철 스님의 법향이 지구촌 곳곳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미디어아트 국제전시 '미디어시티서울'

9월 2일~11월 23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서



이번 서울시립미술관 비엔날레서 상영되는 '코라'는 티베트 카일라스 순례길의 여정을 담았다.

미디어아트 국제전시인 서울시립미술관(관장 김홍희)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가 9월 2일~11월 23일까지 열린다.

올해 주제는 '귀신 · 간첩 · 할머니'로 영화감독 박찬경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세 주제어는 식민지를 겪은 아시아, 냉전의 역사, 여성의 억압과 고난을 함축하고 있다. '귀신'은 유령의 호출을 통해 굴곡이 심했던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간첩'은 아시아가 식민시대와 냉전의 경험이 심각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키워드다. 특히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간첩'은 간첩사건을 비롯 민주화 운동, 금기, 지역감정, 은행 전산망 해킹, 감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른다. 정보의 흐름과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귀신과 간첩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증인이다. 위안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아픈 역사의 한 가운데 여성이 있음을 말한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선보여
티베트 순례 담은 영상 '코라' 주목

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영화, 사진, 회화, 조각을 위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영화와 비디오, 설치미술을 위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상영되는 자오싱 아서 리우의 '코라'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출발해 고원을 지나 궁극적으로는 에베레스트 산과 카일라스 산에 이르는 여정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 이 여행 중에는 나흘간의 코라(kora)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라는 카일라스 산 5000~6000미터 사이 주변을 순례하는 과정이다.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독특한 산의 풍경과 자연에 대한 경외, 성스러운 영적 공간을 보여준다. 외로운 산행 속에 서서히 펼쳐지는 방대한 전자음악과 현악기 소리가 점차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영상이 자연 경관의 대규모 심포니를 드러내는 한편,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른 부드러운 기도의 종소리가 잠들어 있는 정신을 일깨운다. 때로는 자연의 침묵이 강박적인 긴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교감으로 다가와 깊은 영적 법열(法悅)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바위 사이에서 휘날리는 불자의 깃발은 모든 이들의 복을 바라는 티베트 불자의 기원을 보여준다.

정혜숙 기자

시대와 교감하는 불교 미술 한자리에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12월 21일까지

대방광불화엄경 · 아미타삼존도 등
동서고금 초월한 작품 한자리에



아미타삼존내영도(국보218호)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 10주년 기념전 : 교감(Beyond and Between)'을 12월 2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리움 개관 이후 처음 열리는 전관(全館) 전시로 한국 고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대교감, 동서교감, 관객교감 별로 섹션을 나누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한국 고미술 상설 전시실 'MUSEUM1'에서는 '시대교감(時代交感)'을 주제로, 우리 고미술의 대표적 소장품과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 시간을 초월한 예술작품 간의 교감을 시도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불상들과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아미타삼존내영도(국보218호)' 등의 불경과 불화가 전시된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두루마리 형태이며 크기는 세로 29㎝, 가로 1390.6㎝이다. 이 책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법사가 간행한 것으로 신라 화엄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신라시대 문헌으로는 유일한 것이며, 당시 불교뿐 아니라 서지학 · 미술사 등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크다. '아미타삼존내영도'는 관음 · 지장이 협시한 독특한 형식의 이 삼존도는 구도면에서도 내영도로서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묘사한 걸작품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교감전은 한국의 국보급 고미술부터 서도호, 문경원 · 전준호의 신작, 올라퍼 엘리아슨, 데미안 허스트, 나와 코헤이, 쟝샤오강 등 세계적인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2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20m 높이의 나선형 계단 중앙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연결한 최정화의 연금술이 샹들리에처럼 광채를 발하고, 고미술 전시실에서 현대미술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에는 덴마크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거울 · 발광다이오드 등을 활용한 빛 조각 '중력의 계단'도 관람객들을 신비로운 빛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정혜숙 기자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에서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대표적인 불상, 불화 등 불교미술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홍천 백락사, 환경설치 미술전 개막

세계 7개국 예술가 40명 참가



환경설치 미술전 강희준 작가 작품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백락사 환경설치 미술전이 9월 13일까지 열린다. 국내 유일의 사찰 환경설치 미술전으로 올해 9번째를 맞이한 2014 환경설치미술전은 백락사 일원과 홍천군 무궁화 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와 독일, 몽골,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7개국 40명의 설치 예술가들이 참가해 바위와 돌, 풀, 나무, 천 등을 활용한 설치 조각 작품을 백락사 현지에서 제작, 전시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문화

불교 명상음악 작곡 35년 “불법 환희심 오선지에 옮겨”

명상음악가 왕준기 교수



작곡가 왕준기 교수는 오랜 시간 명상음악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특히 국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음 여행을 이끄는 그의 선율은 불교음반으로 제작되어 사랑받아 왔다.

법화경 7만자 한글풀이 20장 CD로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곡 붙이기도
예불음악 등 불교음반 40여 장 작업
퇴직 후 청년 위한 불음 포교 ‘발원’

작곡가 왕준기 교수(65 ·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는 오랜 시간 명상음악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국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음 여행을 이끄는 그의 선율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준다. 방송 배경 음악, 가요 작 · 편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가 명상음악가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이런 편안함을 주는 곡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8월 21일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평생 음악과 함께 해온 왕 교수의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유독 스님들과 인연이 많았고 사찰 관련 작업들을 30년 넘게 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명상음악가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최근 8월 25일 개원법회를 한 법화정사의 법화경 음반 작업도 불가의 인연이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법화경 사경 · 독송기도 등을 통해 포교를 하고 계시는 회주 도림 스님의 뜻에 따라 법화경에 곡을 붙이게 되었어요. 법화경 7만자를 한글로 풀이한 내용을 20장 CD의 배경음악으로 작업했죠. 작업 내내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더없이 큰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이 음반 작업을 계기로 부처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 한 스님의 불경 낭송음반 작업을 시작으로 명상음악의 포맷을 만들기 시작한 그는 예불음악 국악오케스트라와 합창 제작, 신묘장구대다라니 작곡 및 제작, 월운 스님 말씀 ‘꿈에 본 극락길’ 배경음악 등 40여 매의 불교음반을 작 · 편곡했다.

“제가 전공은 서양음악인데 중앙대 국악과 박범훈 교수와 친해서 국악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1980년대 후반 ‘더디가는 세월이여’를 작곡하게 됐는데 그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죠. 이 곡은 올해 가사까지 붙여 서예가 조성주 씨의 노래로 재탄생될 만큼 저에게는 뜻 깊은 곡이에요. 아무튼 이 곡을 작곡한 이후부터는 스님들과 연이 닿아 수많은 음반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2002년 일산 덕양선원 법상스님과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곡을 붙이는 색다른 시도를 하기도 했다. “절에서 독경 소리를 들어보면 각 절마다 조금씩 음이 달라요. 하지만 또 공통된 음들이 있죠. 이런 특성들을 살린 음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법상 스님과 함께 작업한 이 음반은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음을 붙여 번뇌가 사라진 환희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법상 스님의 독경에 음을 붙인 ‘신묘장구대다라니’ 앨범표지

그는 불교가 전통을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오케스트라들이 직접 연주를 할 만큼 음악이 발달했죠. 음반 시장도 어마어마하고요. 하지만 절에서는 법회 때 반복되는 CD를 트는 게 전부에요. 그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양주 석굴암 주지 스님의 도움을 받아 찬불가 12곡과 예불 의식을 음반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들이 널리 보급이 안 되는 것은 불교계 자체에서 이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 같아요. 저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불교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절에 오고 불교도 발전하죠.

등불, 달무리 등으로 유명한 1970년대 인기그룹 영사운드 멤버로 대중음악을 시작한 그는 이후 방송 음악 작곡, 가요 편곡 등 수많은 작업을 해왔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음악 중에 KBS 스포츠 중계 시그널 음악이 있을 겁니다. ‘두구두구두구~’로 시작하는 이 음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을 통해 스포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작업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다큐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의 배경음악도 작곡을 해서 국제대회 상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하다보니 제가 뭘 했는지 조차 모를 때도 많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퇴직을 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불교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 “사실 불교음반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법화정사 법화경 음반 작업을 하면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화정사에서 청년합창단을 창단해 젊은 불자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오늘 반나절 무얼 그리 바빴나?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㉟ 건봉사 (上)





조선 선비들은 관동팔경과 금강산 유람을 하며 건봉사를 지나다녔기에 건봉사를 주제로 한 시를 남기곤 했다. 건봉사 적멸보궁에 세워진 부처님 치아사리탑

염불만일회의 도량

건봉사(乾鳳寺)는 신라고찰이다. 아도화상이 처음 절을 짓고 원각사라 이름 지은 것이 건봉사 역사의 시작이다. 758년(경덕왕 17)에 발징(發徵)화상이 중건하고 정신(貞信) 양순(良順) 스님 등과 함께 염불만일회를 결사하면서 절의 면모가 일신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는 규모가 대단히 커서 스님 31명과 재가불자 1820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건봉사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염불승 31명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 극락왕생했다는 이야기는 신라시대 정토신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말해준다.

임진왜란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찾아 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면서 건봉사는 다시 사격이 확장 되었다. 1802년(순조2)부터 32년간 지속된 제2차 염불만일회를 통해 다시 정토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나 거듭되는 화재로 절의 규모는 확장되지 못했다. 건봉사는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 동안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에 갇혀 있었으며 1989년 이후 출입이 허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건봉사는 염불만일회라는 거대한 염불결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고찰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위치가 강원도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조선 선비들의 경우 관동팔경과 금강산 유람을 하며 건봉사를 지나다녔으므로 건봉사를 주제로 한 시를 남기곤 했다. 그래서 건봉사를 주제로 한 시편들의 대부분이 고찰의 경치나 역사 유적을 읊은 것이다.

노승행주지고암(老僧行住只孤菴)
미대산광어대람(眉帶山光語帶嵐)
금일위수망반일(今日爲誰忙半日)
백두정절배심참(白頭旌節倍心慙)

노승이 머무는 곳 다만 외로운 암자
눈썹은 산 빛, 말씀은 아지랑이를 두른 듯
오늘 반나절 무얼 그리 바빴나?
흰머리 절도사 노릇 부끄러운 맘 더하네.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은 1639년에 강원 관찰사에 제수되고 이듬해 금강산을 유람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건봉사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제목은 ‘관해의 운을 빌어 건봉사 노승에게 주다[次觀海韻 贈乾鳳老僧]’. 이명한의 문집 〈백주집(白州集)〉 제4권에 실려 있다. 관해의 운을 빌었다는 것은 관해(觀海)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금강산 유람을 하며 지은 〈동유록(東遊錄)〉에 실린 시 ‘모우하유점 증동행승(冒雨下榆岾 贈同行僧)’의 운자를 빌어다 썼다는 의미다.

시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건봉사 암자의 노스님이고 한 사람은 시를 짓는 이명한 자신이다. 첫 구절의 외로운 암자는 건봉사에 소속된 암자이거나 독립된 스님의 거처를 의미한다. 이 고요한 산사에 당도한 시인은 비록 절도사의 신분이지만, 무상한 인생을 놓고 보면 한갓 중생에 불과하다.

고요한 암자에 거처하는 노스님은 눈썹이 산 빛을 닮아 있고 말씨마저 아지랑이처럼 신비롭다. 초세간적 공간에서 만난 출세간의 풍모를 보는 시인은 허망한 세속의 일로 분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산사라는 공간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 자체로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동남월출해운심(東南月出海雲深)
고사삼송협로음(古寺杉松夾路陰)
오여노승동불매(吾與老僧同不寐)
불전잔촉조고음(佛前殘燭照孤吟)

동남쪽 달 떠오른 구름 낀 바다
고찰의 삼나무 소나무에 그늘져 좁은 길
이 몸과 노승은 함께 잠 못 이루고
부처님 앞 촛불 외로운 읊조림 비추네.

이 역시 이명한의 시인데 앞의 시와 같은 때에 건봉사에서 쓴 것이다. 제목은 ‘건봉사 문상인의 시축에 쓰다(乾鳳寺 書文上人軸)’이다. 앞의 시가 건봉사에 도착하여 풍경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술회한 것이라면, 이 시는 늦은 밤이 시간적인 무대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외로움을 생의 무상함에 담아내고 있다.

첫 구와 둘째 구에서 묘사되는 달이 뜬 산사와 구름 낀 바다, 무성한 삼나무 소나무 그늘로 인해 좁아져 보이는 길의 대비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애환을 닮아 있다. 그리하여 자신도 노승도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심경은 결구에서 극에 달해 고독과 근심을 타고 남은 촛불[殘燭]과 외로운 신음소리[孤吟]로 일체화 하고 있다. 시인은 건봉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벼슬살이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듯하다.

무상 일깨우는 물소리 바람소리

이인엽(李寅燁 1656~1710)의 경우도 금강산을 유람하는 길에 건봉사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시를 남겼다. 그는 36세 되던 해(1691년) 가을에 건봉사를 거쳐 금강산을 유람하고 12월에 전라도로 암행어사를 제수 받았다고 한다.

야숙백운사(夜宿白雲寺)
한종시자면(寒鍾時自鳴)
전임유간고(殿臨幽澗古)
월도상방명(月到上方明)
산취의삼윤(山翠衣衫潤)
풍천침점청(風泉枕簟淸)
고등급불매(孤燈伋不寐)
만예청추성(萬壑聽秋聲)

잠 든 산사엔 흰 구름 떠 있고
차가운 종소리 때 되어 절로 우네.
전각에 임한 옛 골짜기 그윽하고
달은 높이 떠올라 밝구나.
적삼에 젖어드는 푸른 산
대자리에 누워 바람 소리 물소리 듣네.
외로운 등불에 잠들지 못하는데
계곡 가득 가을소리 들리네.

이인엽의 문집 〈회와시고(晦窩詩稿)〉에 실린 이 시도 가을밤의 고즈넉한 건봉사 풍경과 그 속에서 세간의 덧없음을 느끼는 선비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산사는 그 풍경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인가 보다.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부산역 상담센터
문의 : 1899-8108. 010-9229-380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0 ~ 8/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수트라(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3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6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7	행복한 사문이 전하는 시간의 선물	성원	담앤북스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법성게 강해	김상백	운주사
10	아함경	학담	큰수레



과학에서 불교, 불교에서 과학을…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5천원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현대 학문은 무엇일까? 철학, 종교학, 물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불교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학문은 생물학이다. 그 중에서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를 갈파한 찰스 다윈(1809~1882)의 진화생물학이다.”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 즉 사성제를 발견하신 부처님(왼쪽)과, 이 가운데 고와 집의 진리를 입증한 찰스 다윈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이 불교와 만났다. 책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발견한 사성제, 과학이 발견한 모든 생명체의 생로병사의 본질 등 과학과 불교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하여 과학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발견하고, 불교 속에서 과학을 발견하는 교양과학서다.

최근 들어 생명체의 형태는 물론이고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까지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공학과 뇌과학의 눈부신 연구 성과들이 이런 시도가 합당하는 점을 뒷받침한다. 앞으로 언젠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많은 내용들이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의 언어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종교 역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과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세계관을 수정하든지, 과학과 대립하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불교만은 예외라고 말한다. ‘불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이며, 외부에서 주어진 ‘도그마’가 아니라 부처님에 의해 ‘발견된 진리’로 현대과학과 방법론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학’ 역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학(神學)’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각학(覺學)’이기 때문이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 또는 대척의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과학을 도구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삼라만상과 중생의 생로병사에 대한 심오한 사유와 통찰의 결과물이며, 그런 만큼 과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오히려 더욱 설득력 있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다른 종교는 힘을 잃어가는 데에 비해 불교의 진리들은 오히려 과학을 통해 하나하나 증명되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책은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을 증명하는 과학, 그 중에서도 진화생물학과 그리고 뇌과학과 관련된 특정 주제 가운데에서 쉽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과학적인 이야기 47가지를 모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근하는 동시에 과학적 호기심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서적인 동시에 교양과학서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이해에 진화생물학 유용해
종교 미래, 과학 수용여부에 달려
불교는 예외 과학과 방법론 같아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 증명하는
생물학 뇌과학 관련 이야기 47
세 분야 통섭한 혁신적 과학교양서

“사람을 비롯해 동물의 형태는 왜 좌우가 대칭인가?” “왜 이목구비가 얼굴에 몰려 있는가?” 이런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책은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의 비밀’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명쾌하고 심오한 답을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현대생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이나 짐승 모두 생로병사한다. 또 뇌과학에서는 자아(또는 영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접근하고 있다.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는 착각은 뇌의 전두엽에서 형성되고, 몸으로서의 내가 있다는 착각은 두정엽의 쐐기전소엽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자아는 뇌에 형성된 신경회로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 인간과 자연의 본질에 대해 과학적으로 천착할수록 불교를 만나게 되고, 거꾸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수록 현대의 과학 이론들이 떠오른다. 저자는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언어로 불교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현대 과학이 인간의 탐욕과 분노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과 세계에 대한 불교의 통찰이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미래에 언젠가 온 우주를 포괄하는 보편종교가 생긴다면 그런 종교에서 기대할 만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격신 따위를 믿는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며 어떤 도그마도 고집하지 않고 모든 신학 세계를 배격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괄합니다. 또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를 의미 있는 하나의 통일체로 체험하면서, 그런 체험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감(感)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인식의 한계’를 밝힌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만년의 회상〉이라는 수상록에서 밝힌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칙은 정신과 물질, 삶과 죽음, 생명과 세계, 선과 악, 즐거움과 괴로움 등 우리가 알고, 짓고, 겪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물리학의 ‘통일장 이론’에 비교된다. 책은 불교학과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이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세 분야를 통섭하여 풀어낸 혁신적인 과학교양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게송은 깨침의 순간 터지는 호흡과 노래

오도에서 열반까지

진옹월성 지음 | 사유수 펴냄 | 2만원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일어나고 / 마음이 멸하니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 만 가지 현상이 오로지 식일 뿐이네 /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원효대사의 오도송이다.

책은 오도송을 문자로 처음 남겼다고 할 수 있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에서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쉰여섯분의 스님이 남긴 오도와 열반의 기록인 오도송과 열반송을 소개한다.

오도송과 열반송은 불교의 가르침을 짧은 시구로 드러낸 게송(偈頌)이다. ‘게’와 ‘송’은 같은 의미인데, 게는 산스크리트 가타(gatha)의 음을 따서 만든 말이고, 송은 가타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 중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 오도송(悟道頌)이며, 임종(臨終) 전에 남겨 놓고 가는 노래가 열반송(涅槃頌)이다. 불교수행의 궁극인 오도와 열반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불자 또는 마음공부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오도송은 깨달은 상태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깨침이 드러나는 자연스런 노래이다. 또 열반송은 선사들의 평생 치열한 수행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농축하여 세속 사람들에게 전하는 심심미묘법이다. 따라서 오도송과 열반송은 후학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부를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는 사자후라 할 수 있다.

선가에서는 선시에 대한 ‘해설’을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다. 깨달음의 길이 어렵듯이 스님들이 남긴 오도송과 열반송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저자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아름답습니다. 산은 산대로 높기도 낮기도 하고, 물은 물대로 깊거나 얕거나 합니다.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더라도 각자 인연과 뜻을 잘 찾아 자신의 여시아문에 맡기면 되겠습니다.”고 당부한다.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지라 / 둥근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다.

오도송과 열반송은 머리로 풀이하거나 분석하는 글이 아니다. 깨침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호흡이고 노래이다. 저자는 불필요한 해설은 자칫 우를 범하는 사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해설 대신 그들의 행장을 실었다.

박재완 기자

〈법성게〉 제대로 알면 ‘깨달음’ 가까워져

알기 쉬운 법성게

의상대사 지음 | 허원당 무진 해설 | 심미안 펴냄 | 7천원



광주불교방송 법사회 회장이자 라한산 정토선원 선원장 허원당 무진 스님이 의상대사의 게송인 ‘법성게(法性偈)’를 해설한 〈법성게〉를 출간했다.

〈법성게〉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쓴 게송이다. 일곱 글자로 만들어진 구절, 30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모두 210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법성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법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송집이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송집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수행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한 마디로 법성(法性)을 깨닫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는 법성을 깨닫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성게〉는 중요한 게송집이다.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를 지낸 무진 스님은 “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모아 만들어진 천도재나 49재 염불문의 마지막에 법성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마음의 눈을 뜨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불자들의 최고 목표인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고, 그 경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 무엇을 하려는지 등을 가르쳐 주는 게송이 바로 〈법성게〉인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불자들이 〈법성게〉를 입으로는 잘 익혔지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봉독하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출간의 동기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그 뜻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법성게〉는 법성게는 어떤 것인지, 법성게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연원, 의상대사, 법성게의 구성, 해설, 전문 등 총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상대 신경 쓰느라 본래 자신 잃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김혜진 옮김 | 더난출판 펴냄
1만3천원



우리에게 친근한 힐링 멘토로서 그동안 〈생각 버리기 연습〉 〈화내지 않는 연습〉 등 현대인에게 필요한 충고를 부처님 말씀을 빌려 전해온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이번에는 새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제목은 〈있는 그대로의 연습〉이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는 욕구를 불교서 '유애(有愛)' 라고 부르며,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는 탓에 언제나 긴장상태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타인의 평가로부터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돼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고 코이케 스님은 분석한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강하고 아름다운 부분뿐 아니라 약하고 추한 부분도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이 책에서 전한다. 또한 저자는 세상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말하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선인과 현자들의 지혜를 엄선해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최초 불교 경전인 〈숫타니파타〉와 〈법구경〉 등 불교 관련 고전과 〈채근담〉 〈노자〉 등 동양의 고전을 아우렀다. 여기에 달라이 라마 14세, 틱낫한 스님 등 현 시대에 사는 세계적인 선지식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이외에도 고대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아우렐리우스부터 라캉, 피아제 등 심리학자들의 이론까지 두루 살펴 현대인이 겪는 고민거리들에 해법이 될만한 조언을 들려줘 누구라도 읽기에 거부감이 없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 1장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에서는 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를 파고든다. 인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받는 무조건적 인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 집단 속에서 일정 조건을 통과해서 받는 인정이다. 후자의 경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통된 기준이 있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열심히 길을 찾으려 노력하다 지친 사람들이 결국 사회적인 인정보다는 전자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 결과 주변 사람 눈치만 살피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타인에게 맞춰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고는 자괴감에 빠진다.

코이케 스님의 원초적 자신 되찾기
유애 욕구, 인생에 가장 큰 괴로움
자가치유적인 해결책 제시

3장 '너무 애쓰지 마라' 편에서는 불교서 '갈애(渴愛)' 라고 부르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갈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서 시작되는 것으로, 자신이 인식의 중심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욕망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인식할 때 중립적일 수 없고 '나' 라는 필터를 반드시 거치면서 생겨나는 온갖 감정에 휩쓸려서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자신이 사실은 나약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3장의 핵심이다. 마지막 4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에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며, 좋은 의미의 '포기' 를 설파한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따라서 실패하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자괴감에 빠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나' 라는 필터를 빼고 관망하라는 것이 코이케 스님의 조언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자신을 목표로 너무 힘들게 노력하느라 괴로운 현대인들에게 주는 조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타인보다는 자기 내면의 집착, 즉 '나' 라는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생겨나는 '타자' 의 존재,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은 본능 등,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며 위로해주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도 조언한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다른 나 자신을 만들려고 괴로움에 빠지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은 시들은 이해되기 전에 먼저 느끼게 한다

시의 황홀

고은 지음 | 김형수 엮음 |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1만6천원



이 책은 고은 시인 〈사진〉의 반세기 문학인생서 길어 올린 수작들이 다수 들어 있다. 1958년 고은 시인이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할 때 추천작 중 하나인 〈천은사운〉부터, 가수 양희은에 이어 재즈가수 나윤선이 노래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세노야〉, 미국 시인으로 퓰리처상 수상자인 게리 스나이더가 고은만이 쓸 수 있는 시라고 극찬한 단시(短詩)들이 들어 있다. 또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써내려간 〈구름에 대하여〉와 같이 역사의식이 첨예하게 살아있는 작품, 2013년 만 여든의 나이에 반년간 집필한 607편의 시를 출간해 화제가 된 〈무제시편〉의 주요작까지, 최종적으로 100편의 시를 선별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국민시인' 고은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정수만을 가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시들을 읽기 쉽게 다섯 개 장으로 나뉘었다. 제1장 '그리운 그대에게' 에는 사랑과 관련한 시, 제2장 '생의 적막과 소란 속에서' 에는 삶과 관련한 시, 제3장 '귀뚜라미야, 너도 싸우고 있구나' 에는 상처에 관한 시, 제4장 '봄이 오면 새싹들이 들판을 호령한다' 에는 치유에 관한 시, 제5장 '나는 출항한다. 뱃머리에 서있으리라' 에는 희망과 관련한 시가 담겼다. 나아가 문학평론가 김형수가 시에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는 창작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고, 시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전달한다.

이 책을 엮은 김형수 문학평론가는 말한다. "삶은 한순간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적이 없다. 고은시인의 언어가 마술 같은 것은 '앎' 과 '모름' 이 언제나 한 몸에 깃들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짧은 생의 한순간을 온몸으로 울고 있는 새와 대략 7천만 광년쯤 떨어져 있는 별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은 별이 아니라 그 별의 유령이라 할 별빛뿐이다. 그것들에게서 생명의 황홀을 감득하는 자의 완벽한 도취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는 극적인 순간의 광채를 발휘한다."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유독 고은 시인의



작품을 즐겨 읽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광고기업 TWBA의 박웅현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저서 〈책은 도끼다〉와 강연을 통해 수차례 고은 시인의 시를 즐겨 읽는다고 밝혔고, 최근 '잘생겼다' 광고로 히트를 친 SK텔레콤의 광고전략을 총괄하는 남상일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장은 광고카피 '잘생겼다' 가 "잘생겼다는 말은 '잘났다' 와는 다른 말이다. 생겨나 줘서 고맙다는 말이다"라는 고은 시인의 글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학평론가 김형수는 고은의 시인 등단 50주년 때 기념 작품집을 엮으면서 고은 정신의 요체를 "50년 동안의 사춘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인간의 감수성이 파란만장의 충동에 휩싸여있을 때요 한 존재가 천방지축으로 요동치는 때, 한 삶이 그런 비상시국 같은 찰나를 50년 동안 지속했다는 사실을 빼고는 고은이 그토록 방대한 시를 남긴 경위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 시인 또한 이 책에서 자신의 시 세계를 직접 설명하는 〈고은의 시 이야기〉를 통해 창조적 영감의 근원과 생성과정을 설명하고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의 내면의 마그마는 저 우주에 산재하고 있는 암흑물질 가운데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들의 가능성과 연결되기를 꿈꾼다. 그래서 나는 항상 뜨겁다. 나는 내 무수한 시들의 어제 그제 없는 가난과 내 시들의 내일 모레 글피의 무일푼으로 시 이전을 산다. 마침내 한 편의 시가 오리라. 그렇게 오는 나의 시가 나이다. 나는 없다."

무엇보다 이 책에 나오는 시구들은 읽는 이의 마음을 무척 따스하게 해준다. 슬며시 독자를 문학세계 깊은 곳으로 이끌어, 문학의 치유적 힘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국밥을 사 먹는다"

세월호 사건 때 SNS를 뜨겁게 달궜던 무제의 시이다. 얼마 뒤 이 시가 고은의 오래된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 현장에서 국어교과서, 대중가요, SNS에 이르기까지 고은 시인의 작품이 한국인의 삶 곳곳에 스며있는 까닭이다.

김주일 기자

"마음 교육은 어지러운 세상을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방법"

달라이라마 행복의 지혜

달라이라마 | 빅터 챈 지음 | 진우기 옮김
반니 펴냄 | 1만 3800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승려이지만, 불법(佛法)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접근법에 의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그렇기에 그의 이야기와 논리는 현실적이고 명쾌하다. 그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비심을 지니며 교육을 통해 더욱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무자비한 독재자도 자비심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이념이나 환경 등의 요인으로 두려움과 분노가 자랐고, 그 결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마음 교육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자비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자라게 해준다. 이를 통해 자비심의 가치와 분노와 증오의 유해성을 깨닫게 되고, 자비심은 지혜와 지성을 더욱 건설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달라이 라마가 강조하듯, "사랑은 두뇌를 키우고, 두뇌는 사랑을 키운다."

그렇다면 평화의 시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한 평화는 개인이 내적으로 평화로워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열어갈 젊은 세대에게 내적 평화를 얻고 자비심을 키워 '우리' 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확립하게끔 마음 교육을 해야 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쇼너트 라이힐 교수는 마음 교육이 집중력을 키워주고 감정과 행동을 잘 제어하게 해주며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달라이 라마는 나날이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낡은 방식으로는 풀 수 없으므로, 다가올 세대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 교육이야말로 눈으로 보이는 성취를 신앙처럼 추종하는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자비는 불교에서만 쓰이는 종교적인 말이 아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이다. 달라이 라마에 의하면 자비에는 두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훈련이나 교육, 지혜나 지식이 필요 없는 자연발생적인 자비다. 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그런데 이런 자비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한순간에 증오나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욕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비는 편견과 차별을 지니게 된다.

두 번째 차원의 자비는 이해와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상대방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역시 인간이며 나와 똑같이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으며, 행복해질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 진리를 체득한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고 이타심을 지니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이 뿌리내린다. 이것이 참자비로, 적마저도 동등하게 대하고 이해하게 한다.

특히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은 남의 감정에 공감하는 힘이 커지는데, 숙련된 사람은 지적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강력한 공감과 자비의 파장을 만들어낸다. 이는 케크연구소에서 행한 실험에서도 드러나는데, 명상을 통해 지극한 행복을 느낀 사람이 남에게 더 많이 공감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 와 '남' 의 경계는 명확치 않다. 그러므로 친하거나 잘 알

명상 오래하면 공감의 힘 커져
비폭력과 정당성, 공감 큰 비결

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감하며 동일시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는 단순히 유명 인사이거나 승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친 수행의 덕이기도 하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손을 내밀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선한 파장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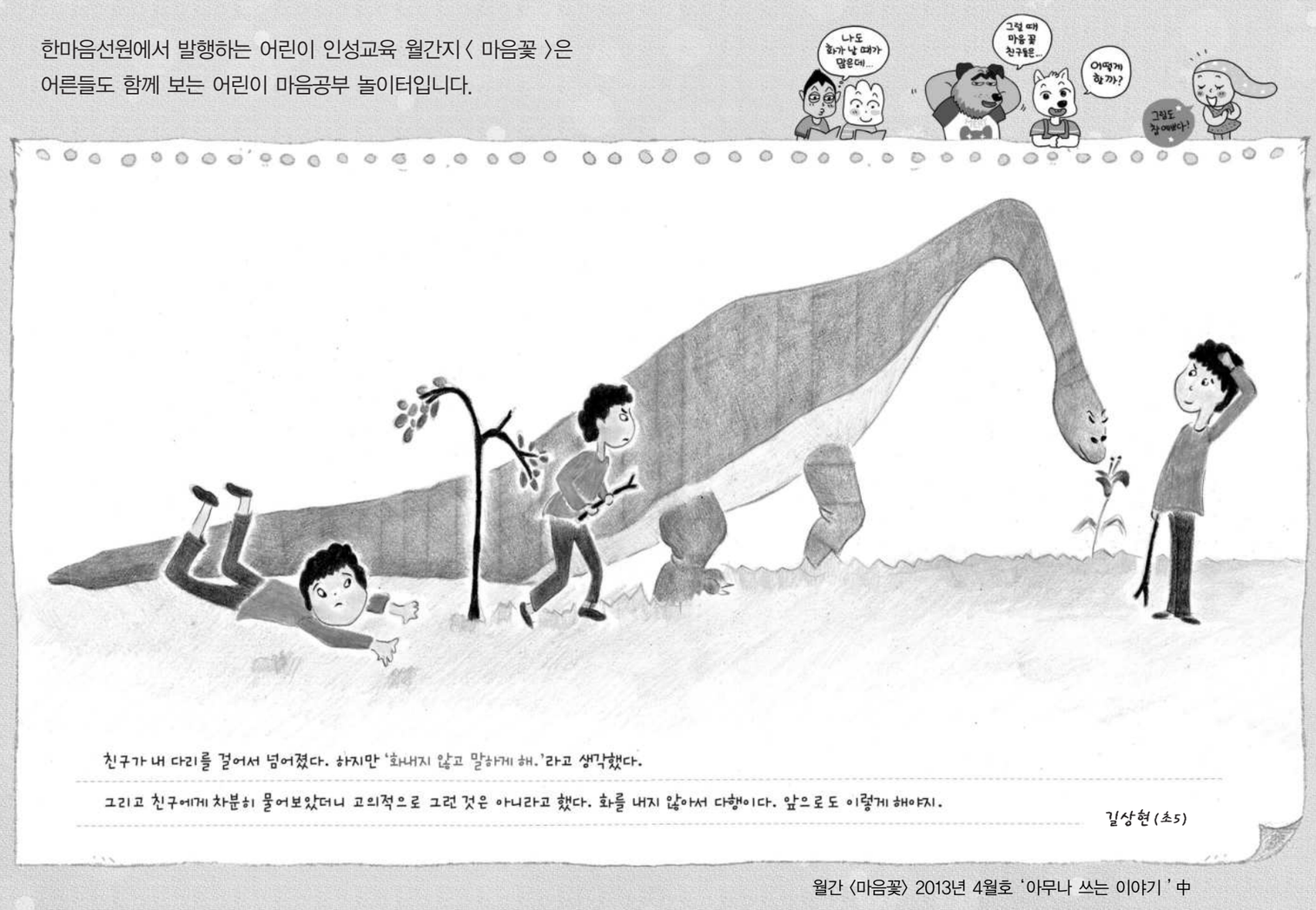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도 50년이 지났지만, 그는 중국이나 중국인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물론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참자비의 마음으로 적마저도 인간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 대한 압제적인 통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도, 달라이 라마는 비폭력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고 전 세계에 티베트의 독립을 호소했다. 그에 반대하여 젊은이들이 판첸라마를 중심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려 하기도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끝까지 비폭력이어야 정당성을 얻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비폭력과 세계 평화를 향한 의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달라이 라마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그의 놀라운 영향력과 인품 때문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 中

마음꽃 피어라, 웃자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세상 아픔 이해해야 고통서 벗어난다

불교로 읽는 古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김 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불교를 서양철학에 체계적으로 접목시킨 최초의 철학자다. 그는 삶을 '고통'이라고 봄으로써 비관주의 혹은 염세주의 사상가로 널리 알려졌으나, 불교의 세계인식이 고통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그 해방을 지향하는 것처럼, 그 역시 의지의 절대부정을 통하여 고통의 근본 소멸을 추구했던 만인구원의 사상가였다. 삶의 세계가 고통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연민, 동정, 동고(同苦)의 감정을 바탕으로 고통의 절대해체를 기획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두드러졌던 것은 아니다. 그의 '고유사상'은 1813년의 저술 〈충족근거율의 네 뿌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사상의 근본은 칸트의 비판철학이다. 그는 지성의 순수개념인 12개의 범주들을 인과성으로 환원하고자 했다. 결국 생성, 인식, 존재, 행위가 인과성 안에 그 충족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들은 비록 우연적이기는 하지만 불교의 연기설(緣起說)과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초기사상은 상호의존적 창발이라는 연기설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14년에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에서 헤르더의 제자인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로부터 〈우파니샤드〉를 소개받았다. 베단타와 힌두교 사상은 그에게 이미 낯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유사상이 유럽이 아닌 미지의 땅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가 보기에 신약성서의 역사적 원천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시아였고, 그리스도교의 뿌리 역시 유대주의가 아닌 브라만주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인도야말로 '가장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지혜의 땅'임에 틀림없고, 그리스도교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 지중해 연안으로 퍼졌던 불교의 한 지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쇼펜하우어의 불교 예찬은 유럽문명의 기원을 고대 이스라엘이 아닌 인도에서 찾으려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유럽정신의 기원을 그리스도 대신 디오니소스로 규정한 니체의 권력의지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초판, 1818)〉는 아직 불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초판 서문에서 자신의 '고유사상'이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 사상이라고 그 세 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베다', '우파니샤드', '산스크리트 문헌', '고대 인도의 지혜' 등을 언급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쇼펜하우어는 이때 이미 스스로를 '불교주의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럽에서는 불교 소개서가 극소수였고 단편적인 것들뿐이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역시 칸트처럼 여행기나 동양 소개서 정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학술지 역시 〈아시아 연구〉의 초창기 발행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
연기 · 사성제 유럽적 해석

인식은 직관 · 지성의 결과
"세상은 곧 나의 표상이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同苦 실천… 고통 해결 가능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불교를 서양철학에 체계적으로 접목시킨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불교를 탐구했던 그의 천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본 정도를 활용하는데 그쳤을 것이다.

1844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은 원고량이 배가되어 두 권으로 발행되었고, 1859년의 3판은 2판보다 136쪽이 더 증보되었다. 이 책들에서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개진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그 사이에 불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에서의 불교는 제2판(1844년)이 간행될 무렵에 활발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쇼펜하우어가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는 우팜의 〈불교 교의(1829)〉, 뵈르누프의 〈인도불교사 입문(1844)〉 등이 출간되었으며, 그 이후 스펜스 하디의 〈불교입문(1853)〉, 줄르 바르텔레미 셍틸레르의 〈붓다와 그의 종교(1858)〉가 간행되었으며, 막스 뮐러, 헤르만 올덴베르크, 에드윈 아널드, 리즈 데이비드 등의 불교 저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에 〈충족근거율〉 2판(1847), 〈자연에서의 의지〉 2판(1854),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3판(1859)을 줄지어 출간하는데, 여기에서 그의 고유사상은 기존의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 이외에도 불교적 지평으로 확대되었다.

1847년에 출간된 〈충족근거율의 네 뿌리〉 2판에서 쇼펜하우어는 세계창조자이자 인격적 통치자인 신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비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갖는' 불교가 관념론적, 금욕적, 무신론적 종교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삭 야콥 슈미트의 중앙아시아의 고대 교육(1824) 및 영지주의와 불교의 관계(1827)에 대한 두 저서와 우팜의 번역서(1833), 그리고 선교사 귀츨라프(Carl F. G?tzlaff)의 〈중국제국사〉와 홍콩 총독 데이비스의 〈중국인(1799)〉 등의 문헌을 소개하고 있지만, 불교의 주요 교리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1854년에 출간된 〈자연에서의 의지(1836)〉 제2판, '중국학'을 다루는 곳에서 불교 이해에 도움을 받았던 자료 총목 26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가 아마도 이 시기에 불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뵈르누프, 스펜스 하디의 불교서 이외에, 연유를 알 수 없지만 2판 발행 시점보다 늦은 두 권의 서지목록이 들어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칼 프리드리히 쾨펜의 저서 〈붓다의 종교와 그 성립(1857)〉이다.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불교 저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 그가 불교를 그의 고유사상의 한 축으로 확장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비구 나나지바코는 〈쇼펜하우어와 불교(1970)〉에서 '사성제'를 중심으로 〈충족근거율〉,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수고 유작〉 제1권(초기원고), 〈자연에서의 의지〉 등의 저술에서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나나지바코는 쇼펜하우어가 주로 소승불교의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불교의 초기 문헌들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헬무트 글라세나프도 〈독일사상가의 인도 이해(1960)〉에서 쇼펜하우어와 불교의 핵심사상이 전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붓다 혹은 소승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 불교를 융합한 것이고, 특히 후기에 불교의 지평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동고와 의지부정을 보완하고 자비를 중시함으로써 대승불교의 이념까지 반영했던 것이다.

그의 사유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다. 모든 인식은 세계 실재가 주체의 직관과 지성에게 드러난 것, 즉 표상일 뿐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따라서 의지는 알 수 없는 사물자체가 아니라, 모든 현상의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이다. "세계는 의지 그 자체이다." 쇼펜하우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즉 칸트가 사물자체로 여겼던 것을 의지로 규정하고,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표상이라고 보면서, 의지가 특정한 개체 안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원리를 개체화와 충족근거율로 설명하고자 했다.

현상의 세계 배후에 존재하는 의지 자체는 개체화의 원리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개체로 분화하고, 그 각각의 존재는 삶에의 맹목적 경향성을 가진 의지의 절대긍정을 통하여 최대 확장을 도모한다. 세계고(世界苦)는 본질적으로 의지긍정의 산물이다. 그런데 니체는 의지의 절대긍정에 집착하여 권력의지, 곧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초인(위버멘쉬)사상으로 포장하였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니체는 타자의 고통을 강화하는 잘못된 길을 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부정은 곧 개체화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마야의 베일, 즉 우주적 환상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나'라는 개체성의 환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그 고통스러운 실존적 조건을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미적 관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조의 기쁨은 개인의 완전한 무화(無化)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진정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고통으로부터의 전적인 해방은 오직 삶의 의지 자체의 완전한 소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고통과 재난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동고'(同苦, Mitleid)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만이 고통의 근본 치유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체화의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삶을 긍정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향락을 거부하고, 마음속에 더 이상의 분노나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붓다와 예수의 자기희생을 의지부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일치한다. 이 사상의 원형은 베단타인데, 우파니샤드에서 "너는 그것이다"라고 기술한 것, 즉 아트만과 브라만의 일치(梵我一如) 상태를 뜻한다. 의지철학은 베단타와 불교의 조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쇼펜하우어는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에서 사랑, 연민, 동정, 정적주의, 금욕주의, 신성성 등과 같은 수행적 지향성과 모든 성인들의 실천을 자신의 철학, 즉 고유사상으로 이론화했다고 자부하였다.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은 불교 연기설과 사성제에 대한 유럽적 해석이기도 하다. 무아(다르마)와 윤회(카르마)의 모호한 관계는 유럽인들의 불교 이해를 어렵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붓다의 다르마설은 1918년 독일계 러시아인 오토 로젠베르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그 진의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붓다의 사상은 실천 주체의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아설과, 자아의 전제 없이는 수행적 실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윤회설 사이에서, 모호하고 심지어는 모순적으로 보이기조차한 아포리아를 함축하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신적 세계원리에 의한 구원론이 아닌, 타자의 고통을 동고(同苦)의 차원에서 접근한 동정, 연민, 희생, 자비의 윤리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의지부정은 실체의 절멸로서의 무아 또는 허무로서의 열반이 아니고, 단순한 무의욕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에서는 가아와 진아, 속제와 진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지의 서로 다른 표상들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식 주체로서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이 윤회한다고 보았다. 어떤 것이 죽더라도 의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의지는 새로운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지성과 새로운 존재를 갖는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윤회가 아닌 재생이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이 새로운 탄생을 불멸의 의지 자체에 도달하려는 갈망의 표현으로 읽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존재의 의지긍정은 고통을 초래한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탄생을 통하여 정제된 삶은 오직 의지의 절대부정의 방식으로만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개별의지의 절대긍정과 절대부정 사이의 간극조차도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의지의 절대부정'은 붓다와 예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희생으로 인류구제를 목표함으로써 사실상 '의지 자체의 절대긍정'(보존)과 다르지 않다.

그와 반대로 니체가 강조한 '의지의 절대긍정'은 바그너와 히틀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라는 악마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의지 자체의 절대부정'(절멸)과 다르지 않다.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은 동고의 감정에 기초한 의지의 절대부정 사상으로 칸트와 플라톤, 베단타와 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아우르려는 거대한 기획이었으며, 그의 사유실험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향다원

지월 법사의
사주학 강의
사주상담의 전문가 시대를 선언!
지월법사의 옥문관 사주학 강좌
신강신약론과 격국용신론 신살론의 뿌리를
뒤엎은 옥문관사주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사주학. 격국용신론
10년, 20년을 해도 아리송한 사주학을
붙들고 지낼 것인가?
조상타령 귀신타령 빙의타령하는 사주학이 사주학인가?
사주를 보고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주학입니다.
교재 "운명그물음에 답하다."
사주학과 운명 상담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출구
010-2395-0472 지월 최명진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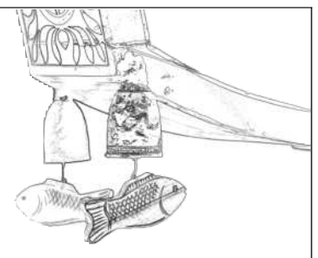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식과 보물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으로 인도해야 곧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 부사의광보살소설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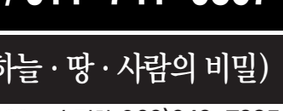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수능 상담 무료
가족의 기운을 받자
기적의 촛불기도
하루 3천원,
축원문 쓴 당일까지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041)544-4441
한학선원 (마루대절)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일체 무상 보시해 드립니다
팔공산 어산 40년 전통전문의식
천도재(49재), 예수제,
기초교리강좌
법문, 회심곡, 방생법회,
바라, 승무
무릉선원
010-6577-8385
010-6513-05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남원)
063)635-2489
010-2245-17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지역)
010-5269-93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장례식장 염불. 49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금 50만원. 불전소유
장례시 염불은 20만원
독경할 스님 3분 초청
신분증, 주민등록사진
보증금 2천만원, 1년계약
070-8849-3011
사회적 상부상조 협업

각종비법 지도
재택수업 가능
사암, 포교원 종도등록
창종 14년
저서 100여권. 동방진인
각종 비서와 단자보급
02)907-5858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손빛 기치료.
의료기공사(묘심기공)
010-4611-1296
강좌 : 사주 및 역학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무료제공
010-8477-7952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지하철 신설동역 11번 출구 직진 100m
kkh50123@naver.com

부전스님 모십니다
처사님 모십니다
(경북 문경)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도법 : 사주비술 : 현공풍수 : 천신기 전수
역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은데 왜? 도사는 나오지 않는가 누구한테 배우면 금전과 시간낭비 스승을 만나는 것 쉽지 않다.
신명같이 운명 예측가능하면 초염력역학 풍수 도사가 되느니라.
■ 개강 : 2014년 9월 13일(토)(일) 주간, 야간반 13시 ~ 20시까지
■ 종합개인지도. 수시모집 (4개월 과정)
■ (1) 사주, 작명, 래정장자비술 (2) 현공풍수, 수맥, 명당찾는법
(3) 빙의, 영가천도, 기받는법, 치유법 (4) 전통활기법(통증, 난치병완쾌)
장소 : 서울 전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혜민병원 뒷길
약 400m 사거리 국민은행 가기전 24편의점 뒷집 대흥사
대흥사 : 02)447-3789. 010-6350-3789
* 도사나 도인이 되실 분, 배우러 오시라요.

지리산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천도재 20만원,
제사 20만원,
49재(77재) 140만원
천도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010-8412-7623
문수암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산새가 울고 물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수정사에서 암투병 환자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모십니다
제사한 사항은
031)333-5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

불심이 깊은
독신자 60대
주지 보살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모 십 니 다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지역에 연고나
포교와 수행에 뜻이 있는
스님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대중포교에
큰 뜻이 계신 스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 모시는 나이 : 50세이상 60세까지
상담전화 02)552-4000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습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고교미필자 ·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 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 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1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2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3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4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5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6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7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8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귀의할 곳을 만들어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로워져라. 마음의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다가서지 못한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지하철 1분거리내 사찰
- 위치 : 부산
- 총부지 : 207평
- 건평 : 100평 법당,요사채,방7개
- 땅일부 상업지
- 3억 3천인수 (은행 : 3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 위치 : 부산 금정구
- 대지 : 1,000평
- 건물 : 법당, 용왕당, 노상부처님 요사채, 방6개.. 주차장
- 몽땅 : 1억 7천(스님 사정으로..)

※필히 방문 상담, 전화상담요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초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지적 4,460평 종교부지 838평, 전 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들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광진 불사 사찰 안내

◎위치:전남토굴 ◎위치:경남토굴
◎부지:200평 ◎부지:200평
◎인법당:30평 ◎인법당:30평
◎요사:30평 ◎차량진입,풍광안대최고
◎양도가 : 4,000만원 ◎양도가 : 4,500만원

※ 40년신용과 전통으로 일합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비밀보장>

*포천시 전망좋은 사찰양도
*건물 3동 340㎡ 법당, 요사, 공양간
*토지 2200㎡.산속이며 조용한 사찰
*양도금액 : 5억원(융자가능함) 실인수가 3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 (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20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전철역에서 5분거리 교통 정말 편리합니다
- 평수 : 107㎡ (32평)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 및 비품은 상담후 조정
-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32)881-19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사정상 급양도(밀양IC근교)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010-3456-1153

수도권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평수: 2층 건물의 2층 80평
- 구조: 법당. 대방3. 주방거실. 욕실. 화장실. 가스보일러
- 서울근교 도심포교적지 아파트주변.검단산 등산로 입구
- 가액: 합 9천만원. 월 130만원

010-9669-1358

포교원 안내

- 위치: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A급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주불 아미, 관음, 지장, 소불, 인등
- 가액 : 전세 2천 월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비품대 및 시설비 1,700만원 약간절충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변산반도
- 뒤로는 소나무 숲이며 앞으로는 저수지도 있음
- 총평수 130평
- 요사채, 법당, 종각, 접견실, 미륵부처님, 산신당
- 가액 : 1억 6천만원

010-6478-1569

사찰불사로(급)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5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암자 부지 안내

- 위치 : 문경읍 고요리 산 123-2
- 면적 : 210평 건물 시멘트 단층 주택 16평
- 토지이용 :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역
- 가액 : 1억
- 지상물 일체 포함

010-8555-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역2길 12호 <물금역에서 2분거리>
- 건물 : 3층(3층건물) 옥상 50평 , 근린생활 시설
- 미타전:나무아미타불 2자반, 관세음 2자, 대세지 2자, 지장보살 입상, 대형 후불탱화, 별도 지장탱화
- 침실, 서재겸 큰방, 공양칸, 침대, 냉장고, 신장, 생필품 모두있음(책장외)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 40만, 비품 800만

010-6593-7982

사찰로 좋은곳(한옥)

- 위치 : 홍천 → 양평 서울방향 4차선 6번국도 옆
- 대지 : 800평, 사유지 1,000평 사용중
- 건평 : 약 100평, 순수 고건축 한옥, 큰방1, 작은방2, 대형주방과 홀
- 가액 : 상담 후(절충가능)
- 카톡으로 사진 전송 가능

010-8841-338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대지60평, 건평40평(2층건물)독채 시청,남부시장 걸어서 약5분,
- 삼존불, 소불, 연꽃크리스탈인등
- 신중탱화, 영가단, 법당연등설치
- 에어컨, 1.2층도시가스, 가스보일러 (시설비 일체무료로 드립니다)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심야전기 2,
- 삼존불, 소불, 108불, 신중칠성탱화, 집기일체양도
- 가액 : 일억삼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가정법원 등기소 전철역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거리 1분에서 10분거리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

010-8941-1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3577-9947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도청 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사찰, 연수원, 예술공방 최적지
- 자연경관최고, 천평, 황토건물 50평 2층
- 경내 500년 큰나무, 연못조경 옆큰저수지
- 오래된 돌담, 국유지 200평
- 가액 : 9억(전세가능)

010-9805-552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 약 800평, 임야 :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토굴월세/사찰전세

- 위치: 대구 주택가
- 토굴 54평
- 법당, 공양간, 방3개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300만원
- 도심의 사찰 전세도 구합니다

010-2168-28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급)안내

- 강원도 동해시 시청 옆상가 2층 독채
- 상가평수 50평(등기평수보다 넓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66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 시설비 : 1천5백만원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완비 방2개, 화장실 겸 샤워장 2개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소승 건강상 급 양도)

010-9018-6656

(신축)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 (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 (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 - 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전망최고, 대형 우물샘 있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시장 입구 삼거리 카도 버스정류소 시장부근
- 장소 최적
- 3층 중 2층, 28평, 법당, 주방, 욕실, 창고, 삼존불, 소불 108불, 에어콘1
- 보살님, 법사님도 안성맞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 지하철 역 도보
- 아파트, 상가 밀집, 20년 운영중(즉시 법회 가능)
- 4층 중 3층 50평(옥상사용가능)
- 시설(후불탱화, 불상, 종, 인등 등)
- 가액 : 전세 6,500만원 월세 2000만 / 65만, 답사후 결정

010-3221-047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건평 40평(도심속 한옥사찰)
- 시설최고, 15년째 법회 봉행중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9천만원(보) /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278-66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3분
- 2층 상가 60평 (법당 30평, 주택 30평)
- 앞 뒤 베란다, 도시가스, 주차장
- 가액 : 전세 7,000만(월세가능) 생활편리
- 시설비 : 1) 600만 2)1,800만중 택일

010-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 원주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도심권 사찰입니다 (상담) (영월, 시골집 무상으로 쓰실 분)
- 평창군 한탄리 산아래
- 주택 대 360평, 건평 25평 조립식
- 가액 : 1억 1,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시내중심
- 90평 2층 시설 특
- 주변환경 좋음
- 가액 : 보증금 3,000만 월 120만원 시설비 절충

010-5292-1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평시장 근처
- 약 100평, 삼존불 연등 300개, 방4개 법당용 부엌 공양간 따로 있음
- 창고 LED 등 일체 유동인구 많음
- 현재 비구니가 운영하고 있음
- 몸만 오셔도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 시설비 3,500만

010-8754-6762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 734평. 인법당 10평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약 30분, 도심속의 포교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마을지나 산을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량
- 법당 30평, 요사40평, 대지 465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03-051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사과향기 그윽한 시골. 토굴 양도
- 대지-326평(불사가능)
- 법당,요사채,삼존불,신중,칠성 각종집기, 귀농을 원하는분 최적지
- 공부하시는 스님, 방편하시는 보살, 최적지
- 가액 : 6,500만원(절충가능) 정부지원 5,000만원가능

010-4296-82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최요지
- 평수 52평, 부처님 오존불, 소불 108불
- 주차 3대가능, 쑥찜질, 방 1개
- 가액 : 시설비 2,000만원,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010-9988-7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 2개, 창고 : 2 개, 종무실, 최고의 시설, 시장옆, 전망
- 좋은 요충지. 오래된 포교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150만원 시설비 조금. 전화주세요

핸드폰 010-6722-2211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붓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5〉 위빠사나를 해야하는 이유

"서투른 판단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 부처님께서 위빠사나로 수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더러움을 알고 재산, 지위, 명예, 권력, 가족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출가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포기를 한 다음 칼라마와 웃다카 라마풋타 두 분의 스승들로부터 무색계 3선정과 무색계 4선정을 매우 빠른 기간에 완전히 익혀 스승들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높은 선정의 힘을 갖추었으나 진리의 깨달음과 모든 번뇌를 해탈한 경지는 오지도 않았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계 4선정인 '비상비비상처정(지각을 넘어 설 수는 있으나 지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는 경지)' 의 선정상태는 마음의 집중력을 최고로 높인 경지이지만, 집중은 마음의 평온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 잠재적인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닙바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물들의 본성(연기緣起)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선정의 단계라도 잠재적인 습성(번뇌)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정에 든 상태에서는 선정의 힘이 장애요인, 부정적 마음, 족쇄, 번뇌보다 강하기에 이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에서 깨어난 후에는 언제든지 마음을 더럽히는 감정과 생각들을 일으키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시 나타나 왜곡과 상상, 탐욕, 성냄, 갈애, 아만, 들뜸, 후회, 혼침, 욕망 등의 번뇌를 일으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갈망과 무명 그리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처님이 되신 것은 더 높은 선정이 아니라, 색계 4선정에서고, 모든 몸과 마음의 세 가지 특성인 아닛짜(무상無常: 항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하지 않고), 둑카(고苦: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불만족이며), 아낫따(무아無我: 고정불변은 없고, 의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로써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오온의 팽창이 멈추어 모든 것이 단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완전히 아셨을 때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위빠사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번뇌를 다스려야 하는지요?

위빠사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서 무명, 탐욕, 성냄, 불만족, 근심, 걱정, 집착, 갈망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을 일으키고 마음을 더럽히는 생각과 감정들인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닙바나입니다. 알아차림(Sati)으로 현상을 관찰하면 번뇌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현재 순간 일어나는 삶의 궁극적 실재를 완전하고 바로 깨닫게 하는 통찰지혜를 지속적으로 계발시켜 결국에는 변함없는 행복(닙바나)을 얻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써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잡초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째 뽑아 없애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구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재가자들은 5계를 스님들은 227계를 지킬 것을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말하며 생활과 수행이 별개가 아님을 말한 것으로, 계가 청정해야만 마음이 떳떳해지고 마음이 안정을 갖게 되며, 안정이 되어야만 침착해지고, 침착해야만 고요해지고, 고요해야만 산란함과 동요됨 없이 현상에 마음이 머무는 집중을 얻게 됩니다. 정(定 선정)은 바른 행위에서 시작되며, 이 선정의 힘으로 노력이 일어나게 되고, 노력이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아야만 올바른 집중이 되며 이 때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알아차림(사띠)입니다. 선정의 힘이 지혜를 일어나게 하며 지혜만이 잡초를 누르거나 외면하거나 방향을 돌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확한 힘으로 소멸시키게 합니다.

위빠사나 지혜는 일어나는 빛과 소리를 현재 순간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아는 것처럼 실재의 근본적 핵심을 꿰뚫습니다.

물론 깊은 뿌리는 쌓여진 지혜를 바탕으로 도(道: 막가)와 과(果:팔라)의 힘으로만 완전히 소멸시키게 됩니다. 계는 땅의 평탄 작업이며, 집중은 평탄한 땅을 다지는 것이며, 지혜는 그 위에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며, 닙바나는 안전하고, 튼튼한 집에서 고요한 행복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요?

모든 숨 쉬는 것들은 즐거움, 평화스러움, 행복함이 항상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그대로, 상상하던 대로 이루고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라고 생각한 몸과 마음이 항상 하지 않고 불만족과 괴로움이며,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절대 되지 않고 단지 몸과 마음의 성품대로 조건에 의해 스스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몸 마음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견해로 집착이 생기며 집착한 만큼 고통이 생기므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6문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면 집착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갈망하는 집착이 있게 되며, 이 집착으로 잘못된 견해가 생기게 됩니다. 집착은 즐거운 느낌의 근본 원인이 되기에 집착하면 어떤 것이건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성취하고자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실은 집착입니다. 훔치는 것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것인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착이며 집착한 만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집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집착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자 하고, 남을 돕고, 존경할 분을 존경하고, 수행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집착은 보시, 계를 지키고 그에 따라 선업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만들게 하는 좋은 집착으로 선행을 일으키게 합니다.



위빠사나로 수행한 부처님
괴로움의 원인 말끔히 소멸시키는
가르침 분명히 가르쳐줘

소멸의 방법은 몸·마음 현상
꿰뚫어 깨닫는 수행법
알아차림으로 현상관찰하면
번뇌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

둘째는 잘못된 집착으로, 이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허물이 되는 것으로 살인, 강도질과 같은 거친 행위를 하게 하여 불선업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집착을 갖지 않고자 하려면 6문에서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으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으로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몸 마음이 '영원하다' , '아름답다' , 이것이 '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은 갈애, 잘못된 견해, 영원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나' 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6문에서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고통뿐이며 '나' 라고 할 수 없는 몸 마음의 성품대로 지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6문에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집착이 생기게 되어. 결국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자기 소유로, 자기와 대상을 동일시하여 지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기게 되지만, 결국 집착으로 인한 불만족, 괴로움, 고통이 현생에서 뿐 아니라 내생에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집착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빠사나의 뜻

위빠사나(Vipassana)는 위(Vi)와 빠싸나(passana)가 결합한 말로써, 위(Vi)는 몸과 마음의 일반적 세 가지 특성인 몸-마음은 생기고 사라짐의 연속으로 빠르고 쉽게 변한다[無常], 생기고 사라짐이 끊임없이 괴롭힌다[苦], 괴롭히는 고통도 성품대로 변하니 고정 불변 실체는 없다[無我]를 뜻하며, '빠싸나passana' 는 '꿰뚫어 본다' ,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본다' , '특별히 다르게 본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게 본다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밑에 뿌리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알며, 싫고, 못마땅함이 일어날 때 밑에 뿌리한 성냄이 있는 것을 알고, 덤덤함일때 밑에 뿌리한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함을 말합니다.

또한, 빠싸나(passana)는 몸과 마음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바른이해 또는 깊은 마음집중에 의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더하여, 위빠(Vipa)란 '자아' , '나' 라는 개념을 뚫고 나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으로, 그 누구이건 대신해 줄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위빠사나란 몸(rūpa)과 마음(nama)의 본성인 세 가지 특성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신적 육체적 현상은 잘못된 반응으로 덧붙여지고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는데, 계속 팽창되는 오온을 세 가지 특성으로써 왜곡, 팽창 되는 것을 중단하여 오온의 실제 성품을 '보는 대로' 가 아닌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위빠사나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을 내가 뎟칠하거나 내 견해로써 또는 지혜가 아닌 지식으로써, 무지와 성냄, 탐욕이 있는 내 서투른 판단으로써 보지 않고 그 자체로써 몸과 마음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방법을 뜻합니다.

주위를 한번 봅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가장 강하다는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을까요? 가장 튼튼하다는 쇠가 녹슬지 않던가요? 내 몸이 늙지 않던가요? 자,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이 변하는 성질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만족이 따르고, 이러한 불만족으로 고통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으로 성장하면서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네 것' 하는 관념이 뿌리 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신체가 접촉할 때,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지속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상을 뭉뚱그려 알거나 지각으로 알기에 모든 것이 지속한다는 착각과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 자, 어떻게 걸어갔지요?"하고 물으면, '뭘 어떻게 걸어가나? 그냥 걸어가지.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닿는 것, 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 뭉뚱그려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찰력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걸음은 한 번에 떨어져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의 이동입니다. 한 번에 이동이 될까요? 아닙니다. 걸음을 걷고자 하면 발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발을 드는 것은 하나의 동작입니다. 든 발은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내리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동작이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발을 들고 내려야만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이동하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내려야만 걷는 움직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어떻지요? 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내리고, 닿고, 누르고 하는 아주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걷는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있는 그대로 잘 보면 거기엔 단지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 아주 많은 단계의 연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임을 대강 보기 때문에 걸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영혼' 이 있다, '자아' 가 있다, '넋' 이 있다, 지속하는 혹은 나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는 잘못된 견해가 끼어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상가가 있었는데, 대략 62가지 견해를 가진 62가지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견해들을 옳다고 여기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후 62가지로 대두하였던 당시의 견해들이 잘못된 견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2가지 견해 중의 하나가 좀 전에 말했던 '앗따(유신견: 有身見)' 입니다. 즉 자아, 영혼, 혼, 넋, 혼백 등 지속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여섯 곳(眼, 耳, 鼻, 舌, 身, 意)에서 바깥 대상을 인식할 때, 뭉뚱그려서 지각, 상상력으로, 생각으로 또는 자기의 견해로써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더욱 향상된 삶을 원한다면 이 62가지 견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 우리가 62

가지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짧은 80년 혹은 90년 인생은 깊은 어리석음 속에서 마감될 것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붓다락키따 스님이 법문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1008호 |

TEL 02)2004-8213(直)
FAX 02)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 약 90평 2층.. 공양간 / 3층..법당 /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 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곳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토굴안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3 잠실관광호텔 앞 • 50평
- 석가모니 후불 1,000불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들었으나 사정상 급 안내 3천만원 합 5,000만원

010-2225-2544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갤러리 색즉시공



견처(見處)

손수레에
뻥튀기를 파는 노보살님은
내가 본 분 중에
주름살이 가장 많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광복동 그 자리에 계십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그 자리에 앉아
담배 하나 물고 있답니다.

오늘은 리어카 세 낼 돈을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육천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
아마도
덕산 스님에게
떡 파는 노파의
점심(點心)의 견처(見處)가
뻥튀기 할머니의
주름 속에도 있는 듯합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아이들이 키운 어머니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아이들 정성껏 키우다 보니
나도 함께 바르게 살게 돼

좀 더 일찍 불교를 만나 출가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금생에는 두 아들을 생산하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다. 종진 스님께서〈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라는 책을 선물로 주시던 날, 나는 그 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

"저는 아이들이 키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이들은 나를 좋은 어머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좋은 업,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심성이 좋은 그 아이들은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인연인가. 회사에 다니면서 영업 파트에 속해있던 남편은 직책상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또 술을 즐겨하는 편이기도 해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남편은 매일 늦어 얼굴 보기 힘들고, 나는 아이들하고만 있어야 하는 사실과 직면하면서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저 남자는 다른 집 아들이고, 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아이들을 책임지고 반듯하고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나에겐 내가 생산한 내 아이들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고, 그로인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헌신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틈만 나면 아이들을 어린이대공원이나 미술관, 박물관에 데리고 갔다. 나는 그것을 '이란의 왕자교육' 이라고 불렀다. 나는 내 집을 왕실로 여기고 거기에 사는 내 아들들을 왕자로 알고 키웠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었다.

"엄마, 사슴은 왜 뿔이 났어?"

"다른 동물들이 습격해올 때 방어하려고 있는 거지."

"엄마, 사람은 왜 말을 하는데 쟤네들은 말을 못해?"

"엄마, 파란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나는 내가 철학자가 되어가는 듯 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음식을 만들고 운동을 했다. 나무로 그네를 만들어 마당에 걸고 애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여주에 있는 조그마한 종중산에 딸린 밭이 있어서 대추, 살구, 사과나무를 심었고 개나리도 심어 아이들에게 나무 이름도 가르쳐주었다. 틈만 나면 야외로 나가 자연과 함께 했고, 음악회, 미술관도 부지런히 다녔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위해 투자했다. 여러 가지 운동과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성정이 좋은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 순수를 나도 배웠다.

시댁 집안이 단출하였기 때문에 한적하게 살았던 것도 아이들에게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금생이 아니고 전생의 인연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내게 좋은 인연으로 왔고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자랐다.

나는 아이들을 서두르지 않고 키웠다.

전철을 타고 애들과 함께 어디를 갈 때도 아이들이 잠이 들면 "빨리 일어나라" 하고 깨우지 않았다. 한 바퀴를 더 돌더라도 깰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내가 이 약속으로 죽고 사는 일 아니니 만날 사람은 다음에 보면 된다고 생각할 만큼 무슨 일이든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애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어느 여름 날, 외출했다가 큰애는 걸리고 작은 애를 업고 가는데 아이들이 아이스케키가 먹고 싶다고 했다. 마침 지갑에 차비만 남아 있는 터여서 망설이다가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물어보았다.

"여기서 집까지는 몇 정류장이나 더 가야한단다. 엄마한테는 차를 탈 수 있는 차비만이 있으니 아이스케키를 사먹고 걸어갈까? 먹지 않고 차를 탈까?"

아이들은 아이스케키를 먹고 걸어가자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아이스케키를 사먹고는 천천히 집에까지 걸어갔다. 그렇게 나는 내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

어느 날 두 아들의 손등에 시퍼런 멍 자욱이 생긴 걸 보게 됐다. 둘이 싸운 것이다.

소리 내서 싸우면 엄마가 들을 테니까 동생은 형의 손등을, 형은 동생의 손등을 누른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이 내 삶의 거울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더 조심하고 살아야겠구나."하고 생각했다. 경전을 보는 것만이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선지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마음을 고르면서 살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인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재산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학교에서 다녀오면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는 것부터 가르쳤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방을 제 자리에 놓고 손을 씻은 다음 방을 정리 정돈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오게 했고, 물을 마시고 난 뒤에는 컵을 바로 씻어서 제 자리에 놓게 했고, 식사를 할 때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꼭 인사를 하게 했고, 다 먹고 나서는 의자를 식탁 밑으로 반듯하게 집어넣으라고 가르쳤다.

한 동네 사는 어른들께도 인사를 잘하는 것은 기본 예의로 가르쳤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이 소외되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이런 사회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보아서도 모두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은 좋은 인성을 쌓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예의가 사라진 사회는 인간미 없이 삭막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모든 사회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본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만나는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어르신들이 후에 나에게 아이들 칭찬을 해주었다.

"어머 이 집 애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정해요? 놀이터에서 놀아도 반듯하게 놀던데요."

이렇게 덕담을 듣는 것이 바로 불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덕담을 하는 것도 불공을 드리는 것과 같으니, 인사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 된다.

아이들이 다 성장한 지금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사를 할 때는 꼭 서서 양손을 내리고 발을 붙이고 공손히 해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덕이 되더구나. 엄마가 잘 한 건 인사 잘 한 것 밖에 없는 것 같구나." 인사가 만사의 시작이다.

동국대에서 공부할 때 가끔 출가한지 얼마 안 되는 스님들을 뵙게 되면 꼭 드린 말씀이 있다.

"인사 하나만 잘하세요. 인사 잘하는 스님으로 남으세요."

인사는 상대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숙이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진짜 여유다. 교육은 기본예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선시대 송시열의 글 '계녀서(戒女書)' 에는 그 기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터라 적어본다.

딸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친다. 그러나 이들도 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한다. 아이를 어릴 때부터 속이지 마라. 심하게 때리지 마라. 글을 가르칠 때는 순서 없이 권하지 말라. 하루 세 번씩 권하여 책을 읽게 하라. 난잡한 장난을 못하게 하라. 사람 보는 곳에서 눕지 말게 하라.

세수를 일찍 하게 하라.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게 하라. 불량한 친구와 사귀지 못하게 하라.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옛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게 하라. 15세가 지나면 아버지가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한 결 같이 교육하면 자연히 바람직한 선비가 된다. 딸을 가르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부디 철저하고 다부지게 교육하라. 놀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교육이다. 부디 잘 가르쳐라.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새겨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금쪽같은 조언들이다. 이렇게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바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아이들을 키웠지만 결국 아이들이 나를 키운 것이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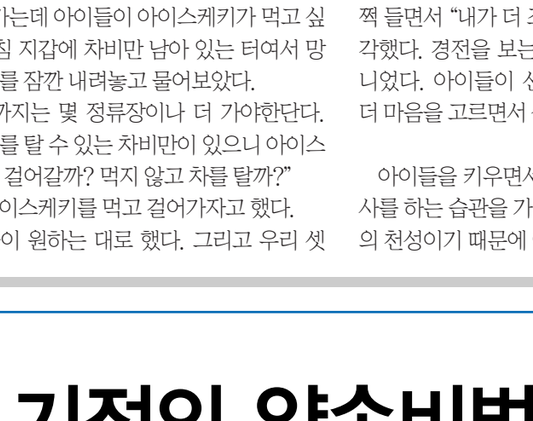
〈여여원 원장〉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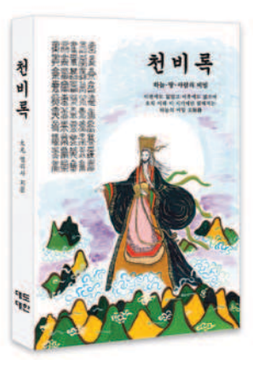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천비록(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잘못되고 잘되고 모든 것 공한 중심에다 말겨놔라

문제가 있든 없든 관할 수 있으려면

문)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관하게 되는데 문젯거리가 없을 때는 관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평상시에 늘 관하는 게 일상화 될 수 있겠는지요?

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공부하라고 그러죠.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둘이 아니라고요. 항상, 하다못해 변소에 똥을 누러가도 참선이라고요. 그건 요만한 거 하나 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든 거를 자기가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고 자기가 몸을 움죽거리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항상 하죠. 앉아서, 혹시나 시간이 있어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15분이고 얼마 동안이고 시간 나는 대로 앉았을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오직 그것만 관하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만이 증명해 줄 수 있어.' 하는 거요. 그것이 바로 곧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고 갈 때에 어떠한 거든지 닥치는 대로 주인공에다 놓고 '너만이 길을 정돈해서 잘 가게 할 수 있어.' 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용도니까. 용도가 닥치는 대로 자기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굴려놓는 거.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땅속으로나 물이 사방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죠. 여러분도 한바다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에요. 모두가 보림을 해야 하니까. 한군데로 보림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물이 흘러 들어갈 때는 흙물도 스며들어가고 똥물 핏물 고름물 어느 물 하나, 더럽고 깨끗함이 없이 그저 흘러 들어갈 뿐이죠.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되면은 그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보낼 때는 평등하게 모두 그릇대로 먹을 수가 있죠. 그게 생수예요. 그거를 이름해서 정수라고도 하죠.

그렇듯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안되는 거든지 되는 거든지 다, 내가 항상 그러죠. 안되는 거는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항상 이렇게 거기다가만 모든 거를 다 놓으라고 그랬죠.



그림 · 최주현

모두들 욕심을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거 잡지 말고 내 앞에 오는 거 마다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서 자기가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는 거 거절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마라. 이거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걸 억지로 쫓아가려면 그거는 욕심이고 오는 거 자꾸 거절을 하는 거는 무능하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까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마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억지로 이것을 오는 거를 마다하지도 않고 억지로 가는 거를 붙잡아다가 내가 뭐를 할 양으로 그러진 않아요. 하다못해 불사하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앞에 괴롭게 하질 않아요. 단 하나 있다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난 그게 아니죠. '네가 있다면 하고 없다면 그만 둬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처가 있다면 할 거고 부처가 없다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살아라 이 소리죠. 물에 파도가 치면 파도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어떠한 용도에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불성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본이 다 있어요. 저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어느 것에도 불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게 놓고 그렇게 네가 있다면 하고 네가 없다면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관하세요, 위급할 때도.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몸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이 다 보살로 화해서 응신으로 화해요. 응신으로 화해서 정히 급하고 아주 문제가 큰 문제라면, 나라의 일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뭐 지구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든 일체, 저런 나무 하나도 그냥 있지 않고 그 나무의, 즉 말하자면 목신이죠. 목신이, 즉 말하자면 우리의 불성의 영혼이에요. 불성은 가만히 있으면서 영혼은 그냥 몰입해 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어느, 즉 말하자면 묘지가 많은 데서도 거기서도 전부 한마음으로 모아서 응신이 돼 줘요. 이 소리 거짓말로 들으시겠죠?

얼마나 못났으면, 하다못해 꽃 한 송이 보고도 그냥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그냥 아주 관하면서 비두발발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주 예쁜 선녀가 그냥 꽃으로다가 장식을 했더래요. 그런데 꽃 이파리가 전부 달렸는데 꽃 이파리 하나하나를 떼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꽃 이파리를 떼어 주더래요. 떼어서 그냥 붙여 주더랍니다. 그 길로 병이 나았대요. 그럼 그게 꿈일까요?

우리가 전력이 들어올 때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보지 못한다고 그게 꿈일까요? 불 들어온 것만 알고, 불 나가는 것만 알고 '전력이 와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진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시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꿈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실질적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능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때로는 '아, 나는 그것까지 공부를 못해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띵겨 주는 거예요. 실천을 해 보라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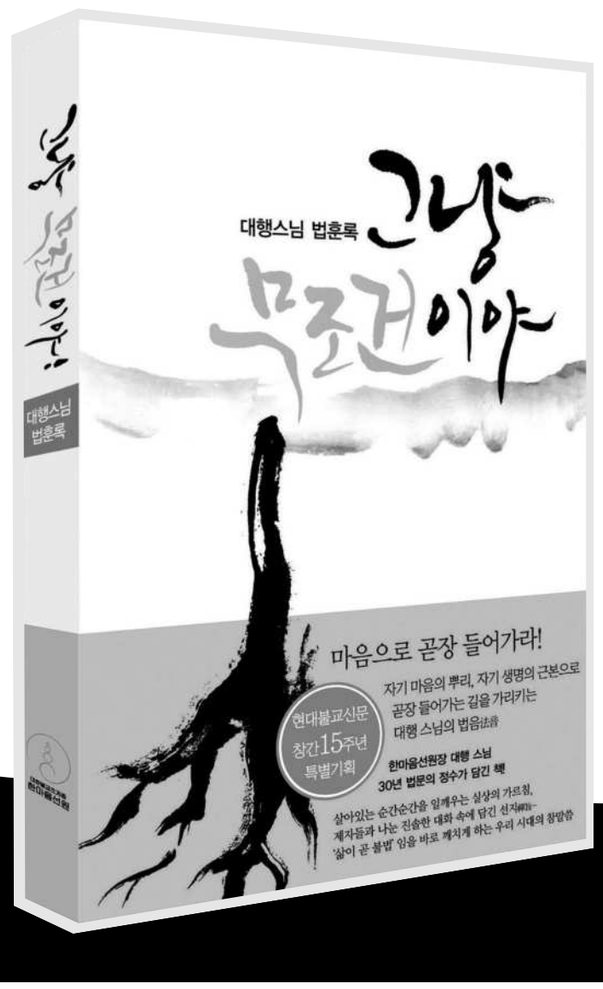
견성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문) 어떤 책을 보니 견성하면 큰 환희심이 난다고 하는데 견성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그거야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죠. 금방 그냥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들이댐빈대도 자기가 환심이 나면은 그냥 환심이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얘길 하는데 그러더군요. 이 공부를 한 몇 해 해 나갔나 그런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사람을 건지려면 내면부터 건져야 거죽이 건져진다

☞ 29면에서 계속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변소 문을 타고. 강도가 느닷없이 방문을 쩍 열고 들어오는데 신사복을 아니, 아래 위 아주 똑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입고선 쫙 빼고 들어왔는데 하나 뭣도 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 칼로 죽인다 하더라도 줄 것이 없으니 어떡하나."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그 시계라도 달라고 그래서 줘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환희심이에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자기는 여유 있게 환희심을 가졌기 때문에 둘로 보지 않은 거죠. '내가 만약에 극한 사정에 어려웠다면 나도 저랬을 거다. 만약에 한 열흘 굶었으면, 내가 굶은 거보다도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굶어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됐을 때 나는 저거보다 더했을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써 환희심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부인 반지도 아주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의 있게, 그냥 반지고 뭐고 시계고 뭐고 다 빼줘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그걸 들고선 한참 보더니만 주머니에다 넣고 말없이 그냥 가더랍니다. 칼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심이라는 것이 무슨 잘돼서만이 환심이 아니라 극한 사정이 있어도 환심은 있어요. 그게 지혜로서 물리가 터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죠, 여유 있게.

지금 견성이라는 거 말했죠? 그런데 견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남에 의해서 견성이에요. 즉 말하자면 내 이 몸속에 있는 생명체의 의식들이 다 조복을 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서 조복을 하게 되면 자기 주인공과, 즉 자불과 자기 육체와 둘이 아니게끔 만남이 있죠. 그거를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게 견성의 진로를 지금 쥐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 보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느 데까지, 부산을 갔다 왔다든가 미국을 갔다 왔다든가,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오니까 이렇더라 하고 그 길을 얘기하지, 갔다 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길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두 그것을 짐작하고 알고 스스로서 조복이 되고 스스로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요. 둘 아니게 걷고 있죠.

이게 얘기로 하려면 참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몸 안에도 천차만별의 의식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 몸뚱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 개체죠. 한 개체인데 그 생명들의 집이죠, 그러니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즉 말하자면 집합소죠. 그런데 그 집합소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전부 이 거죽의 내 몸뚱이로서 그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심부름을 안 해 줘요.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작용을 못해 줘요. 여기서 주면은 작용을 해 주고 여기서 안 주면은 그냥 송장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나 나나 서로 도와주는 형상이죠. 그래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해 주다 보니까 인제 그 양면을 다 다스리는 내 선장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자불이라고 하지마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돼요. 그 '주인공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양면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거를 작용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선장으로 인해서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선장으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선장으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로 한생각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경을 봐.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이 있는데.' 하고 보이죠? 색경을 보는 놈도 그렇고 비치는 놈도, 즉 말하자면은 환상일 뿐이죠.

그런데 그 관상을 자꾸 점프해 가면서 일으키고 작용시키고 하는 고놈은 바로 색경을 봐도 비치지 않아요. 그냥 당신 마음의 거울이 다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들어서 견성이다 성불이다, 그 이름만 들어서 견성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대신 견성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꿈,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없든 있든,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만 꼭 믿고 하세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걸 듣더라도, 어떠한 경을 보고 놀라더라도 거기다가 놓고 평등하게 공법으로 그냥 가세요.

무슨 일이든 부처가 있다면 할 거고 부처가 없다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살아라 이겁니다.
물에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어떠한 용도에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처에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각종 사고들이 우연은 아니겠지요

문) 현대 사회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기도 하며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지요?

답)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럭하고 싶어도 대신 내가 똥 눠 줄 수도 없고 병 앓는 걸 대신 앓아 줄 수도 없고, 또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잠자 줄 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의 섭류를 자유자재하려면 자기만이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에 모든 전파를 하고, 또는 유(有)의 세계는 말로 하고 몸으로 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무의 세계의 중용은 한 찰나에 오고 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차원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요, 차원대로. 그래서 서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잉태를 해서 애를 낳을 때도 그 어른들 차원에 따라서 잉태가 됩니다. 종자가 있죠, 왜? 대추 종자라든가 무 종자라든가 종자가 있듯이,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듯이 그거는 피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을 지은 대로, 고 차원대로 가서 인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되지요. 깡통끼리 모였으면 깡통끼리 소리가 나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저거 해도 소리가 나죠. 즉 인과를 지었으면, 또 업을 지었으면 서로가 그 업 지은 사람들끼리, 원수들끼리 만나고,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죠.

옛날에는 깻벌레 하고 거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줌을 통에다가 담아 가지곤 그것들을 오줌에다가 넣어서 죽였어요. 그것이 이하루 깡통으로 잡아도 고 이튿날 또 봐도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 오줌통에다가 그냥 집게로 담아서는 저거 하면 그냥 오줌통에다 넣고 뚜껑 덮어 놓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한 오십 살이 되도록, 아니 사십 몇 살이 되도록, 옛날에는 사십 몇 살이다 하면은 늙은이처럼 보였어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인제 그 애를…. 아니, 내가 얘길 거꾸로 했네요. 애를 인제 낳아서 기르는데 두 형제를 낳아서 길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인제 죽이고 살았는데, 형제를 낳았는데 어느 중이 가다가 보시고선, 그 애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쟤가 서당엘 가면은 서당에 갔다 올 때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거미다. 거미가 원수를 갚으려고 나온 거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철사로 이렇게 망을 해서 둥그렇게 병아리 집 모양으로 해서 놓고는 거기다가 가마떼기를 이렇게 하고 쪼금만 새를 내 놓고 그 안에다간 곁불을 질러서 놓고, 그러고서는 올 때가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당신 스스로 항아리 뚜껑을 덮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인제 하고 나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들어오더니만 그냥 막 악을 쓰고 울고불고 그냥 엄마 아빠를 찾고 막 울고 그러더니 어느 시간이 가니깐, 이 연놈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 연놈들, 요 때에 원수 갚을 땐데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펄펄 뛰고 울고 그러더니만, 너무 징그러워서 그 한 시간 동안 나오질 못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양쪽에 두 군데다가 해 놨는데,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거민데 그냥 전부 걸쳐서 거기에 우물우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스님께서 그거 살려준 거죠. 그러니 그 깻벌레하고 거미하곤 다 그 스님께서 다시 그 옷을 벗기고 천도를 시키고, 그 두 부부는 거기에서 모두 달려들어서 뜯어 먹힐 텐데 고만 뜯어 먹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부처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을 보냈대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선업도 있고 악업이 있고, 인과도 있고 유전도 있고 모두, 영계성도 있고 모두 거기에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것이 다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하는 것도 고시간에 마침, 또 고렇게 가는 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우연히는 아니에요, 모두가. 그냥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그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절대 철칙이에요. 자기가 죄를, 알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하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다면 알게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잘되고 모든 거를 그 공한 중심에다가 다 맡겨 놔라. 네가 죄 짓는 게 아니다.

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공생이 아닙니까.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화 하고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데 뭐가 내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따로 지을 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을 게 없으니깐 그냥 내가 막 해도 죄가 안된다더라.' 하고 이럭해선 안 되죠,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려서 그 불기둥, 즉 말하자면 중심주에다가 모든 거를 놔라 이겁니다. 거기다 맡겨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수레가 바로, 우리 돌아가는 몸이 다 거기에 꿰여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가족에게 마음공부 인연 맺어 주고 싶은데

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권해 보지만 인연을 맺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연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답) 인연이 없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자꾸 붙들고 저거 하면 외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둘이 아닌데….' 하고 결정을 지어 놓고, 그냥 보이는 데서는 씻은 듯 없는 듯 있는 듯 하게 그냥 해 버리면 어느 땐가는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알게 돼서 점점 점점 그 마음먹던 것이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게 돼서 결국은 같이 친밀하게 돼요.

그게 말을 안 듣는 것도 설득하려니까 그래요. 설득을 해서. 친밀하질 못해서. 그렇게 친밀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많아서 불쌍한 생각, 안된 생각을 많이 했지 지금 현재 물질적인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밀해 보지 못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면의 주인공하고 같이 둘 아니게끔 해야 그 사람이 껍데기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 건지려면 내면부터 건져야 거죽이 건져진다 이런 말입니다.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전시상품 절대 아님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
입금계좌: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명분

불자 세상보기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하는 추석 명절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중국 복단대 겸임교수

아동과 노인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다. '칠곡 계모사건' '울산 계모사건' 등 충격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온 사회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아동 · 노인 학대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8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0년 5657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6796건, 올 7월까지 4202건에 달했다. 노인 학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가 지난해 3520건으로 2005년보다 72.7% 늘었다고 밝혔다.

왜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 졌을까? 가정이 해체되고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바로선다면 분명 아동과 노인 학대같은 인권 유린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많다. 갈등이 생기면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다.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갈등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형제간에도 한 치의 양보도, 이해도 없다. 그저 자기 몫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떤 가정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문제로 형제간에 다투는 것을 본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공감은 해 준다고 해도 너무한 경우가 많다.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간 돈거래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제 곧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은 각자 생활터전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럴때일 수록 지금까지 전국민의 아픈 상처로 기억되는 세월호 가족들이 생각난다. 또한 죄없이 학대받는 천진불들도 머릿속을 스친다.

재미와 수행삼아 가꾸는 농작물이 다쳐도 마음이 아플진대 아이들이 아프거나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본다. 속가의 어린 동생이 생각 없이 높은 데에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잘못되는 일을 겪고 동생의 얼굴을 때리며 눈 좀 떠보라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찌해서 제 스스로 사랑해 낳은 아이들을 때리고 굶기고 학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 상상이 안된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다. 곳곳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주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과 온 나라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는 일이다.

우리가 추석을 맞으며 항상 듣는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란 것이 있다. 그만큼 추석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그동안 못다한 얘기 보따리를 풀며 즐거움과 행복을 풍성하게 나누기 때문에 생겨난 말인 것 같다. 나라 안팎 곳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다가 사랑하는 집안 어르신들과 형제들이 만나서 지난 세월의 자란 이야기, 재미있는 민속놀이 들을 나누다면 그 얼마나 풍요로운 일일까? 상상만 해도 신이난다. 가족의 힘은 분명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튼튼한 결속력이 생겨난다면 어찌 아동이나 노인학대 같이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간의 불협화음과 사랑이 결여될때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다.

가끔 장남의 아픈 푸념을 듣는다. 형제들이 어린 시절, 장남으로서 부모를 대신해 공부를 가르쳤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장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이 입을 싹 닦아 버린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너무나 야박해진 형제들에게 가슴이 아파 울고 있다.

추석은 보름달처럼 가족이 다함께 풍성해 지는 날이다.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곳곳도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가족 모두가 환하게 웃고 서로가 함께 있어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시길 발원드린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아이스버킷 챌린지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기금 모금을 취지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 전세계적인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시작됐다. 부산복지계에 지목을 받은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시작으로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구본일 BTN사장 등이 지목을 받고 또 챌린지에 동참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순수한 목적과 함께 단순한 유행의 의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계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호기심에 지켜봤지만 이젠 사명감 느껴



심산 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먼저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 설마 내가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부산불교복지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승속의 여부를 떠나 동참하고자 마음먹게 됐다. 누군가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찬물을 열 번이고 천번이고 맞을 수 있다.

지금은 불교가 사회와 소통해야 하는 시대이다. 스님으로서 이번 챌린지 동참에 개인의 체면이나 위의가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법회 때마다 법문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누구에 의해 주도되며, 혹은 정치적이나 가쉽성으로 지나갈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의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최초다.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자비나눔 활동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 지금 챌린지에 대한 호기심을 좋게 이끄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기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목정 스님과, 불자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캠퍼스 이계영 총장, 불교언론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본일 불교TV사장을 지목했다. 아무쪼록 불교계에도 이번을 계기로 불자들의 자비나눔에 대한 동참이 함께 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후속작업 중요



홍윤기 교수
동국대 철학과

먼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현상이 한때의 흥밋거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난치병을 앓거나 사회에서 소외돼 아픔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치유의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난치병 환자 치유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병의 경우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가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공약을 걸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책이 미흡하다.

이와 같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아이디어를 관심 환기를 계기로 제도마련이나 실질적인 움직임이 일어야 한다. 현 정부도 선거 당시 약속한 부분을 해결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

또한 챌린지 자체가 가쉽으로 끝나지 않도록 언론이 스스로 자정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소외계층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이벤트성 보도에 그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지목했다 등에만 가쉽성으로 몰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SNS를 활용한 캠페인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일종의 사회적 예능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 같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에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기를 기원한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27일 홍법사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이미 지목을 받아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던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개강 후 9월 중에 학교학생들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스버킷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社說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사찰 홈페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손전화기가 그것도 과학 기술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필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백만 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 기기 변화는 신행문화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모바일로 사찰 홈페이지를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반응형 웹시스템과 안양 한마음선원의 포털기능이 가미된 홈페이지가 바로 이런 것을 가능케 해줬다.

올 1월부터 6개월 동안 개발 기간을 거쳐 7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 봉은사는 반응형 웹 시스템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반응형 웹 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PC 등 미디어기기에 상관없이 구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현재 사찰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일반 PC에 맞춰져 있어, 스마트 폰이나 일반PC용 모니터 보다 화면이 작은 태블릿 등을 이용하면 글씨가 작아 해독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반응형 웹은 웹사이트가 접속기기를 판별해 자동으로 해상도를 맞춰준다. 또한 법문 등의 영상은 인터넷 영상사이트 유투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돼 봉은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이트 퀵메뉴, 자주찾는 페이지 아이콘 등을 통해 페이지 전환을 최소화 한 것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안양 한마음선원도 지난 1월 개통한 홈페이지를 보면 사찰 최초로 방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사이트와 연결되는 포털 기능을 지녔다. 두 사찰 홈페이지의 공통점이 또 있다. 뛰어난 기능 뿐만 아니라 기획단계서부터 신도들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봉은사의 경우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봉은사톡의 쌍방향 커뮤니티를 개발했으며, 한마음선원도 모바일메신저를 개발했다. 스마트폰 기기의 진화와 함께 사찰의 신행 문화도 변화중이다.

지리산 천일기도가 시선 끄는 이유

지리산권역 4대 종교 성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기원하기 위한 세월호 지리산 천일기도를 봉행한다. 지리산종교연대를 비롯한 지리산권 단체들이 결성한 '세월호 지리산천일기도 추진위원회'가 8월 30일 실상사서 세월호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 25일까지 1,000일간 생명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위한 합동기도회와 야단법석을 펼친다.

추진위원회 고문인 도법 스님은 세월호 이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꾸고 꽃피게 하기 위해 지리산권역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지피고자 천일기도를 결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기도가 무엇보다 의미있는 건 바로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도법스님을 비롯해 성염 前 로마교황청 대사, 임봉재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가 추진위원회 고문을 맡았으며, 지리산종교연대 상임대표 홍현두 교무, 최세현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안상수 지리산프로젝트 공동추진위원장, 김민해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실상사에는 상설천일기도단을 건립해 1000일 1000인 릴레이 기도를 진행한다. 지리산프로젝트 공동추진위원장인 안상수 前 홍익대 미대 교수가 설계를 맡은 상설기도단은 세월호 희생자 수를 상징하는 304개의 태양광 등을 밝히며 추모와 다짐의 뜻을 이어가는 도량으로 꾸려진다. 생명평화결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NGO들이 기도에 동참하며 100일 간격으로 야단법석도 개최한다. 100일 야단법석은 진보 · 보수의 진영구도, 대결구도를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서로 다르지만 종교의 본질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거룩한 불사인 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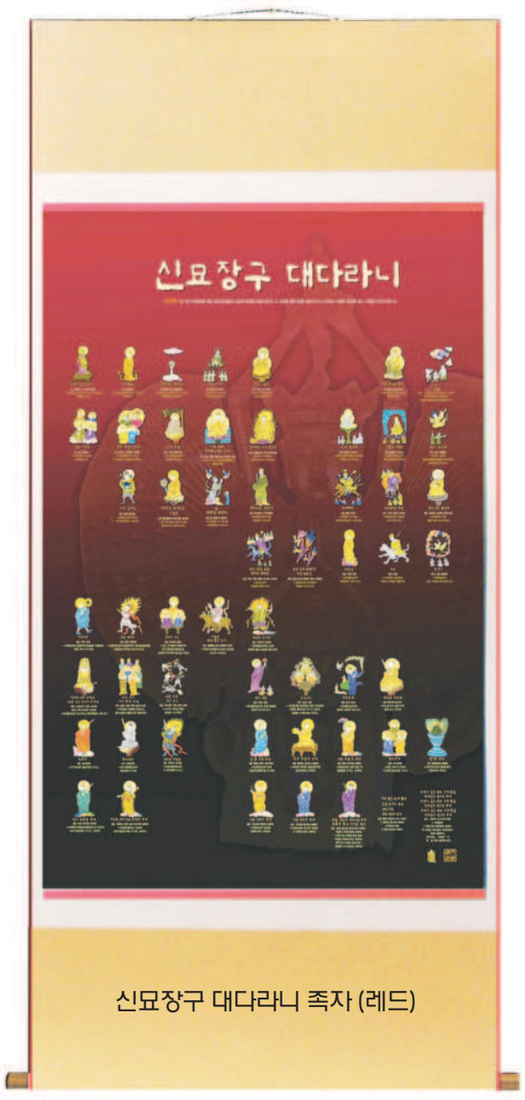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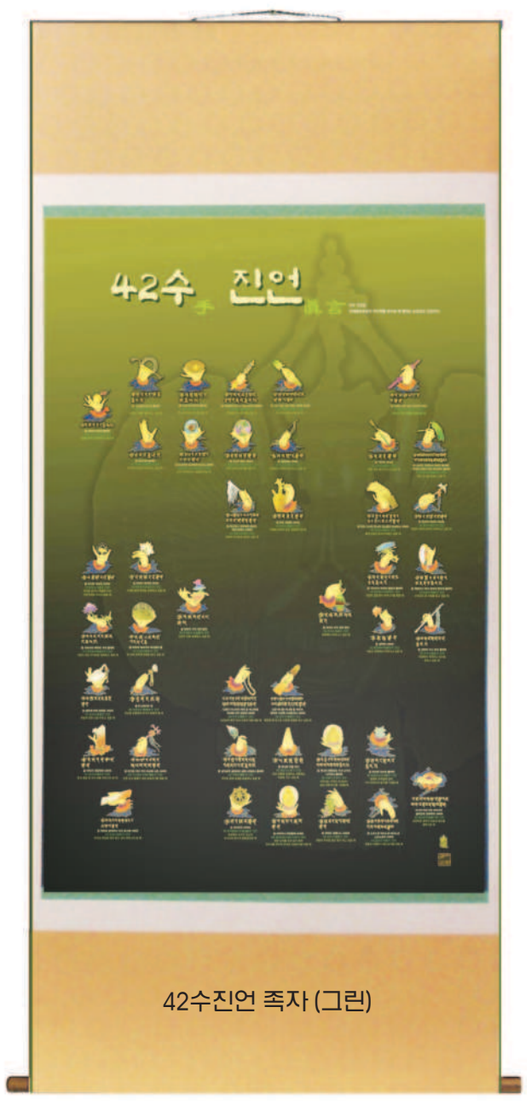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촉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견보탑품(22:19)	제18. 수희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